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안남 인식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반민득

2022년 8월

#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안남 인식 연구

지도교수 전영준

반민득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반민득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양정필 

위 원 강문중 

위 원 전성준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6월

A study on Joseon intellectuals' perceptions of Annam in  
the 17<sup>th</sup> century

Banh Minh Duc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22년 6월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Jeon Young-Joon, Prof. of History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4
3. 연구대상 및 논문구성 .....	7
II. 이수광의 안남에 대한 견문과 인식 .....	11
1. 안남국 사신과의 조우와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 .....	12
2. 중국사행을 통한 안남 인식 .....	18
III. 趙完璧·金泰璜의 경험과 안남 인식 .....	26
1. 趙完璧의 방문담으로 본 안남 인식 .....	26
2. 金泰璜의 표류담으로 본 안남 인식 .....	37
IV. 조선 지식인의 안남 이해와 상호인식 .....	51
1. 안남의 정치·사회상 .....	52
2. 안남인의 생활문화와 민간풍속 .....	59
3. 조선 지식인의 안남 문화상 이해 .....	68
V. 결론 .....	77
참고문헌 .....	81

## <표 차례>

<표 1> 이수광과 풍극관의 창화시문 정리표 .....	12
<표 2> 조완벽의 안남 견문 내용 비교 .....	28
<표 3> 10세기 이후의 越·中·韓의 역대 왕조 .....	53

## <그림 차례>

<그림 1> 17세기 적전(藉田)을 위한 안남왕 거동의 모습 .....	21
<그림 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좌) 및 「천하도」(우) .....	25
<그림 3> 『탐라순력도』에 실려 있는 「한라장축」 중 주문 .....	25
<그림 4> 일본이 그린 광남국 삽화 .....	40
<그림 5> 완씨정권의 궁전 .....	42
<그림 6> 강여를 탄 죽림대사 .....	48
<그림 7> 교지인의 엄지발가락이 엇갈린 현상 .....	54
<그림 8> 베트남의 1650년 각 일파 분포 지도 .....	56
<그림 9> 16세기말(좌)과 18세기(우)의 안남인 모습 .....	61
<그림 10> 18세기 조선 관원(좌) 및 안남 관원(우) .....	62
<그림 11> 죽림대사출산도 일부 .....	67

##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안남 인식 연구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반민득\*

과거에서 안남과 조선의 접촉은 주로 중국 조공체계를 통하여 서로가 교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을 통해 唱和詩文이라는 使行文學을 많이 남기게 되었다. 중국 사신으로 파견된 안남과 조선의 사절단이 중국에서 만나 ‘한문’을 매개로 필담과 唱酬를 하며 교류를 전개하였다. 특히, 당시 李睟光의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은 주로 이런 사행을 통하여 얻었다. 조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안남은 역시 그에게 적지 않은 호기심을 불렀다. 때문에 이수광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외국 인식, 특히 안남 인식 연구 성과가 많은 편이다.

한편, 무역활동을 하기 위해 이웃나라에 오가는 사람들로 인해 해상무역도 융성하였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나 폭우로 인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고, 멀리 떨어진 나라로 표착하는 사례도 있었다. 첫째는 17세기 초에 와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안남국에 다녀온 인물로 평가받은 趙完璧이다. 둘째는 1687년에 안남으로 표착한 제주인 金泰璜의 일행도 있었다. 이 사람들은 안남에 머무르는 동안 안남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방문담과 표류담을 17세기 지식인들에게 자세히 전하였다. 그래서 조완벽의 방문담을 다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에 김태황의 표류담을 주제로 삼은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 지식인들은 먼저 중국의 매개나 사행문학으로 안남에 대한 정보

---

\* 본 논문작성자는 한국정부초청장학금(Global Korea Scholarship)을 지원받은 장학생이다.

를 간접적으로 받아들였으며, 17세기에 와서 조선인의 안남 방문담이나 안남 표류담을 통해 직접 견문한 안남 이미지에 접근하게 되었다. 당시 안남에 대한 인식은 조정의 공식적 기록이 없고 대부분 필요에 따라 보도한 안남 정세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행문학과 방문담, 표류담은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에게 안남의 정세뿐만 아니라 안남의 지리, 풍속문화, 특산물 등을 인식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남 인식은 상호간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안남 역사와 병행하여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안남이 실제와 맞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이 받아들였던 안남 사람, 생활모습, 정치적 상황 등의 지식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수광의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조완벽의 방문담, 김태황의 표류담을 분석하면서 각각이 확인하고 있는 안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기록물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서로의 갈등과 모순 내용은 무엇이며 안남 역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안남 인식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는 것이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표제어: 이수광, 풍극관, 안국사신창화문답록, 조완벽, 조완벽전, 김태황, 표류담, 17세기 조선 지식인, 안남 인식.

<Abstract>

## A study on Joseon intellectuals' perceptions of Annam in the 17<sup>th</sup> century

Minh Duc, Banh\*\*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the past, the contact between Annam and Joseon was mainly due to their exchanges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tributary system of China. Through that process, a lot of envoy literature was recorded, namely antiphon poetry. Being sent to China, the Annam and Joseon tributary envoys met there and used Chinese characters as a means for literature exchange. At that time, Lee Soo Kwang mostly gained perceptions about other countries by means of this mission. Particularly, it was Annam which was far away from Joseon that considerably aroused his curiosity. Consequently, there has been plenty of research about perceptions of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perceptions of Annam on the basis of the records of Lee Soo Kwang.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lso a lot of traveling to neighboring countries for trading activities and maritime trade was brilliantly developed back then. On the sea, however, there occurred many unexpected situations. There were cases that people were drifted away to a country way distant from their original target by cause of storms or heavy rains. The first instance was Jo Wan Byuk who was considered the first man in

---

\*\* The author of this thesis is a Global Korea Scholarship scholar sponsor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history of Korea that ever came to Annam in the early 17<sup>th</sup> century. The second case was Kim Tae Hwang, a resident of Jeju Island, who drifted to Annam in 1687. These people acquired a wide range of knowledge of Annam while staying there and they passed all their travel records and drifting records to Joseon intellectuals of the 17<sup>th</sup> century. However, while the travel records of Jo Wan Byuk have been widely researched in various aspects,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focusing on the drifting records of Kim Tae Hwang.

So, first of all, Joseon intellectuals indirectly obtained information about Annam from the intermediary China or the envoy literature. It was not until the 17<sup>th</sup> century that they could get access to the directly witnessed and recorded images of Annam through the travel records or drifting records of Joseon people. The reason was because the perceptions of Annam were not officially documented by the government, there were only reports about the political situations of Annam by period. Therefore, the envoy literature, travel records, and drifting records played an integral role in the perceptions of not only politics but geography, cultural traditions, and specialties of Annam as well. But because the way each person approached the information about Annam was not the same, the contradictions in their records need to be resolved. Furthermore, the history of Annam needs to be considered as well in order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perceptions about Annam of Joseon people.

This study will analyze 「The Records of Exchanging Questions and Answers with a Vietnamese Envoy」 of Lee Soo Kwang, the travel records of Jo Wan Byuk, and the drifting records of Kim Tae Hwang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knowledge about Annam such as the people, their lifestyles, political situations that was obtained by the 17<sup>th</sup> century Joseon intellectuals, and to have an over view of the perceptions of each person about Annam. More over, by explor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resolving the contradictions in the content among there cords, and comparing to the history of Annam, we can analyze there liability of the perceptions about Annam of the 17<sup>th</sup> century Joseon intellectuals.

Keywords: Lee Soo Kwang, Phung Khac Khoan, The Records of Exchanging Questions and Answers with a Vietnamese Envoy, Jo Wan Byuk, Jo Wan Byeok-Jun, Kim Tae Hwang, Drifting records, Joseon intellectuals of the 17<sup>th</sup> century, perceptions of Annam.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현재 세계는 글로벌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수교관계를 맺어 공식적으로 경제, 정치, 문화 등의 다방면에서 서로 협력한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은 대외관계의 협약을 통해 사업, 투자, 유학, 관광 등의 여러 사유로 양국을 오갈 수 있다. “不經一事, 不長一智”라는 말처럼 여행은 시야를 넓혀준다고 한다. 이에 본국에서 타국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인터넷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그곳의 사람, 문화, 풍속, 생활모습 등을 목격할 수 있다. 베트남과 한국의 경우는 1992년부터 공식적으로 수교관계를 맺은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해 왔다. 양국은 다방면에서 협력하며 국민들은 사업, 투자, 유학, 관광, 결혼이주 등의 여러 사유로 끊임없이 왕래하고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본국을 떠나 이웃나라에 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주로 인근 국가와 수교관계를 맺은 나라에 왕래했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과의 조공체제로 朝天使와 燕行使를<sup>1)</sup> 중국으로 파견하였으며,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通信使를 일본으로 파견한 일이 많았다. 한국인과 베트남인과의 접촉은 주로 중국 조공체계를 통하여 서로가 교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양국 사신이 중국에서 만나 시문을 창화하면서 상호간의 인식을 알리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唱和詩文이라는 使行文學이 생성되었고, 창화시문은 우선 화이체제 하에 동병상련의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사귀의 기쁨과 이별의 아쉬움을 노래한 문학작품이다. 중국 사신으로 파견된 안남과 조선의 사절단이 중국에서 만나 ‘한문’을 매개로 필담과 唱酬를 하며 교류를 전개하였다. 특히, 당시 李睟光(1563~1628)이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을 주로 이런 사행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

1)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왕조가 중국으로 파견한 사신을 시대에 따라 구별하기 위해서 대명사행을 朝天使, 대청사행을 燕行使로 부른다.

조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안남은 역시 그에게 적지 않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다른 나라와의 해상무역도 활발히 발전하였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나 폭우로 인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거나, 멀리 떨어진 나라로 표착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방으로 표착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한동안 생활하면서 본인이 목격한 것을 귀국한 후에 문서로 기록했다. 이러한 사례로는 17세기 초에 東洋半島(인도차이나반도)<sup>2)</sup>에 있는 安南國(현 베트남)에 가서 그 지역의 사람, 생활모습, 문화, 등을 생생히 보면서 체험했던 인물이 있었다. 즉, 한국 역사상 최초로 안남국에 다녀온 인물로 평가받는 조완벽이다. 두 번째로는 안남에 표착한 제주인 김태황<sup>3)</sup>의 일행도 있었다. 이들은 안남에서 지내면서 안남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방문담과 표류담을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에게 자세히 전하였다.

이처럼 조선 지식인들은 먼저 중국의 매개나 사행문학으로 안남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받아들였으며, 17세기에는 조선인의 안남 방문담이나 안남 표류담을 통해 직접 견문한 안남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제적 정보가 중요했던 이유로는 당시 안남에 대한 조정의 공식적 기록이 없고 대부분 필요에 따라 보도한 안남 정세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행문학과 방문담, 표류담은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에게 안남의 정세뿐만 아니라 안남의 지리, 풍속, 특산물 등의 기초한 것을 얻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이수광의 기록을 분석하고 안남 사신과의 조우 전후에 안남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과정에서 그의 안남 인식이 어떻게 변환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다. 이어서 조완벽의 방문담과 김태황의 표류담을 분석하면서 당시 그들이 안남에서 목격한 것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에게 안남이 어떤 나라인지, 그들의 안남 인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베트남 문헌 자료, 서양인 자료, 중국 문헌 등을 기반으로 하여 특히, 이웃나라의 의복, 사람의 모습 등이 그려진 『皇清職貢圖』<sup>4)</sup> 또는 당시 다른 나라가 베트남을 묘사한

2) 인도의 동쪽과 중국의 남쪽 사이에 붙어있는 반도 지역이며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일부 등이 포함되었다.

3) 김태황의 이름은 각 문헌에서 金大璜, 金大黃, 金泰璜 등이 다양하게 수록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적 문서인 속중실록과 비변사등록에서 수록된 金泰璜을 쓰기로 한다.

중국의 그림과 서책을 살펴 조선 지식인이 인식한 안남의 모습을 재확인할 것이다. 아울러 당시 주변 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을 보는 시선을 분석하여 조선 지식인들이 인식한 안남 모습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수광의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 조완벽의 안남 방문담, 김태황의 표류담을 분석하여 당시 안남과 조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은 베트남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또 베트남에 대한 이방인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베트남 인식에 도움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자문화권 또는 중국의 조공체계 아래에 있는 안남과 조선은 서로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만한 점이다.

이런 까닭으로 본 연구는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기록을 통해 양국의 상호인식을 대상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유교문화권이었던 안남과 조선은 명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본국의 제도를 정비했다. 그러나 문화권의 동질성에 못지않게 이질성으로 거론되는 것도 여럿 있다. 예컨대 안남 사신은 ‘衣冠’이 다르고, ‘黑齒’를 하고 있으며, ‘풀어 헤친 머리’를 하고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 이질성에 대한 인식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지가 있다.<sup>5)</sup>

조완벽과 김태황의 이야기가 전파되기 전에 조선 지식인은 안남에 대해 주로 중국 서적 또는 조선 사신이 목격한 안남 사절단에 대한 묘사 등을 통해 인식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조완벽과 김태황의 이야기를 통해 17세기에 조선 지식인에게 색다른 베트남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조선 지식인들은 사행문학에서 방문담이나 표류담으로 접근하면서 안남에 대한 최초의 인식과, 이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17세기 당시에 중국을 비롯하여 안남과 조선에서는 역사적·사회적 변동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유교문화권에 있어서도 이질성에 대한 것도 많고 같은 유교를 섬기지만, 안남은 조선이 흡수한 유교질서와 달랐다. 또, 17세기 조선 지식인이 중국에서 교류한 안남 사신, 이어진 안남 체험이나 표류를 통

4) 『皇清職貢圖』는 1751~1757년 사이에 원형이 완성됐고 청나라 때 국내 각지 및 주변 국가들의 풍속과 지리 정보를 담은 문헌으로, ‘황청’은 청나라를 황제국이라 높여 말한 것이고, ‘직공도’란 중국 왕조에 조공하는 외국 사절들과 산지 물품을 그린 그림이란 뜻이다.

5) 최귀목, 「韓越 唱和詩 연구의 경과와 방향 점검」, 『한국어와 문화』 Vol.13,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3, 4쪽.

한 양국의 상호인식에서도 당시 조선 지식인의 안남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여 타국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정하는 과정을 연구의 주제로 삼았다.

## 2. 선행연구 검토

우선 이수광의 「안남국사신문답록」을 통해 이수광의 베트남 인식에 대해 연구한 성과들은 많이 축적되었다. 최병욱은 2009년에 발표한 「이수광(李睟光)의 베트남, 1595-1598」에서 이수광과 안남사신인 풍극관<sup>6)</sup>의 교류를 통하여 당시 이수광이 베트남의 국명, 역사, 물산, 인물, 풍속 등을 검토하였다. 김문식은 2018년에 발표한 「지봉 이수광의 베트남 이해」에서 이수광이 북경에서 만난 안남 사람을 보고, 안남 사신인 풍극관과 시담으로 교류하면서 안남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이수광은 새로운 나라를 접근할 때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으며 정치적 상황, 지리와 특산물, 인물과 문화 등을 많이 알아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수광이 북경에서 풍극관과 교류하면서 얻은 인식을 갖은 뒤에 조완벽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 그의 방문담을 들었다. 이수광은 안남 사신을 통하여 안남을 알게 되었고 조완벽의 방문담을 듣고 당시 안남국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이 연구들은 향후에 이수광의 안남 인식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편, 김태황의 표류에 대한 연구들이 적은 것은 김태황에 관한 기록의 분석 방향을 검토한 연구들이다.<sup>7)</sup> 최병욱은 2001년에 발표한 「17세기 제주도민들이 본 호이 안(Hoi An 會安)과 그 주변」에서 김태황의 표류 사건을 검토했으나 당시 베트남 정세와 표류인의 구술을 소개한 것에 불과했다.

조완벽에 대해서는 남미혜가 발표한 「17世紀 被擄人 趙完璧의 安南 체험」은 조완벽에 대한 서적을 살펴보고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조완벽의 방문

6) 馮克寬(Phùng Khắc Khoan, 1528~1613)의 호는 毅齋, 자는 弘夫, 俗稱은 狀逢이며 1597년 70세의 나이로 중국 명조에 정사로 파견되었다.

7) 정난영, 「조선후기 漂流 소재 記事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제40집, 동양한문학회, 2015; 최영화, 「口述과 記述의 관계로 본 표해록의 글쓰기」, 『人文科學研究』 34권,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담을 조선에서 어떻게 널리 퍼뜨려 이수광·鄭士信·李垞 등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지었는지, 안남국 왕래과정, 안남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등을 모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조완벽의 안남 인식을 분석할 때 남미혜의 연구가 참고할 만한 자료 중의 하나였다. 남미혜는 조완벽에 대한 방문담뿐만 아니라 이미 그에 대한 가계와 생애를 깊이 연구한 「정유재란기 被擄人 趙完璧의 家系와 삶」도 있었다. 이 연구들은 조완벽의 안남 체험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왜냐 하면 당시 수많은 조선 피로인 중에서 倭主가 조완벽을 뽑아 안남으로 동행한 연유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김경희가 2015년에 발표한 「『조완벽전』에 나타난 타자 인식 고찰」은 이수광의 「조완벽전」을 분석하고 안남에 대한 그의 인식을 고찰한 후 그의 타자 인식에 나타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수광은 「조완벽전」을 통해 조완벽의 전쟁 체험보다 그가 경험한 안남과 자신이 유명 인사가 된 일화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두 인물의 안남 인식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반면에, 정규식이 2018년에 발표한 「『조완벽전』을 통한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해외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는 당시 조선 지식인이 해외 세계 인식을 분석하면서 비판했다. 이 논문에서는 ‘경계와 의심, 비동질적 인식’, ‘문화적 우월 의식 고취’, ‘신이와 환상의 영역 혹은 죽음의 공간’ 등과 같은 당시 지식인의 인식들이 형상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의 해외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전쟁 및 전쟁을 통한 越境의 경험을 대하는 조선 사회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조완벽전」에 나타난 조선 지식인의 베트남 인식을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안남과 조선과의 상호인식을 살펴볼 때 빠질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논문은 손찬식이 2006년에 발표한 「〈趙完璧傳〉을 통해 본 芝峯 李睟光의 越南 認識」을 들 수 있다. 손찬식은 「조완벽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당시 북경에서 안남 사신인 풍극관을 만나 얻은 정보를 가담하여 이수광의 베트남 인식을 살펴보았다. 때문에 조완벽의 방문담을 수록한 사람으로서 이수광의 베트남 인식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는 그의 세계관에 위치한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이 되었다.

사행문학과 방문담·표류담을 같이 검토하여 발표된 연구들도 있는데 주로 통시

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연구들의 연구방식과 연구대상이 미미하게 다르나 참고할 만하다. 우선, 하우봉의 「해양사관에서 본 조선시대의 재조명(2006)」은 베트남과의 교류를 분석하기 위해 조선 사신과 안남 사신의 교류 건수를 정리하면서 그 간의 양국 사신이 주고받은 詩談과 아울러 분석하였다. 게다가 중국에서 사행교류를 받아들이던 안남 인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피로인과 표류민의 안남국 체험과 같이 살펴보았다.

박희명의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2009)」은 조선 후기 지식인을 한정시켜 조선측 자료인 사행문학, 방문담, 표류담과 더불어 중국과 베트남 자료를 활용해서 베트남을 살펴보았다. 이에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베트남 이해가 한층 더 깊어졌음을 밝혔다. 그러나 하우봉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축없이 통시적으로 나열하면서 조선 지식인의 베트남 인식이 관점과 변화 양상만을 분석하는 약점이 있다.

김용태의 「한국한문학 자료에 나타난 베트남 인식의 몇 가지 갈래(2010)」에서는 한국한문학 자료 가운데 베트남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다음에 전통시대 한국인들의 베트남 인식을 분석하였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첫째는 중국의 華夷觀<sup>8)</sup>에 영향을 받아 베트남을 ‘오랑캐’로 인식하게 되고, 둘째는 중화체제 아래에 있는 조선과 안남이 양국 사신의 교류를 통해 서로가 형제나라로서 우호를 다지고, 셋째는 객관적이고 주체적인 인식을 통해 화이관을 극복해 갔다고 보았다. 따라서 베트남에 관한 사행문학, 방문담, 표류담 등의 분석을 통해 이수광·조완벽·김태황의 안남 지식도 함께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이수광·조완벽·김태황 등에 대한 기록물을 통하여 조선 지식인의 안남 인식을 살펴본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은 주로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성과였다. 또는 각자가 안남 인식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서로의 모순과 갈등이 있었고 여러 사람의 안남 인식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는데도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안남 인식을 분석하면서 각 기록물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

8) 화이관은 송대 이후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중국사상에서 강조되던 특징으로서, 中華와 夷狄를 엄격히 구별하고 漢族왕조의 방어를 도덕적 사명으로 강조하던 정치사상이었다. 즉, 중국 중심주의를 말하며 華夷思想, 華夷體制, 華夷秩序 등이라 부른다.

고 상호비교를 통해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인식한 안남 이미지를 다시 그려볼 것이다. 더하여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안남 인식은 안남 역사의 전개에서 얼마 정도 확실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대상 및 논문구성

본 연구는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기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매개나 사절단을 통해 안남에 대한 정보를 얻어 담긴 사행문학이고, 두 번째는 안남으로 직접 가서 견문한 것들을 기록한 방문담과 표류담이다. 사행문학은 이수광이 안남 사신과 교류한 다음에 쓴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이고 방문담과 표류담은 조완벽과 김태황 일행이 안남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이다.

이수광은 실학자로서 28세, 35세, 49세의 나이에 명나라 사신의 소임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에 대한 큰 관심을 가졌다. 특히, 유교문화권에 속한 안남이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이수광의 주목을 받았다. 이수광은 1590년(선조 23)에 첫 번째로 聖節使 書狀官으로 북경에 갔을 때 안남 사신을 만났으나 같은 숙소에 묵지 않아서 교류하지 못했다. 때문에 1597년(선조 30)에 북경으로 두 번째로 갔을 때 다행히 안남 사신인 풍극관과 같이 옥하관에서 묵으면서 서로 시문을 창화하기도 하고 양국의 정보와 아울러 문답하기도 하였다. 북경에서 돌아온 후에 이수광은 풍극관과 교류한 창화시문과 문답을 모아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을 집필하였다.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은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안남에 대한 인식을 전해 주었다. 저자인 이수광은 역시 안남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을 것이다. 이수광은 이후에 조완벽의 방문담을 듣고 「조완벽전」을 쓰는 데 자신의 안남 인식을 추가하기도 하며, 조완벽에 의해 받아들였던 안남 정보를 『芝峯類說』에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 기록들은 17세기 지식인들에게 이전 처럼 안남의 정세에 더하여 안남의 풍속문화, 유교문화, 물산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전해주었다. 때문에 당시 조선 지식인들은 사행문학에서 방문담으로 받아들

었던 안남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 기록들을 분석하면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완벽은 진주 士族으로 정유재란 때 약관의 나이로 일본으로 끌려갔다.<sup>9)</sup> 일본에서 노비로 있으면서 1604년부터 일본상인을 따라 안남으로 세 번이나 갔다 왔다.<sup>10)</sup> 조완벽의 특이한 방문담은 공식적으로 기록한 바가 없으나 直長 金允安이 진주에서 조완벽의 이야기를 듣고 한양으로 올라와 정사신과 이준에게 자세히 전해주었다고 전한다.<sup>11)</sup> 정사신과 이준은 이수광의 『芝峯集』,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에 조완벽의 이야기를 跋文한 후에 그의 정체, 가계와 안남 방문담 등 정사신의 『梅窓集』 「조완벽전」과 이준의 『蒼石集』 「記趙完璧見聞」에 입전되었다. 한편, 이수광은 1612년경 우연히 ‘조완벽’이라는 선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의 일생을 글로 남기게 된다.<sup>12)</sup>

비록 조완벽에 대한 다른 기록도 있으나 간략하게 또는 이수광이 수록한 것을 옮기는 정도였다. 예를 들어李志恒(1605~1654)의 『漂舟錄』, 이李圭景(1788~?)의 『五洲衍文長箋散稿』, 安鼎福(1712~1791)의 『木川縣誌』 등이 있다.<sup>13)</sup> 그러므로 이수광·정사신·이준은 조완벽의 방문담을 개인별로 접근한 까닭에 수록된 이야기는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왕에 서술된 3가지 서책의 내용을 정리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조완벽의 방문담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의 안남 인식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태황은 제주 鎭撫(군영 소속 서리의 관직)로서 1687년(숙종 13)에 제주의 進上馬를 감동하여 바다에 나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 안남으로 표류했다가 1688년(숙종 14)에 조선으로 생환한 사람이다.<sup>14)</sup> 그의 표류 사건은 조완벽과 달리, 공

9) 이수광, 『芝峯集』 卷23, 雜著, 「趙完璧傳」. “趙生完璧者. 晉州士人也. 弱冠. 值丁酉倭變. 被擄入日本京都.”

10)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倭奴輕生重利. 以商販爲農. 以舟楫爲鞍馬. 海外南番諸國. 無遠不到. 以生曉解文字. 挈而登舟. 自甲辰連歲三往安南國.”

11) 이수광, 『지봉집』 권8,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 跋[鄭士信]. “完璧近歲得返本國鄉土 據其所見聞有此云云 頃者友人金君允安 由晉山入漢陽見余道其事甚悉”; 이준, 『蒼石集』 卷12, 「記趙完璧見聞」. “金君而靜 聞此事於趙生 語余甚詳 異而識之”.

12) KBS 한국사傳 제작팀, 『한국사傳』 2, 한겨레출판, 2008, 117쪽.

13) 권혁래, 「조완벽전의 테스트와 문학적 의미 연구」, 『어문학』 100집, 한국어문학회, 2008, 206-208쪽.

14)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 2월, 13일 신해조.

식적 문서인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등에 수록되어 있지만 주로 표류의 전말과정만을 수록하였다.

李益泰(1633~1704)는 1694년(숙종 20)에 제주목사로 있으면서 김태황이 안남에서 지낸 일과 견문한 것들을 日錄體로 기록하였다. 김태황이 죽은 뒤에 宋廷奎(1656~1710)는 제주목사 시절(1704~1706)에 이전에 썼던 김태황의 표류를 참고하고 그의 일행인 李德仁의 구술을 들은 후 안남에 대한 견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마지막으로, 鄭運經(1699~1753)은 사건 발생 후 무려 42년이 지난 시점에서 김태황의 일행인 高尚英의 구술을 듣고 이전에 수록했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고상영이 지낸 일과 견문한 일을 토대로 안남에 대해서 썼다.

이후에도 여러 사람이 김태황의 표류 사건을 기록하였으나 발생시점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술자의 나이에 비례하여 구술내용이 문제시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익태의 『知瀛錄』 「金大璜漂海日錄」, 송정규의 『海外聞見錄』 「記安南漂還人事」, 정운경의 『耽羅聞見錄』에 실린 제1화를 중심으로 당시 김태황 일행이 각자 견문한 안남의 풍속문화, 물산, 풍토를 정리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안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다시 말하여 조완벽은 최초로 안남을 다녀온 조선인으로서 주목받았으며 그의 안남 체험을 서사화한 「조완벽전」을 통해 17세기 조선 지식인이 안남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때문에 조완벽의 방문담은 서사로 인정되지만 地理志의 성격을 담고 있어서 안남에 대해 정치상황, 풍속문화, 물산 등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사학계에서는 특히 이수광의 대외 인식을 살피는 하나의 자료로서 「조완벽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한편, 김태황이 둘째로 안남을 다녀온 조선인으로서 이전 조완벽보다 조선 지식인들에게 더욱 관심을 받았다. 그의 표류담은 조정에서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관료 지식인들도 각자의 방식대로 안남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록하였다. 때문에 김태황의 표류담은 안남을 인식하는 데 추가적으로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이수광의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조완벽의 안남 방문담, 김태황의 표류담을 주축으로 삼고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인식으로 한정시켰다. 이상의 기록들을 검토하면서 각자의 안남 인식을 분석하고 그들이 안남을 인식하는 데에

모자란 점이나 차이점을 상호보완을 하여 서술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선 지식인과 안남 지식인의 교류양상과 양국 지식인의 상호인식을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은 안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았는지와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교문화권에 있어 안남 문화상은 조선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안남에 큰 관심을 가진 이수광이 안남 사신과의 조우 전후에 안남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의 이수광과 풍극관의 시담·문답뿐만 아니라 당시 그가 안남 사절단을 통해 받아들였던 안남 이미지를 같이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수광은 안남 사신을 만나기 전에 당시 조선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안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서 안남 사신을 두 번 만난 다음에 이수광은 이미 알고 있었던 안남에 대한 인식 변화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밝혀 보겠다. 나아가 이수광의 세계관의 확장으로 안남 인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조완벽과 김태황 일행은 안남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당시 안남의 정세, 풍속문화, 농경문화, 유교문화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졌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비교함으로써 조완벽과 김태황이 목격한 것을 재규명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안남의 자료와 이방인이 기록한 안남의 정보 간의 간극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하여 안남이 어떤 나라인지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견문한 안남이 실제적인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제Ⅳ장에서는 앞서 조선 지식인들이 안남 인식에는 중국의 매개나 사행문학으로 받아들였던 경우가 많은데 직접 견문한 안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겠다. 이 작업을 통해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이 인식하였던 안남에 대한 이해가 무엇에 근거하였고, 그 변화에는 어떠한 것이 작동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양국이 화이질서에 속한 국가였다는 점에서 양국 지식인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유교문화권에 있어 양국은 유교의 전체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이 사회 체제 내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분석하고자 한다.

## Ⅱ. 이수광의 안남에 대한 견문과 인식

이수광이 살았을 당시에는 조선사회가 전기에서 후기로 전환되는 격동기이며 국내적으로는 여러 史禍, 獄事, 反正 등에 의해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북방 여진족이 세운 後金(1616~1636)과 남쪽의 왜구가 일으킨 戰亂 시기였다. 조선사회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상을 개척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7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학파는 實學派이고 이수광은 실학파의 선구적 인물이다. 때문에 이수광은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리적 세계관을 추구하는 實事求是의 세계로 학문적 성향을 넓혀 나갔다.

이수광의 실학사상은 중국사행에서 형성하였다. 이수광은 28세(선조 23) 때 성절사 서장관으로, 35세(선조 30) 때 陳慰使로, 49세(광해군 3) 때 奏請使 副使로 3차례나 중국을 다녀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수광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해양방면으로는 일본에서부터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에 이르고, 육로로는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거쳐 유럽에까지 이르는 세계관을 견지하였다. 특히, 1차와 2차 중국사행 때의 이수광은 안남 사신을 두 번 만났던 것을 계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안남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었다.

이수광이 2차 중국사행 때 풍극관을 만나면서 교류가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수광은 이미 알던 안남 지식을 더욱 넓혔으며, 양국 사신도 확대된 상호인식을 갖게 되었다. 때문에 이수광이 전통적 세계관인 화이관에서 벗어나서 선진적 세계관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의 세계관에는 안남이 지닌 역사상을 이해하고 인식 폭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세계관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 1. 안남국 사신과의 조우와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

이수광은 1590년(선조 23)에 처음으로 성절사 서장관으로 북경으로 갔을 때 안남 사신을 만났으나, 조회할 때만 만나고 본격적인 교류는 못하였다. 이수광이 북경에서 돌아온 후, 선조는 그를 불러 북경에서 지낸 일을 물었다. 특히 안남의 풍속과 사신의 의복 제도를 물어보면서 안남의 인물과 풍속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수광이 안남 사신과 직접 교류한 일이 없어서 대답할 수 없었다.<sup>15)</sup> 이어 1597년(선조 30)에 두 번째 북경 방문 때 다행히 안남 사신인 풍극관과 같이 옥하관에서 50일 동안 묵게 되었다. 이수광은 풍극관과 적극적으로 시문을 창화하기도 하고 양국의 정보와 아울러 문답하기도 하면서 교류를 이어 나갔다. 이수광이 풍극관에게 질문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면 조선 국왕의 안남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내면서도 자신의 궁금증도 아울러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봉집』에 수록된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에 의하면 이수광과 풍극관이 서로에게 주고받은 시 18수가 전하는데 다음의 <표 1>와 같다.

<표 1> 이수광과 풍극관의 창화시문 정리표

No.	(A) 이수광 → 풍극관	詩首	(B) 풍극관 → 이수광	詩首
1	贈安南國使臣二首	2수	肅次芝峯使公韻	2수
2	重贈安南使臣疊前韻	2수	肅和再次海東芝峯使公前韻	2수
3	又贈安南使臣疊前韻	2수	喜得海東芝峯使公詩序謹再次韻以表同使大筆手澤者	2수
4	贈安南使臣又疊前韻	2수	再次韻敬答海東芝峯大手筆	2수
5	贈安南使臣排律十韻	1수	肅次芝峯使公長律十韻	1수

<표 1>을 살펴보듯이 이수광이 지은 시의 제목이 ‘贈(주다)’, ‘重贈(거듭 주다)’, ‘又贈(또 주다)’ 등으로 되어서 이수광은 항상 먼저 풍극관에게 시를 지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의 ‘後’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15)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識. “暉光於萬曆庚寅。蒙差書狀官。賀聖節於京師。遇安南國使臣。各處異館。禁不得通。只於朝會。再見面而已。及幹事回朝。於聞見事件中概錄以進。則上召臣暉光于政院。下問安南使臣衣服制度與其國風俗如何。且或有唱和之作。竝書啓。於是益恨不得與其使臣相問答酬唱。以仰復聖問也。”

16)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後. “初欲觀其文體如何。試製長句以送。則使臣輒和之。因此往復累度。”

특히 이수광은 풍극관에게 안남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 시를 주었다. 때문에 이수광의 기존 안남 인식은 무엇이었으며, 안남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이 창화시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수광은 안남의 국명과 관련해 安南, 交趾, 越裳, 九眞 등을 거듭 인용하여 시를 창작하였다. 안남과 교지는 당시 중국 조정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월상이 많이 쓰지 않았다. 월상은 베트남의 최초로 일으킨 국가인 文郎國(Văn Lang; 기원전 7세기~기원전 258) 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월상씨라고 칭했다. 이수광은 월상씨가 주나라에 白雉(흰 꿩)를 바쳤다는 이야기를 빌려서 먼저 ‘조공 드림은 주나라시절 월상씨부터였다(貢獻周家舊越裳, <표 1>의 1A)’라는 시를 지어 풍극관에게 주었으며 후에도 ‘일찍이 흰 꿩을 주왕께 드렸도다(曾將白雉獻周王, <표 1>의 4A)’라는 시를 지어 주기도 하였다.

이수광이 지은 첫 장구에서 ‘봉함 받음은 한대에 동주 세움에서부터(提封漢代新銅柱, <표 1>의 1A)’를 볼 수 있다. 이는 馬援(기원전 14~49)이 세운 구리 기둥(銅柱)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교지인들이 한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봉기를 일으켰다. 한나라에서 마원으로 하여금 교지를 정벌하도록 하며 마원은 교지인을 억누른 다음에 교지에서 한나라와 남방 외국의 경계선으로 구리 기둥을 세워 “구리 기둥이 부러지면 교지를 잃어버린다(銅柱折 交趾滅)”라는 글을 새겼다.<sup>17)</sup>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시를 지었던 이수광은 안남에 대한 정치와 역사를 비교적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으로는 안남에 대한 제도와 문화를 언급하였는데, 이수광은 안남과 조선이 화이질서 아래에 있어 유교문화권임을 인정하였다. <표 1>의 2A에서 나온 장구를 보면 양국의 문명이 같은 곳에서 유래되고 같이 중국문명을 즐겨 보러왔다고 한다(文軌由來共百王 奉使喜觀周禮樂). 그러나 이수광이 처음부터 지은 시에서는 양국이 유교문화권에 있지만 이질적 요소를 주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국은 옷과 갓의 제도가 색다르지만 문자를 가지고 시서를 같이 공유했다고 한다(休道衣冠殊制度 却將文字共詩書, <표 1>의 1A).

풍극관이 이수광에게 보내준 답시에서도 양국의 문명이 같다고 주장했다. 이는

17) 『大越史記全書』外紀, 卷三, 「屬東漢紀」. “馬援擊其餘衆都陽等。至居封縣降之。乃立銅柱爲漢極界。銅柱相傳在欽州古洞上。援有誓云: ‘銅柱折, 交州滅。’”

‘그대와 나는 비록 산과 바다의 강역이 다르지만 연원은 같은 성현의 서책을 섬긴다(彼此雖殊山海域 淵源一同聖賢書, <표 1>의 1B)’라고 했다. 또 안남과 조선은 똑같이 살 곳으로 공자와 맹자의 고을을 택하고 도를 논하면 공자를 스승으로 삼는다고 했다(居鄉必擇魯鄒鄉 講道同師孔素王, <표 1>의 2B). 그리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천하가 이미 같은 수레로 통일되었다고 한다(歸國僚朋如見問 今天下統已同車, <표 1>의 4B). 이를 보면 풍극관은 역시 안남과 조선이 書同과 車同軌의 동질성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수광의 시에서 안남의 기후, 특산물, 동물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기후에 대해서는 이수광이 안남 지역을 비유할 때 炎州와 炎鄉을 이용하였다. 옅은 뜨거움을 뜻하고 주와 향은 지역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고려해 보면 안남이 조선에 비해 더운 곳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봄이 되기 전에 날씨는 이미 따뜻해지고 선달 전에도 매화는 곱게 피게 되었다고 한다(地氣先春暖 梅花未臘妍, <표 1>의 5A). 여기에서는 안남의 기후를 잘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에 대해서는 흰 꿩 외에도 코끼리와 翡翠(말총새)를 언급한 바가 있으며, 특산물의 경우는 盧橘(감귤), 犀角(무소뿔), 龍香(용향), 白線香(백선향), 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안남의 양잠문화는 ‘집집마다 한 해 여덟 번이나 누에를 치도다(家養八蠶眠, <표 1>의 5A)’라고 하며 안남에서 생산하는 견직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수광은 이미 안남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남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매개로 안남의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역대 양국사신의 교류를 통해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국에서 들어온 서책에서 나온 안남 정보를 취하거나, 이수광 전의 서거정, 홍귀달, 조신, 김안국 등이 안남 사신과 교류한 사실에서 얻은 안남 정보가 조선 조정과 지식인들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안남 지식을 갖는 이수광은 당시 다른 조선 지식인들에 비해 안남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시 이수광은 안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드러내지 않았다. 물론 안남과 조선이 같은 화이질서 아래에, 유교문화권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만나서 장기간 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니 서로의 이질성도 볼 수 있었다. 안남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이수광은 풍극관과 시문을 창

수한 다음에 자신의 안남에 대한 지식을 재확인하거나 풍극관과 문답하기도 하였다. 풍극관과의 문답으로 이수광은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알던 안남 정보를 재확인하고 갱신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다.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에 의하면 이수광이 풍극관에게 질문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옛날의 월상교지는 귀국의 강역인가?(古之越裳交趾。是貴國疆域否。)
- (2) 대인은 무슨 관직인가?(大人何官。)
- (3) 귀국의 관제와 풍속은 어떠한가?(貴國官制風俗何如。)
- (4) 사람을 골라 뽑을 때 시부로 하는가, 책론으로 하는가? 또 무학도 있는가?(取人以詩賦乎。以策論乎。亦有武學否。)
- (5) 예전에 귀국 국왕의 성씨는 막씨라고 들었는데 이제는 여씨이니 창업한 군주인가요? 무슨 변란이나 혁명이 있었는가?(舊聞貴國王是莫姓。今黎氏乃創業之主耶。有何變亂而革命耶。)
- (6) 여왕이 나라를 잃은 지 몇 년 만에 비로소 회복하였는가?(黎王失國幾年。始復舊物。)
- (7) 귀국에 있는 도통사가 무슨 관직인가?(貴國有都統使。是何官職。)
- (8) 막씨는 막무흠인가?(莫氏是莫茂洽耶。)
- (9) 여왕이 나라를 얻은 것은 난역을 토벌한 것인가? 추대를 받아 나온 건가?(黎王得國是討亂逆也。抑出推戴耶。)
- (10) 대인은 막씨 조정에서 무슨 관직을 하였는가?(大人在莫氏朝仕爲何官。)
- (11) 귀국은 겨울이 봄처럼 따뜻하고 눈이나 얼음이 없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貴國冬暖如春。無冰無雪云。信否。)
- (12) 귀국에는 일 년에 두 번 익는 벼와 여덟 번 치는 누에 실이 있다는데 맞는 건가?(貴國有再熟之稻。八蠶之絲。信否。)
- (13) 귀국의 땅은 얼마쯤 되는 건가?(貴國地方幾許。)
- (15) 귀국은 운남과의 거리가 몇 리나 되는 건가?(貴國距里雲南幾里。)
- (16) 유구와 일본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距琉球日本幾里。)
- (17) 북과장군 마원의 구리 기둥은 어디에 세워졌는가?(馬伏波銅柱。豎在何地。)

이상에서와 같이 이수광과 풍극관의 문답록을 살펴보면 이수광은 (1)안남의 옛

땅, (3)관제와 풍속, (11)기후, (12)농경과 양잠, (16)마원의 구리 기둥 등을 이미 이수광이 차용하여 시를 지었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자신이 아는 것을 재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3)번부터 (15)번까지는 새로운 정보를 질문했다. 이는 안남의 크기와 안남에서 운남까지 또는 유구와 일본에 이르기까지 얼마쯤 되는지를 질문했다. 따라서 안남 영토는 5천여 리쯤이 되고 운남까지는 천 겹의 산으로 가로막혀 있으나 땅이 접하여 한 경계이며 유구와 일본은 바닷길로 막혀 있고 멀어서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sup>18)</sup>

안남의 과거시험에 대해서 질문했기도 했다. 풍극관은 과거시험에서 향시, 회시, 정시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히면서, 향시에서는 4장으로 나뉘며, 제1장에서 四書五經, 제2장에서 朝制表文, 제3장에서 詩賦, 제4장에서 고금의 치도에 관한 책문 등으로 거친다. 회시에서는 향시와 동일한 4장에 걸치고 제5장은 역시 정시이며 대책에 대한 시험이다. 무과시험의 경우는 진법을 으뜸으로 삼고 기마, 기상, 시사 등이 있으며 5년에 한 번씩 치른다고 상세히 알려주었다.<sup>19)</sup>

양국 사신이 문답한 내용 중에서 제일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5)번부터 (10)번까지이며 내용은 당시 안남의 정치적 상황이다. 당시 안남 국내에서 역신 莫登庸(Mạc Đăng Dung, 1483~1541)이 여씨 왕을 뒤집어 왕위를 찬탈한 사건은 중국은 물론 조선 조정에서까지 논한 바가 있었다. 명 조정에서는 역신 막씨의 죄를 논하면서 그를 정벌하려고 하다가 결국 막씨를 安南都統使로 봉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실이다.<sup>20)</sup>

안남에서는 막씨가 왕위를 찬탈하자 여씨가 남쪽으로 가서 靑華(Thanh Hoa)에서 도읍을 세워 ‘扶黎滅莫(Phù Lê diệt Mạc)’이라는 부흥운동을 일으켜 항쟁하였다. 드디어 1592년에 여씨가 승리하여 왕조의 광복을 맞이하였다. 이어서 국내에서 안정을 시켰다가 1597년에 여씨의 책봉을 목적으로 풍극관을 북경으로 보냈다. 때문에 이수광은 1590년에 첫째로 사행을 갔을 때 만난 안남 사신이 막씨가

18)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問答. “地方五千餘里... 隔山千重。接壤一界... 隔海道。遠不通。”

19)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問答. “科擧取人法, 有鄉試科, 有會試科。鄉試科第一場試五經四書各一道, 第二場詔制表文各一道, 第三場詩賦各一道, 第四場策文古今治道一題。會試科第一第二第三第四場, 同鄉試, 第五場廷試策對。武科以陣前爲上, 有騎馬騎象騎射之才, 五年一選。”

20) 『중종실록』 권98, 중종 37년 5월 17일 정유조.

과견한 사람이고 이번에 만난 풍극관이 여씨가 보낸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이 역시 풍극관에 의해 사실을 받아들였다.<sup>21)</sup> 이수광은 안남 정치적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막씨와 여씨에 대해 거듭 질문하는 것과 도통사라는 관직에 대한 질문도 풍극관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이수광은 莫茂洽(Mạc Mậu Hợp, 1560~1593)이 안남의 전대 왕이냐는 질문을 받은 풍극관이 놀랐다고 한다.<sup>22)</sup> 그러나 여씨 왕의 정통성에 대해서 특별해서 얻은 것인지, 백성들이 추대한 것인지를 질문할 때 풍극관은 특별이 아니라 진씨가 후사가 없어 백성들이 여씨를 추대한 것이라고 극구 강변했다.<sup>23)</sup> 풍극관이 놀랐던 이유는 이수광이 자기 나라 옛 왕의 이름을 알고 있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시면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중국까지 온 마당에 다른 나라의 사신에게 찬탈과 반란·토벌 및 실권의 상실 등으로 얼룩진 여씨 왕조의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여야 할지 잠깐 머뭇거렸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24)</sup>

지금까지는 이수광과 풍극관의 창화시문과 문답록을 살펴보았다. 이수광은 풍극관을 가까이 접하기 위하여 먼저 시를 지어 보내면서 시문 창화가 시작되었다. 전통적으로 조선 지식인이 갖는 안남 지식은 중국에서 들어온 서책이나 중국을 다녀온 사절단을 통하여 얻을 수밖에 없지만, 중국은 화이관으로 타민족인 안남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그리고 이수광처럼 안남 사신을 만나서 안남에 대해 깊이 문답한 사람이 없었다.

풍극관과의 문답으로 이수광은 자신의 안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수광의 질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안남의 정치적 상황이었다. 이 외에는 안남의 기후, 특산물, 동물, 역사 등이었으며 당시 조선 지식인에 비해 가장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수광의 세계관은 실학의 학문적 경향과 맞닿아 확장되고 있었다.

21)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문답. “愚老是黎氏遣臣。未嘗仕莫。”

22)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문답. “使臣乃驚視良久。答曰。然。莫茂洽。乃其故王姓名。蓋訝其知之也。”

23)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문답. “黎王是代陳氏不祀。國人共推戴。”

24) 엄홍경, 「芝峯 李睟光의 在明京 外國 使臣 交流에 대하여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을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제30집, 2010, 196쪽.

25) 김문식, 「지봉 이수광의 베트남 이해」, 『韓國實學研究』 35집, 韓國實學學會, 2018, 217쪽.

## 2. 중국사행을 통한 안남 인식

이수광은 풍극관과 시문을 창수하고 문답을 기반으로 안남에 대한 인식을 ‘後’의 부분에 정리하였다. 먼저, 안남에 대한 지리와 정치적 상황은 간단하게 서술하였다.

- ① 안남국은 북경과 1만 3천리 떨어져 있다. 그 나라로부터 광동성과 광서성을 경유하여 남경에 이르고 다시 남경에서 북경으로 오는 것이다. 그 나라 왕은 본래 막씨 성이었는데, 중국 조정이 그가 여러 차례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 왕이라는 호칭을 도통사로 바꾸었다. 그러다 여씨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그 사신은 여씨의 책봉을 청하러 온 것이었다.<sup>26)</sup>

여씨는 막씨를 물리쳐 광복한 후에 명나라에 책봉을 청하려고 풍극관을 보냈는데도 명은 여씨에게 막씨처럼 안남국왕이 아닌 종2품 안남도통사로 봉했다고 한다. 당시 풍극관은 명 황제에게 표문을 올리면서 “여씨가 안남국왕의 자손이지만 막씨 역모로 왕위가 이어지지 못하며 이제 막씨가 예전에 받던 작봉을 내려 주면 어찌 하겠는가”라고 하며 삼가기를 청했다. 그러나 명 황제는 자네 주인이 막씨를 닮지 않았지만 정권을 잡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일단 그 작봉을 받고 나중에 加封해도 늦지 않는다고 답했다.<sup>27)</sup>

이러한 사실은 당시 안남에 관심이 있었던 이수광이 역시 모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수광은 명 조정에서 끝내 왕으로 책봉하는 것을 인준하지 않고 단지 이전대로 도통사로 봉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사신 일행은 그래도 희색을 띠며 서로 축하하였다고 한다.<sup>28)</sup> 안남 왕을 국왕이 아닌 도통사로 책봉했기 때문에 조선

26)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後. “安南國。距北京一萬三千里。自其國由兩廣達于南京。自南京達于北京。其國王本莫姓。中朝以其數叛逆。革王號爲都統使。至是爲黎氏所滅。其使臣卽黎氏請封而來者。”(김석희, 전 각 마인, 응웬 득 또한 옮김, 『한월 사신 창화시문』, 글로벌콘텐츠, 2013, 305쪽에서 번역문을 재인용하며 차후 이와 동일함).

27) 『대월사기전서』 本紀續編 권2, 「黎紀八」, 戊戌 光興27年. “克寬乃上表曰 臣主黎氏是安南國王之胄 憤逆臣莫氏僭奪 不忍千年之讐 乃臥薪嘗膽 思復祖宗之業 以紹祖宗之迹 彼莫氏本安南國黎氏之臣 弑其君而奪其國 實爲上國之罪人 而又暗求都統之職 茲臣主無莫氏之罪 而反受莫氏之職 此何義也. 願陛下察之. 明帝笑曰 汝主雖非莫氏之比 然以初復國 恐人心未定 方且受之 後以王爵加之 未爲晚也.”

28)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又贈安南使臣壘前韻. “朝廷竟不準封王, 只許仍前爲都統使, 一行猶動色相賀.”

의 대우와 달랐고, 명 조정에 조회할 때 조선 사신은 앞에 있고 안남 사신은 뒤에 섰다고 한다.<sup>29)</sup> 나아가 이수광은 대명외교 측면에서 안남이 조선에 비해 한층 낮은 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어서 안남 사신인 풍극관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 ② 외모는 참으로 기괴하였고 치아는 검은 물을 들였고 머리는 산발한 듯 풀어헤친 데다 소매가 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또한 전폭의 치포를 사용하여 만든 개두는 승건과 같았는데, 그 반은 뒤로 넘겨 어깨 길이로 드리웠다. 그 사람은 비록 나이는 매우 많으나 정력은 아직 건강하였고, 항상 독서하고 사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조회를 위해 예절을 할 때 머리를 묶고 건모를 써서 천조의 복식과 같이 했다. 그러나 그 기색에는 자못 괴롭고 힘들어하는 듯한 표정이 있다가, 숙소로 들어가서는 벗어버렸다.<sup>30)</sup>

풍극관의 외모가 기괴하였다는 이수광의 평가는 문화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 이수광의 큰 주목을 끌었던 것은 바로 이를 검게 하는 것과 머리를 풀어헤친 것이었다. 왜냐하면 양국은 유교문화에 있어 같은 유교의 경전을 익혔지만 안남인은 상투를 올리는 조선과 다른 복식문화를 가졌다. 물론, 조회할 때 중국의 복식을 갖추었다가 옥하관에 돌아오자 바로 옷을 벗어버린 풍극관은 명나라의 복식에 적응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질적 요소를 묘사한 이수광은 안남에 대한 풍속문화를 질문했으나, 공자와 맹자의 시서를 배우고 예악의 가르침과 당송시대에 과거급제자인 진사의 문장을 익힌다는 답을 받았다.<sup>31)</sup> 풍극관은 단순히 양국이 모두 유교문화권에 있다고 하였으나 안남에 대한 풍속문화는 답변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수광은 안남 사절단과 50일을 묵는 동안 안남인의 생활모습을 보면서 안남의 풍속문화를 어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다.

29)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문답. “朝會時, 我國使臣爲首立於前行, 安南使臣次於後行。”

30)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후. “形貌甚怪. 涅齒被髮. 長衣闊袖. 用縑布全幅蓋頭如僧巾樣. 以其半垂後過肩焉. 其人雖甚老. 精力尙健. 常讀書寫冊不休. 若值朝會詣闕. 則束髮著巾帽. 一依天朝服飾. 而觀其色. 頗有蹙頞不堪之狀. 既還卽脫去.” (『한월 사신 창화시문』, 2013, 305쪽).

31)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문답. “習孔孟詩書禮樂之教. 唐宋進士科舉之文.”

③ 일행은 23명으로 모두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었는데, 귀인들은 이를 검게 물들였고 하인들은 짧은 옷에 맨발 차림이었다. 겨울날이었는데도 맨발에 고의를 입거나 버선을 신지 않았다. 아마도 그 나라 풍속이 그런한 듯하였다. 그들은 반드시 상위에서 잠을 잤으며 온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음식은 대략 중국인과 비슷했으나 청결하지 않았고, 의복은 대부분 농건으로 만들었으며, 문금이나 면서로 된 옷은 없었다.<sup>32)</sup>

안남 사절단 일행 23명이 생활하는 광경을 본 이수광은 대략 안남인의 의·식·주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귀인과 천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이 역시 안남의 풍속임을 파악하였다. 풍극관의 개두에 대해서는 승건과 같았다고 하니 아마 幅巾을 말한다는 것으로 본다.<sup>33)</sup> 그리고 풍극관이 관을 쓸 때 뒤에 반으로 어깨까지 늘어뜨렸다고 한다는 것은 안남인이 상투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관을 쓸 때 뒤로 늘어뜨린 모습이다. 풍극관이 쓴 개두는 <그림 1>에 그린 가마에 앉아있는 여씨 왕이 쓴 두건과 같다고 추정된다.

앞서 묘사한 풍극관 모습에 비교해 보자면, 귀한 사람은 이를 검게 하고 긴 옷을 입는 편이고 천한 사람은 짧은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는 편이다. 또 안남인이 잘 때 침상이 있어야 하고 온돌과 같은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역시 이수광은 안남에서 날씨가 늘 덥거나 따뜻하기 때문에 온돌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안남인의 음식이 중국과 비슷했으나 청결하지 않다는 점에서 안남이 중국의 문명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남인이 농사를 짓는 것과 아울러 누에를 치는 것도 있으니 농단 생산이 가능하나 문금이나 면서가 없다고 하여 수를 놓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며 솜으로 만든 옷이 없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32)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장화문답록」, 후. “一行凡二十三人皆被髮。貴人則涅齒。下人則短衣跣足。雖冬月赤脚無袴襪。蓋其俗然也。其寢處必於床上。不爲炕突。其飲食略如華人而不精潔。其服多綾絹。無紋錦綿絮之衣。”

33) 이황, 『退溪集』, 言行錄 三, 「類編」, 飲食衣服之節. “金就礪, 造幅巾深衣以送, 先生曰幅巾似僧巾。”



그림 1) 17세기 藉田을 위한 안남왕의 거동 모습

출처: Samuel Baron의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Tonqueen』<sup>34)</sup>

이수광이 서술한 내용에 따르면 안남인의 성격은 온순하고 대략 문자를 알며 검술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그 방법은 『紀效新書』와 달랐다고 한다.<sup>35)</sup> 『기효신서』는 명나라 장군인 戚繼光(1528~1588)이 지은 兵書인데 이수광은 역시 명나라에서 들어온 서책의 내용을 참고할 때 신중히 해야 할 생각이 들었던 것으

34)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Tonqueen(東京國에 대한 묘사)』는 Samuel Baron이 1678년부터 동경국(안남의 북부)에서 살면서 1685년까지는 그동안 안남에서 견문한 일들을 토대로 그린 그림과 주문으로 집성하였다.

35)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후. “其性頗溫順。略知文字。喜習劍技。其法異於紀效新書。”

로 보인다. 이수광은 안남과 조선이 유교문화권에 있기에 안남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관심도 가졌다. 따라서 안남인의 언어는 왜인과 유사하나 구성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속자는 자획이 매우 이상하여 거의 알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sup>36)</sup>

특히, 이수광은 풍극관을 묘사할 때 나이가 이미 많으신 분인데 책을 읽으며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면서 안남인이 학문을 잘 닦는다고 평가하였다. 때문에 유학을 닦는 양국 사신은 시문을 주고받으면서 우호를 나누었다. 풍극관은 이수광의 시문을 볼 때마다 무릎을 치며 감탄할 뿐만 아니라 ‘大手筆’이라 하면서 자신이 쓴 『萬壽慶賀詩集』에 서문을 지어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다.<sup>37)</sup>

마지막으로는 양국 사신이 서로에게 자기 나라의 특산물을 주고받는 풍경이다. 풍극관은 이수광이 시를 창작할 때 거듭 언급했던 안남에서 생산한 ‘향’을 선물하였다. 특히, 조선의 필묵이 천하의 절품이라고 들었으니 이수광에게 청하기도 하였다.<sup>38)</sup> 양국 사신이 시문을 창수할 때 풍극관이 이수광에게 준 시문에서 인삼, 복령, 삼주, 계피가 약 상자엔 향기롭다고 하였다(藥籠參苓朮桂香, <표 1>의 2B). 이는 한의약에 쓰는 약재뿐만 아니라 조선의 토산물이기도 하였다. 이로 보면 풍극관은 역시 조선의 특산물을 잘 알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이수광이 풍극관과 시문을 창화하고 문답을 전개하면서 50일을 안남 사절단과 같이 생활하는 동안 안남 인식을 축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수광은 안남의 지리와 정치적 상황은 풍극관과 문답한 대로 정리하였으며, 대명외교 측면에서는 조선에 비해 한층 낮은 위상을 가졌음을 확인하였다. 안남에 대한 풍속문화는 화이관 체제에 있는 안남과 조선이 같은 유교문화권에 있으면서 유학을 같이 배우니까 교제할 때 한문을 ‘매개’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서로에게 우호감을 나눠주기도 할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안남인과 같이 지낸 만큼 이질적 요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수광은 중국에서 들어온 서책에서 묘사한 안남인의 잘못된 정보를 지적했고, 안남이

36)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후. “其言語類倭而用合口聲。(중략) 其國俗書則字畫甚異。”

37)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후. “使臣每見晬光等所爲詩。擊節稱賞曰。文章高了。自後必稱大手筆。(중략) 使臣且請曰。不佞有萬壽慶賀詩集。敢請使公序其端。以沾大手筆澤云云。”

38)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후. “仍以囊中所齎土物白線香百枚脂香一器分送。又曰。聞貴國筆墨爲天下絕品。願得之。”

중화문명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즉, 안남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유교문화권에 있고 중국의 영향을 본받아서 미개한 나라로 보이지 않지만 중화문명의 기준으로는 조선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여겼다. 이는 유구 사신과 교류할 때 중화문명을 가장 제대로 갖춘 나라가 조선밖에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sup>39)</sup>

이수광은 중국의 매개나 역대 조선 사절단을 통해 받아들인 것은 단순한 안남 지식이나 정보일 뿐이었으며, 안남 인식은 잘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은 화이관을 두어 타민족에 대한 지식이 부정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이었다. 또 이수광처럼 양국 사신이 시문을 창화하는 것과 아울러 문답을 깊이 전개한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중국의 서책이나 조선 사절단으로 취한 안남 정보는 많지 않았고 신뢰성 또한 높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안남 사신인 풍극관과 시문을 창화하고 문답을 전개한 후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안남 지식과 정보를 재확인하였고 특히, 당시 안남에서 막씨와 여씨의 충돌로 인한 정권교체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했다. 이로 보아 간접적으로 중국의 서책이나 역대 조선 사절단이 전한 것보다 직접적으로 교류를 전개한 것은 더욱 신뢰성이 높은 최신 정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남 사신은 양국의 유교문화에 대한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안남에 대한 풍속문화를 잘 알려주지 않았다. 때문에 이수광은 50일 동안 안남 사절단과 생활하면서 자신이 본 대로 안남의 풍속문화를 어느 정도로 짐작할 수 있었다. 이수광은 안남에 대한 풍속문화를 의·식·주로 나누어 정리하였더라도 조선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미지들은 제한적으로 서술하였다. 나아가 비록 이수광의 안남 인식은 한계가 있었으나 당시 조선 지식인에 비해 안남에 대해 가장 많이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수광의 안남 인식을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알려주는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외에는 당시 조선의 백과사전만큼 대량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담은 『芝峯類說』이 있다. 『지봉유설』은 이수광이 3차례 중국을 다녀온 사행경력과 자신이 탐

39) 이수광, 『芝峯類說』, 권19, 服用部, 「冠巾」. “余赴京時, 見諸國使臣, 唯琉球人着巾帽. 而其使臣問我國譯官曰, ‘貴國常時着網巾否?’ 答以‘無貴賤常着’云, 則使臣吐舌曰, ‘我國人, 則常時不着網巾云.’ 以此觀之, 中朝外唯我國人着網巾, 他國則不然矣.”

구하는 세계 인식을 담았으며, 그가 추구하는 선진적 세계관을 반영하였다. 이는 세계의 중심을 중국으로 보고 주변 국가를 夷狄으로 구분한 중국의 방식을 차용하여 「諸國部」를 지었다. 그러나 중국은 따로 기술하지 않고, 그 자리에 조선을 놓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적으로 분류한 주변 국가들을 외국이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sup>40)</sup>

『지봉유설』을 살펴보면 안남에 대한 인식은 풍극관과 문답한 것과 차이가 크지 않다. 또한 주로 중국에서 들어온 최신 서적인 『事文玉屑』과 『吾學編』 등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때문에 이수광의 세계관에서 안남이 어떤 나라인지, 그의 안남 인식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지봉유설』보다 『지봉집』의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이 더욱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수광의 선진적 세계관을 살펴보면 그의 안남 인식은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수광은 화이관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중국보다 더욱 큰 세계관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중국사행 때 서구 문물을 접촉하면서 서구 세계를 함께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의 세계관이 넓어졌다. 즉, 유교문명권 외에도 동남아시아, 이슬람 문명권, 서역, 서양과 기독교 문명권 등의 세계인식으로 확장되었다. 이수광의 선진적 세계인식을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조선의 지리인식은 점차 바뀌었다. 이는 조선전기 지도와 조선후기 지도를 살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보면 당시 중국의 직방세계를 반영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며 주변에 조공 국가들을 그렸다. 당시 서양의 지리인식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서양 지역과 나라들을 잘 그리지 못하였다. 반면에 18세기에 그린 「천하도」는 동아시아의 ‘天圓地方(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나다)’이라는 전통적 관념을 벗어나 서구적, 과학적 원형지도로 그린 지도이며 조선 후기 민간의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널리 유행했던 것이다. 「천하도」에 중심을 중국으로 둔 것은 아직 중화사상의 잔여로 볼 수 있으나 조선전기보다 과다한 영역을 축소하여 다른 대륙들을 추가하였다.

40) 이경희, 「『芝峯類說』에 나타난 이수광의 세계 인식 - 諸國部, 外國條 기사를 중심으로-」, 『문명교류연구』 2권, 한국문명교류연구소, 2011, 236쪽.



그림 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좌) 및 「천하도」(우)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우)

그러나 이수광의 세계인식도 자세히 보면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유교문화로 교유하고 있던 안남과 같은 동남아시아는 중국문화를 기준으로 할 때 조선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견문경험이 없는 서역과 이슬람의 문명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41)</sup> 때문에 당시 조선 지식인들은 서구적 문물과 세계인식을 토대로 지리인식을 확대하였지만 화이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한편, 조선후기에 제작된 지도에서는 조선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의 거리를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수광과 같은 조선 지식인들의 세계인식이 확대됨에서 유래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를 중심으로 그려진 『탐라순력도』에서는 제주도에서 안남은 丁向으로 1만 7천 리가 떨어져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지식인의 지리인식이 넓어져 안남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도 점차 선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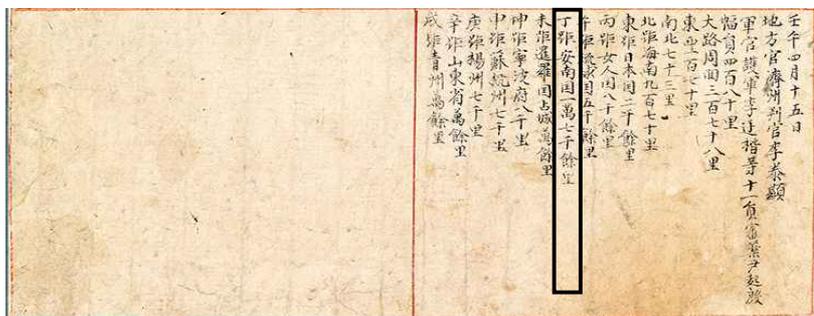


그림 3) 『탐라순력도』에 실려 있는 「한라장축」 중 주문(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소장)

41) 이경희, 앞의 연구논문, 2011, 253쪽.

### Ⅲ. 趙完璧·金泰瓚의 경험과 안남 인식

17세기에 들어와서도 안남과 조선은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었고 양국 간의 무역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아 양국의 상호인식은 중국을 매개로 통하여 이루어졌다. 양국 사신은 중국 조정에서 만나고 시문을 창화하며 문답한 것으로 안남의 지리, 정치, 기후, 특산물 등 다양한 정보를 얻었다. 그 중에서 당시 조선 사신에게 가장 주목받은 것이 안남의 정치적 상황이었다. 따라서 화이체제 아래에 있는 안남과 조선은 명나라로부터 받은 대우가 다르며 유교문화에 대한 동질성을 인식하였으나, 생활문화에서는 양국 간의 차이점이 있었다.

중국사행을 통하여 받아들인 안남 인식은 정치와 풍속문화를 어느 정도로 짐작할 수 있으나 기후, 특산물, 생활모습 등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 지식인은 중국사행을 통한 인식뿐만 아니라, 안남으로 직접 가서 경험하면서 얻은 안남 인식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수광의 중국사행 기간에는 조선에서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 중에서는 일본에서 노예로 있다가 안남으로 세 번이나 다녀온 조완벽<sup>42)</sup>이 있었다. 조완벽 이후에는 제주에서 안남으로 표착한 김태황 일행도 있었다. 이 두 인물의 이야기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안남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안남 인식의 배경에는 이수광의 「안남국사신창화문답」과 조완벽의 방문담 및 김태황의 표류담이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 1. 趙完璧의 방문담으로 본 안남 인식

42) 조완벽(趙完璧): 字는 汝守, 號는 松江, 본관은 林川이며, 知足堂 趙之瑞(1454~1504)의 증손이다. 생몰은 1577년으로 추정되고 물년은 미상이다. 정유재란 때 포로인이 되어 1607년까지 조선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남미혜, 「정유재란기 被擄人 趙完璧의 家系와 삶」, 『이화사학연구』 50, 2015).

## 1) 안남과 일본의 해로

조완벽의 방문담으로는 이수광·정사신·이준 등이 쓴 것이 있다. 그 중에서는 이수광은 이준과 정사신이 기록하지 않은 일본에서 안남국으로 가는 노정을 자세히 집필하였다. 아마 당시 이수광은 풍극관에게 안남과 일본의 거리에 대해 질문했으나 적절한 답변을 얻지 못하여 조완벽의 방문담으로 노정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수광의 「조완벽전」에 의하면 일본에서 안남국으로 가는 노정과 출항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④ 안남은 일본과 해로로 3만 7천 리 떨어진 곳인데, 薩摩州에서 대양으로 나가 중국 漳州와 廣東 등의 경계를 지나 안남 興元縣에 당도한다. (중략) 일본에서 밤낮 없이 40일 혹은 5, 60일을 가야 비로소 안남에 도달하는데, 돌아올 때는 물길을 따라 15일이면 일본에 당도할 수 있다. 바다에선 배가 순풍을 타고 가기 때문에 3, 4, 5월에는 늘 다닐 수 있지만, 6월 이후로는 배를 운행할 수 없다.<sup>43)</sup>

인용에 따르면 당시 일본 살마주에서 안남 흥원현까지는 약 3만 7천 리가 쏘고 출항 때는 40~60일 정도 소요되며 귀항 때는 1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潮流와 季節風에 따라 출항과 귀항 기간도 달랐다고 한다. 그러나, 안남과 일본의 거리는 3만 7천 리가 떨어진 것이 직항으로 가는 거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안남으로 가는 거리가 약 1만 7천리 가량이기<sup>44)</sup> 때문에 일본에서 출발하다가 광둥이나 장주를 들러서 안남으로 도항하던 거리이거나 안남과 일본의 총 왕복거리였을 듯하다.

## 2) 조완벽의 안남 견문

조완벽의 방문담을 수록한 이수광·정사신·이준은 공통적으로 안남에서의 견문을 가장 많이 진술하였다. 조완벽은 안남에 세 번이나 갔다 오는 과정에서 안남

43)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安南去日本海路三萬七千里。由薩摩州開洋。歷中朝漳州，廣東等界。抵安南興元縣。(중략) 自日本晝夜行四十日或五六十日始達安南。還時則順流十五晝夜可抵日本矣。大海中舟行以風便。故每三四五月可行。六月以後不得行舟。”(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된 번역문 재인용하며, 차후 조완벽전의 번역문은 이와 동일하여 재인용한다.)

44) 『耽羅巡歷圖』 중 「漢拏壯囑」(1702년)과 『南宦博物』 중 「誌路程」條(1704년)에서 공통적으로 제주도과 안남은 丁時 방향의 거리가 17,000여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조완벽의 안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방문담을 전하는 세 편의 내용을 정리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 세 편에서 서술한 안남 견문은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조완벽의 안남 견문 내용 비교

이수광의 「조완벽전」	정사신의 「조완벽전」	이준의 「기조완벽견문」
1. 안남 정세	1. 안남의 풍속과 유품	1. 안남의 풍속과 유품
2. 안남인의 의식주	2. 조선의 인식	2. 조선의 인식
3. 안남의 풍속과 유품	3. 안남의 기후	3. 안남의 제도
4. 조선의 인식	4. 안남인의 성품	4. 안남인의 성품
5. 안남의 기후와 벼농사	5. 안남 부녀자	
6. 안남의 특산물		
7. 안남인의 묘사와 성품		

조완벽의 방문담을 수록한 세 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각자의 관심사가 다르고 수록된 내용 분량도 차이가 크다고 보인다. <표 2>를 살펴보면 안남에 관심이 많은 이수광은 조완벽의 안남 견문을 가장 많이 서술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 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면서 안남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파악해 보겠다.

### (1) 안남 정세 및 안남인의 의식주

조완벽이 안남으로 갔을 당시 안남 국내 정세는 ‘국내는 安南國과 交趾國 둘로 나뉜 채 서로 전쟁을 벌여 승부가 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한다.<sup>45)</sup> 안남국과 교지국의 상태는 ‘扶黎滅莫’을 주도한 정씨와 완씨의 대립관계를 말한 것으로 본다.

당시 정씨는 북쪽인 東京(Dông Kinh)지역을 장악하고 완씨는 이미 남쪽인 順廣지방(Thuận Quảng)을 관리하게 되었다. 일본 상인들은 지역에 따라 무역허가를 신청하여야 해서 안남은 하나의 나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鄭氏가 장악한 동경지역을 동경국이라 부르며, 阮氏가 점거한 순광지방을 廣南國 또는 交趾支那國이라 칭했다. 당시 朱印船에 승선해 안남을 세 차례나 방문했던 조완벽이 정씨와

45)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國內中分爲二。一安南國一交趾國。互相爭戰。未決勝負。”

완씨의 대립상황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조완벽은 안남이 정씨·완씨 두 개의 정권으로 대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안남 인식이었다.<sup>46)</sup>

그러나 鄭阮紛爭(Trịnh Nguyễn phân tranh)은 본격적으로 1627년부터 발생하는데 이수광의 기록은 전쟁을 벌여 승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상황일까? 앞서 이수광은 풍극관과 문답하였을 당시에 안남에서 여씨와 막씨의 정권교체기를 알게 되었다. 때문에 당시 조완벽의 방문담을 들은 후 이수광은 자기가 인식한 안남의 정치적 상황을 추가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사신과 이준의 기록에서는 안남 정세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조완벽은 일본인의 일반적인 인식을 받아들여 안남에서 안남국과 교지국으로 나뉜 상태가 정씨와 완씨의 대립관계를 말한 것이며, 이수광은 이미 알고 있었던 안남 정치적 상황과 조완벽의 방문담을 융합하여 자신이 인식한 안남 정세로 묘사하였을 듯하다.

조완벽이 세 차례 방문한 안남지역은 현재 베트남의 北中部(Bắc Trung bộ)<sup>47)</sup>또는 北部灣(Vịnh Bắc bộ)에 있는 乂安省 興元縣이다. 앞서 안남과 교지를 분석한 것으로 보면 당시 조완벽이 방문한 흥원현이 정씨가 장악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완벽이 전하고 있는 안남의 모습은 베트남 중부와 북부지방 일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조완벽이 흥원현에서 만난 文理候 鄭勳(Trịnh Tiều)은 당시에 안남지역의 해외무역 관리자로 밝혔다.<sup>48)</sup> 이 사람과 사교하면서 안남인의 의·식·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정초는 조완벽에게 중국길을 쇠환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 사람이기도 하였다.<sup>49)</sup>

의식주와 관련하여 조완벽이 정초의 집을 묘사한 바가 있는데 “거처가 매우 호화로우니, 그 지역에는 대부분 띠풀로 지붕을 이었는데 오직 문리후가 사는 집만 기와지붕을 이었고 기와의 이음새는 유희를 썼으며, 공작의 깃털을 짜서 만든 생초로 휘장을 둘렀다”고 하였다.<sup>50)</sup> 정초는 지방관리라서 이렇게 사치한 생활공간

46) 남미혜, 「17世紀 被擄人 趙完璧의 安南 체험」, 『한국학논총』 45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212-213쪽.

47) 베트남 중부지방의 북쪽이자 7개 경제권 중의 하나이다.

48) 蓮田隆志, 「17世紀ベトナム鄭氏政權と宦官」, 『待兼山論叢(史學篇)』 39, Osaka University, 2005.

49)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文理候謂生曰。你欲求還本國。自此刷還於中朝。可以轉解。你須留此。”

을 갖춘 것이 놀랍기는 하지만, 조선과 마찬가지로 평민들은 주로 초가집을 하고 양반의 집은 기와집에 기거하지만 소박한 생활공간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앞과 같은 표현이 서술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안남인의 취사에 대해서는 “목이 마르면 사탕수수를 먹고 밥을 겨우 배를 채울 만큼만 먹고 술은 항상 소주를 마신다”고 하였다.<sup>51)</sup> 이를 보니까 안남인은 사탕수수를 간식으로 즐겨 먹는 모양이며 밥을 배만 채울 정도로 먹는 다니까 음식을 아껴 먹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안남에서 농경처럼 양잠을 하는 데 있어 사견이 가장 풍부하여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옷을 지어 입는다고 하였다.<sup>52)</sup> 조완벽이 말한 안남의 양잠문화는 이수광이 풍극관과의 문답을 통하여 받아들였던 것과 같다.

## (2) 안남 유풍 및 조선의 인식

조완벽은 정초와 사교하면서 안남 유생을 만나서 교류하였다. 안남 유생들은 조선이 禮儀之國임을 인정하고 안남과 같다고 한다.<sup>53)</sup> 특히, 안남에서 당시 지봉 이수광의 시집을 널리 퍼뜨려 곳곳에서 읊었다고 하며, 정사신과 이준도 이러한 사실을 서술하였다.<sup>54)</sup>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당시 조선 지식인들은 안남인들이 조선의 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통해 同書文과 동질감보다는 조선이 문화적·학문적 우월감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55)</sup> 이는 이수광이 안남 사신 풍극관과 교류한 다음에 안남이 중화문명의 기준으로는 조선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인식과 다름없었다.

조완벽과 안남 유생의 교류를 살펴보면 당시 양국 지식인은 안남과 조선이 유

50)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居處甚侈。地多茅蓋而唯文理侯家用瓦。瓦縫用油灰。以孔雀羽織納爲帳。”

51)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渴則啖蔗草。飯則僅取充腸。常飲燒酒。”

52)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桑則每年治田種之如禾麥。摘桑以飼蠶。絲絹最饒。無貴賤皆服之。”

53)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貴國乃禮義之邦。與鄙國同體。”

54)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此乃貴國李芝峯詩也。芝峯即暉光號。詩即暉光丁酉奉使中朝時。贈其國使臣者也。(중략) 此貴國宰相李芝峯之作。我諸生人人抄錄而誦之。你可觀之。(중략) 厥後見學校中諸生。果多挾是書者。”; 정사신, 『매창집』 권4, 전, 「조완벽전」. “見處處有愛誦芝峯詩。(중략) 則爾知東國李芝峯乎。完璧前此未嘗聞知。故以實對。其土人曰李芝峯爾國文章人也。爾之不知何也。仍誦芝峯所作。”; 이준, 『창석집』 권12, 잡저, 「기조완벽전문」. “聞生爲東國人。爭來見。以一律誦而告曰。此乃爾國李芝峯作也。”

55) 정규식, 「『조완벽전』을 통한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해외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방학』 Vol.39,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8, 16-17쪽.

교문화권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⑤ 또 그 풍속은 독서를 숭상하여 시골 마을에도 이따금 학당이 있었고 글 읽는 소리가 서로 이웃에 들렸으며 아동들은 모두 蒙求와 陽節潘氏의 논을 외웠으며, 혹은 시문을 익히도록 하였다. 그 글자를 읽는 방법은 습구(習口)를 쓰는데 우리나라의 자음과 서로 비슷하였다. 다만 종이가 가장 귀하어 서적은 모두 당본이었다.<sup>56)</sup>

⑥ 또 그 나라 풍속은 문풍이 성하며 집집마다 강송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았다. 鄉擧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향읍·도회를 거쳐 시험하여 취제하고 그들을 왕도로 데려간다.<sup>57)</sup>

⑦ 詩書의 가르침을 익히며, 관제(官制)와 법도는 대략 중국을 모방하였다.<sup>58)</sup>

이상에서와 같이 조완벽은 당시 안남에서 儒風이 성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수광은 안남에서 『몽구』와 『양절반씨』를 외우며 안남인이 글자를 읽는 방법이 합구성인데 조선과 비슷하고 특히, 종이를 중히 여겼다고 한다. 정사신은 안남에서 유풍이 성함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마찬가지로 과거시험을 향시, 회시, 정시를 순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준은 안남의 관제와 법도가 중국을 본받았다고 한다. 당시 조선 지식인들은 이수광과 풍극관이 교류할 때 한문을 매개로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풍극관이 거듭 양국의 동질성을 강조하였기에 안남과 조선이 유교문화권이라 인식하였다. 이제 조완벽의 방문담을 통하여 안남과 조선이 모두 중국의 영향을 본받았으며 유교문화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 (3) 안남의 특산물 및 벼농사

조완벽이 전한 안남의 기후는 매우 따뜻한 날씨이며 낮에 덥고 밤에 서늘하였으며 겨울에도 봄처럼 따뜻하다고 하였다.<sup>59)</sup> 안남의 특산물에 대해서는 공작, 양

56)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且俗尙讀書。鄉閭往往有學堂。誦聲相聞。兒童皆誦蒙求及陽節潘氏論。或習詩文。其讀字用合口聲。與我國字音相近。但紙最貴。書籍則皆唐本也。”

57) 정사신, 『매창집』 권4, 전, 「조완벽전」. “且國俗盛文風。見其家家講誦不絕。鄉擧則如我國之鄉邑都會試取。以送于王都云。”

58) 이준, 『창석집』 권12, 잡저, 「기조완벽견문」. “習詩書之教。官制法度。略倣中朝。”

59)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其地甚煖。(중략) 日候晝熱夜涼。”; 정사신, 『매창집』

무새, 백치, 자고, 후추, 수박, 꽃감, 참외 등이 있다고 하며 빈랑과 목화나무가 있었다. 안남의 목화나무가 조선의 것과 달라서 조완벽이 묘사한 바가 있는데 “목화 나무는 매우 높고 큰데 발두둑에 곳곳마다 있었고 꽃의 크기가芍藥과 같았으며 질쌘하여 베를 만들면 매우 단단하고 질겼다”라고 하였다.<sup>60)</sup>

특히 당시 이수광은 안남의 水牛(물소)와 코끼리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당시 풍극관과 시문을 창수할 때 코끼리와 무소뿔을 빌려서 시를 창작하였기 때문이다. 안남 유생들은 이수광이 지은 “산은 기물을 내니 상골이 넉넉하고(山出異形饒象骨, <표 1>의 1A)”라는 구절을 볼 때 그곳에서 실제 코끼리가 나온다고 하며 칭찬하였다.<sup>61)</sup>

조완벽이 조선으로 돌아가자 이 사실을 조선 지식인들에게 전해졌으며 이수광도 알게 되었다.<sup>62)</sup> 또한 조완벽은 안남 코끼리에 대해서 “덕상이라는 코끼리가 있는데 그 상아가 제일 긴 것은 거의 5, 6尺에 달한다. 국왕은 코끼리를 70頭나 기르며 나갈 때 코끼리를 타는데, 코끼리 중에는 사람처럼 절하고 꿇어앉는 것도 있다.”라고 한다.<sup>63)</sup> 풍극관은 안남 무과시험에 대해 이수광에게 답하였을 때 코끼리를 타는 것[騎象]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조완벽이 전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조완벽은 물소에 대해서 “멧돼지와 생김새가 비슷하고 털빛이 검푸른 색이라고 묘사하며 안남인이 가축처럼 기르고 농사에 이용하거나 도살하여 먹기도 하였다. 날씨가 더워서 낮에는 물소들이 모두 물에 들어가 있다가 해가 진 뒤에야 나오며 그 뿔이 매우 큰데 곧 지금의 흑각으로 왜노들이 무역하여 사가지고 온다”라고 설명하였다.<sup>64)</sup> 이수광은 점성에서 외뿔소가 있는데 아마 물소가 외뿔소인 듯하다는 주석을 넣었다.<sup>65)</sup> 이수광은 점성에서 나오는 동물과 안남에서 기르는 동

권4, 전, 「조완벽전」: “冬暖如春。”

60)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木花樹甚高大。田頭在處有之。花大如芍藥。績而作布甚堅韌。

61)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且指其中山出異形饒象骨一聯曰。此地有象山。所以尤妙。相與稱賞不已。”

62) 이수광, 『지봉유설』, 권14, 文章部, 「唱和」, “後有被擄儒士趙完璧者自倭中還。言隨商倭往安南。則其國人稱誦余詩而指示曰。吾國有出象之山。所以爲佳也云云。余聞而訝之。後按綱目註。安南出象處曰象山。”

63)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有德象。其牙最長幾五六尺。國王畜象至七十頭。出則騎象。象有拜跪如人者。”

64)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有水牛形如野豬。色蒼黑。人家畜養。作耕或屠食。以日氣熱。故晝則牛盡入水。日沒後方出。其角甚大。卽今黑角。倭奴貿取以來。”

65)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五代史雲占城有水兕。所謂水牛。疑卽兕也。”

물이 하나의 동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이수광도 책에서 읽은 것을 인용하는데 조완벽과 달리 직접 가서 목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외뿔소는 야생 동물이고 물소는 가축으로 길러 농사에 이용하는 점으로 보아 확실히 다른 동물이다.

마지막으로 조완벽은 안남의 벼농사에 대해서 “논에 짓는 농사는 정해진 때가 3월 사이에 경작을 시작하는 자도 있고 막 익어가는 자도 있고 한창 수확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전한다.<sup>66)</sup> 조완벽이 말한 안남 농경은 이수광이 전한 것과 달랐다. 이수광은 풍극관에 의해 안남에서 한 해에 두 번 수확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즉, 안남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이모작이다. 그러나 조완벽이 전한 것은 안남에서 이모작이 아닌 삼모작 또는 다모작인 상황을 전하였다. 『大南一統志』 又安의 「氣候條」를 살펴보면 조완벽이 안남에 대한 벼농사를 잘 몰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 ⑧ 농사는 한 해에 이모작이 있는데 11월에 모를 심으면 여름 4월에 익는다. 6월에 모를 심으면 겨울 10월에 익는다. 또 3월과 8월에 나오는 벼가 있는데 땅에 적합한 벼를 심으면 모두를 수확할 만한 것이다.<sup>67)</sup>

위의 기록을 보면 안남인들에게는 벼 한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종에 따라 경작 기간이 다르고 땅에 따라 수확기간도 다르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조완벽이 안남 벼의 종류를 잘 모르며, 비록 안남으로 3차례나 방문했지만 해마다 같은 시점에 안남에 체류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삼모작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4) 안남인의 묘사와 풍속 및 안남 부녀자

이수광은 안남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았는데 조완벽의 방문담을 접하고 나서 안남에 대한 인식이 보다 넓어졌다. 따라서 안남인이 생활하는 모습을 견문

66)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水田耕種無時。三月間。有始耕者有將熟者有方穫者。”

67) 『大南一統志』, 卷14 又安省 上, 「氣候」. “稼穡有二熟 十一月立苗 夏四月熟 六月立苗 冬十月熟 又有三月穀八月穀 隨地樹藝皆可收熟。”

하는 조완벽의 방문담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수광의 「조완벽전」에 의하면 안남에서 100세를 넘는 장사한 사람이 흔하게 있으며 특히, 어느 노인 한 명은 머리털이 희어졌다가 다시 누렇게 되었고 치아는 마치 어린이와 같았는데 그를 ‘황발아치’라고 불렀다.<sup>68)</sup> 또 안남인들은 조총 쏘는 것을 좋아하여 어린아이들도 총을 쏘 줄 알았다고 하며 침향 가루를 膏로 만들어 몸과 얼굴에 발랐다.<sup>69)</sup>

조완벽은 안남인에게 후한 접대를 받았는데 대개 온순하지만 속이는 일도 있고 양국 거리가 멀기 때문에 쇠환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따르지 않았다.<sup>70)</sup> 조완벽은 베트남인들이 미답지 못하다는 판단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적 거리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 거리를 망각했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베트남 사람들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근거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에 기반하여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는 당시의 조선 지식인들이 베트남과 베트남 사람들을 경계와 의심의 관점으로 인식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sup>71)</sup>

안남 풍속에 대해서는 이수광의 「안남국사신창화문화답록」에서 묘사한 것처럼 안남 사람이 모두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被髮], 맨발로 다니는 것[跣足, 赤脚], 이를 검게 하는 것[涅齒, 漆齒] 등이 안남의 국속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72)</sup> 조완벽의 방문담이 수록된 세 편의 내용 중에서 유독 이수광이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는 당시 안남 사절단과 같이 생활하다 안남에 대한 풍속을 어느 정도로 짐작하였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수광은 벼슬한 사람과 귀한 사람까지 맨발로 다니며 성년이 된 사람이 이를 검게 한다고 하였다. 이를 보니까 당시 이수광이 묘사한 안남 사절단은 귀한 사람이 이를 검게 하며 천한 사람이 맨발로 다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세 번이나 안남을 다녀온 조완벽보다 짧

68)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其人多壽。有一老人髮白而復黃。齒則如小兒。所謂黃髮兒齒者也。問其年則百有二十。其過百歲者比比有之。”

69) 이수광, 『지봉집』 권23, 雜著, 「조완벽전」, “且喜習鳥銃。小兒亦能解放。(중략) 用沈香屑作膏塗身面。”

70)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文理侯謂生曰。你欲求還本國。自此刷還於中朝。可以轉解。你須留此。生欲從其言。而見其國人多詐難信。又聞距本國甚遠不果雲。”; 정사신, 『매창집』 권4, 전, 「조완벽전」, “且其國之人。外似溫順而心實狡詐多貪慾。其見完璧也。有勸以逃着此國。使之通中國以回朝鮮云。而見其多詐難信。終不肯從云。”

71) 정규식, 앞의 연구논문, 2018, 13쪽에서 재인용.

72)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其國男女皆被髮赤脚。無鞋履。雖官貴者亦然。長者則漆齒。”; 정사신, 『매창집』 권4, 전, 「조완벽전」, “見其俗皆被髮跣行。”; 이준, 『창석집』 권12, 잡저, 「기조완벽견문」, “國俗被髮涅齒。”

은 50일간 견문한 이수광은 안남 풍속에 대한 인식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완벽은 “오직 빈랑을 늘 씹어 먹는데 푸른 잎과 함께 싸서 먹었으나, 무슨 물건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지만, 이수광은 “『小説』에 따라 ‘남쪽나라 사람들은 빈랑을 먹는데 扶留藤과 함께 씹으면 뚝지 않다.’라고 하니, 아마 이것인 듯하다”라고 주석을 넣었다.<sup>73)</sup> 또, 이수광은 안남인이 빈랑을 자주 씹음으로써 이빨이 빨개지고 이를 튼튼하게 한다고 한다.<sup>74)</sup> 따라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은 빈랑을 씹는 것이 안남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이 풍속도 있으며 빈랑을 씹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안남과 조선은 유교문화권에 있어 사회적 사상을 유교의 기반으로 닦았으니 주목받은 대상이 부녀자이다. 유교가 수용하는 남자를 위주로 하는 가부장제는 안남에서도 역시 그렇다. 조완벽은 안남 남자가 처첩을 많이 맞이하며 십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맞이한 세력이 있는 부자들이 많았다고 한다.<sup>75)</sup> 그러나 안남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매년 초봄에 금은 약간씩을 받아 이를 매매의 자본으로 삼았다고 한다. 따라서 그 처첩들은 외국상인이 내박한다고 들으면 가마를 타고 나가서 왜인들과 상거래를 논했다고 한다.<sup>76)</sup> 이에 따라 일반적인 상거래는 여성이 가능하나 중요한 상거래의 경우는 남자가 담당하는 편이다.<sup>77)</sup> 이는 조선과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한 안남 여성이 조선 여성과 달리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고 상행위에 진출이 가능한 점이 색다른 모습이었다. 조완벽은 역시 안남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선의 전통질서와 다르다는 이질성을 인식하였다.

### 3) 조완벽의 안남 인식

지금까지는 조완벽이 안남에서 지낸 만큼 견문한 것을 살펴보았다. 조완벽은

73) 이수광, 『지봉집』 권23, 잡저, 「조완벽전」. “唯常喫檳榔。以青葉同食。未知爲何物也。‘小説曰。南人食檳榔。以扶留藤同咀則不澁云。蓋此物也。’”

74) 이수광, 『지봉유설』, 권19, 食物部, 「果」. “趙完璧言安南國人。常服檳榔。故齒皆赤而堅固云。”

75) 정사신, 『매창집』 권4, 전, 「조완벽전」. “且其國男子多畜妻妾。豪富者多至數十。”

76) 정사신, 『매창집』, 권4, 「조완벽전」. “每年春初。其夫分與金銀若干兩於其妻妾。使爲買賣資。其妻妾以其金銀爲終年售納之業以爲常。故其妻妾聞異國賈舶來至。則雖卿相之妻妾。必皆乘屋輜。盡率一家子女眷屬以來列坐。與倭人論價。”

77) Trửơng Hữu Quỳnh 등, 『Đại cương lịch sử Việt Nam - Tập 1』, NXB Giáo Dục, 2001, 373쪽.

이수광에 비해 안남에 관심이 많지 않지만 적지 않은 안남 정보를 조선 지식인들에게 전해주었다. 먼저 조완벽은 일본인에 의해 안남 국내에서 북쪽에서 장악한 정씨와 남쪽에서 점거한 완씨가 대립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전쟁을 벌여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씨와 막씨의 대립관계를 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수광이 당시 안남에서 여씨와 막씨의 정권 교체기를 가지고 조완벽이 말한 안남국과 교지국을 통합하였다는 주장인 듯하다.

또한 조완벽은 안남 유생과 교류하면서 양국의 동질성을 느꼈으나 그보다 안남이 동남아시아 문화권에도 있기에 중화문명의 기준으로 조선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인식하였다. 같은 유교 사상을 사회적 기틀로 닦았으나 사회진출과 상행위가 가능한 안남 여성은 조선 여성에 비해 한층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이질성으로 인한 안남과 안남인에 대한 경계 인식이 생기기도 하였을 듯하다.

그러나 조완벽의 안남 지식을 살펴보면 불합리적인 부분도 있다. 하나는 안남과 일본의 거리며 두 번째는 안남의 벼농사이다. 제주도에서 안남까지는 1만 7천 리 정도인데 조완벽이 안남과 일본의 거리가 3만 7천 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직항이 아닌 경유거리를 합치거나 왕래의 거리를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수광이 풍극관에 의해 이미 안남에서 일 년에 두 번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조완벽은 안남에서 삼모작 또는 다모작이 가능하다고 묘사하였다. 이는 조완벽이 안남의 벼농사를 잘 모르면서 단순히 견문한 대로 판단하였다는 한계이다.

조완벽의 방문담이 수록된 세 편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한 것을 보면 당시 조완벽이 안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조완벽이 전한 것들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안남인의 생활모습, 풍속문화, 기후, 특산물 등이 이수광에 비해 더욱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안남 조정에서 벼슬한 인물과 교류했던 이수광보다 조완벽이 머무르는 곳이 지방이어서 지방관아와 지방 유생과 교류했기 때문에 안남의 정치적 상황을 잘 알지 못하였던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광은 조완벽의 방문담을 듣고 「조완벽전」을 쓰는 데 자신의 안남 인식도 추가하여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알려주었다.

## 2. 金泰璜의 표류담으로 본 안남 인식

조완벽은 17세기 초에 안남을 다녀온 인물이면 김태황은 17세기 후반에 안남으로 표착하여 생환한 인물이다. 조완벽은 일본인에 의해 부득이하게 안남을 방문하면 김태황은 조난을 당하여 ‘구사일생’을 겪으며 안남으로 표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김태황의 표류 사건은 조완벽과 달리 조정에서 논의된 바가 있었다. 김태황이 안남에서 1년 4개월 동안 지냈으므로 가장 긴 기간에 체류하였다. 때문에 김태황의 표류담에 담긴 안남 정보들은 당시 조선 지식인의 안남 인식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⑨ 제주인 김태황이 정묘년(1687) 9월에 목사 이상전이 진상하는 말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추자도 앞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31일만에 바야흐로 안남국 회안 지방에 이르렀더니, 안남국왕이 임시로 公廩를 지어서 대접하고, 錢米를 주어서 餬口하게 하였는데, 마침 절강의 상선을 만나서 무진년(1688) 7월에 그 배에 실려 본주로 돌아왔습니다. 안남국에서 가져온 공문은 그 나라의 邊臣 명덕후 吳가 작성한 것인데, 인장은 쓰지 않고 단지 도서만을 썼습니다. 절강의 상선은 영과부의 표문을 【청인의 행상들은 모두 표문을 가졌으니, 곧 공문이다.】 가졌으며, 김태황이 실릴 적에 쌀 6백 포를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김태황이 값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구제함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sup>78)</sup>

김태황 일행이 안남국 회안부로 표착한 곳은 전자 조완벽이 말한 교지국이며 완씨가 점거한 지역이었다. 조완벽은 당시 정씨와 완씨의 대립관계를 인식하였으나 실제 당시 양 정권이 본격적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김태황 일행은 표착하였을 당시는 鄭阮紛爭(1627~1672)을 거쳐 안남에서 공식적으로 두 개의 나라로 갈리게 되었다. 따라서 淨江(Sông Gianh)을 경계로 삼아 강의 북쪽은 정씨정권에 속한 지역이 塘外(Đàng ngoài)라고 하며 남쪽은 완씨정권이 관리하는 지역이

78) 『속중실록』 권20, 숙종 15년 2월 13일 신해조. “濟州人金泰璜, 於丁卯九月, 領牧使李尙<sub>諱</sub>所進馬, 行船至楸子島前, 爲風所漂, 三十一日方到安南國 會安地, 安南國王假公廩而待之, 賜錢米以餬口, 適遇浙江商船, 以戊辰七月載歸本州, 所齎安南國公文, 是其國邊臣明德侯吳所成, 而不用印, 只用圖書, 浙江商船則持寧波府票文【清人行商, 皆持票文, 卽公文也。】矣。 泰璜之得載也, 約與米六百包, 而泰璜不能償其言, 自朝家宜有以濟之。”

塘冲(Dàng trong)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김태황 일행이 견문한 안남 정보들은 완씨가 접거한 지역이며 베트남의 중부지방의 문화상인 셈이다.

앞의 기사를 보면 대략 김태황 일행은 출항시기, 연유, 조난, 漂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표환에 대해 기록할 때 주로 표환의 전말과정과 표착한 지방관아의 응대에 관한 것만 조사하는 편이며 표착지에서 견문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 편이다. 때문에 표착지의 견문을 파악하려면 표류담을 私의으로 조사한 기록들을 살펴봐야 한다.

김태황의 표류담을 가장 앞선 기록한 것은 제주 목사였던 이익태가 자신의 제주 재임 시의 일을 기록한 『지영록』에 실린 「김태황표해일록」이다. 일반적으로 표류기를 日錄體로 쓰는 것이 자신의 표류 체험을 기술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익태의 「김태황표해일록」이 일록 형태로 기술하긴 했으나 모두 표류민이 작성해 둔 기록을 참조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록체로 된 기록은 표류의 전말과정을 상세하게 다루며 표착지의 견문은 매우 소략하다.<sup>79)</sup>

이익태를 이어서 송정규는 김태황의 표류담을 작성할 때 주인공인 김태황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전자의 기록을 참고하여 김태황 일행인 李德仁의 구술을 듣고 재정리하였다.<sup>80)</sup> 그리고, 「기안남표환인사」는 제주에서 일어났던 外地와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하여 길이 남기려는 한 제주 목사의 개인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표류 시작에서부터 생환까지의 과정과 겪은 일들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복원하면서도 자연환경·농사·식물·동물·복식과 이동수단·음식문화 등 안남의 다양한 풍토에 대해서는 따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제시하고 있다.<sup>81)</sup>

마지막으로 정운경이 쓴 「탐라문견록」에서 나오는 제1화인 김태황의 표류담을 두 편의 내용과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운경은 전자가 쓴 기록을 모아서 김태황 일행인 高商英의 구술을 듣고 전자의 내용을 중복되지 않게 조율하였다.<sup>82)</sup> 정운경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김태황의 표류담을 작성했는데 대부분 이익

79) 최영화, 앞의 연구논문, 2016, 71-72쪽.

80)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甲申秋, 余至耽羅, 泰璜已死, 招問德仁等, 參以泰璜遺記及本州故實, 備述其始末焉.”

81) 정난영, 앞의 연구논문, 2015, 232-233쪽.

82) 최영화, 앞의 연구논문, 2016, 83쪽.

태·송정규·정운경 세 명의 기록을 참조하여 썼다.

이로 말미암아 김태황의 표류담은 언급한 세 편의 내용을 정리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전자가 쓴 것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저술한 것이므로 세 편의 내용에는 차이점과 유사점이 공존한다. 이 세 편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표류 원인과 표류시작 → ②안남국 회안부 도착, 안남인 접촉 → ③첫 번째 위기(해적으로/안남 태자 살해로 오해받아 죽을 뻔함) → ④왕도 이동 및 안국 국왕 접견 → ⑤안남의 풍속·문물·기후 등 설명 → ⑥두 번째 위기(풍토 병으로 인한 동행의 사망) → ⑦귀국을 위한 준비 → ⑧출발 및 안남 공문 수령 → ⑨광동·북건·절강·강남 등 경유 → ⑩제주도 도착 → ⑪귀국 후 표류 사건 진정 및 구조인과의 문답 → ⑫사후의 에피소드 → ⑬들은 경위 등 순으로 구서이다.<sup>83)</sup>

### 1) 안남인의 의·식·주 및 풍속

이상에서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실제로 안남에서 견문한 것들은 주로 ②번부터 ⑤번까지이다. 먼저 김태황 일행이 안남인에 의해 구조되었을 때부터 안남국 왕을 알현할 때까지 안남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⑩ 또한 그 사람들의 차림새를 보니 머리를 묶지 않았으며 맨발에다 바지를 입지 않았고, 다만 비단으로 된 긴 통옷 하나만 입고 있었다. (중략) 이날 국왕이 배를 타고 경치를 즐겼는데, 배에 오르내릴 때 거동을 살펴보니 머리를 풀었고 바지는 입지를 않았으며 몸에는 비단으로 된 긴 옷을 상하 통으로 입고 있었다. (중략) 안남국 사람들의 의관제도는 신분의 고하나 남녀의 차이가 없이 한 가지였다. 그래서 귀천을 구분할 수 없었다. 모두 이를 검게 칠했으며, 지위가 높은 사람은 말총 모자를 썼다.<sup>84)</sup>

이익태는 안남인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 맨발로 다니는 것, 바지를 안 입는

83) 정난영, 앞의 연구논문, 2015, 228쪽에서 정리한 것과 각 기록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정리했다.

84) 이익태, 『지영록』, 「김태황표해일록」. “而見其人裝束, 則被髮跣足, 亦無袴着, 只穿錦段長衣一領矣. (중략) 是日國王, 船遊翫景, 故上船下船時, 諦視舉動, 則被髮不着袴, 身穿錦段長衣, 上下一體. (중략) 安南國人, 衣冠制度, 上下男女, 俱是一色, 不辨貴賤, 皆漆齒. 位尊者, 着駮帽.” (『제주 최초의 인문지리지 지영록』, 국립제주박물관, 2021, 번역문 인용하며 차후 이와 동일함)

데다 긴 옷을 입은 것 등의 풍속이 이수광이 묘사한 안남 사절단과 같았다. 그리고 주목받은 것은 안남인이 바지를 입지 않고 비단으로 된 긴 통옷만 입는 모습이며 특히, 안남국왕마저 그렇게 옷차림을 갖추었다고 한다. 송정규는 “남녀 모두 긴 옷을 입으며 옷깃을 겹치지 않고 끈을 써서 묶으니, 한 번 풀면 위아래 끈이 모두 풀렸다”라고<sup>85)</sup> 하며 “하의는 짧은 잠방이를 입으니 겨우 허벅지까지 닿았다.”라고<sup>86)</sup> 하니 바지가 짧아서 쉽게 볼 수 없을 듯하다. 이익태와 송정규가 묘사한 안남인의 옷차림은 <그림 4>와 같다고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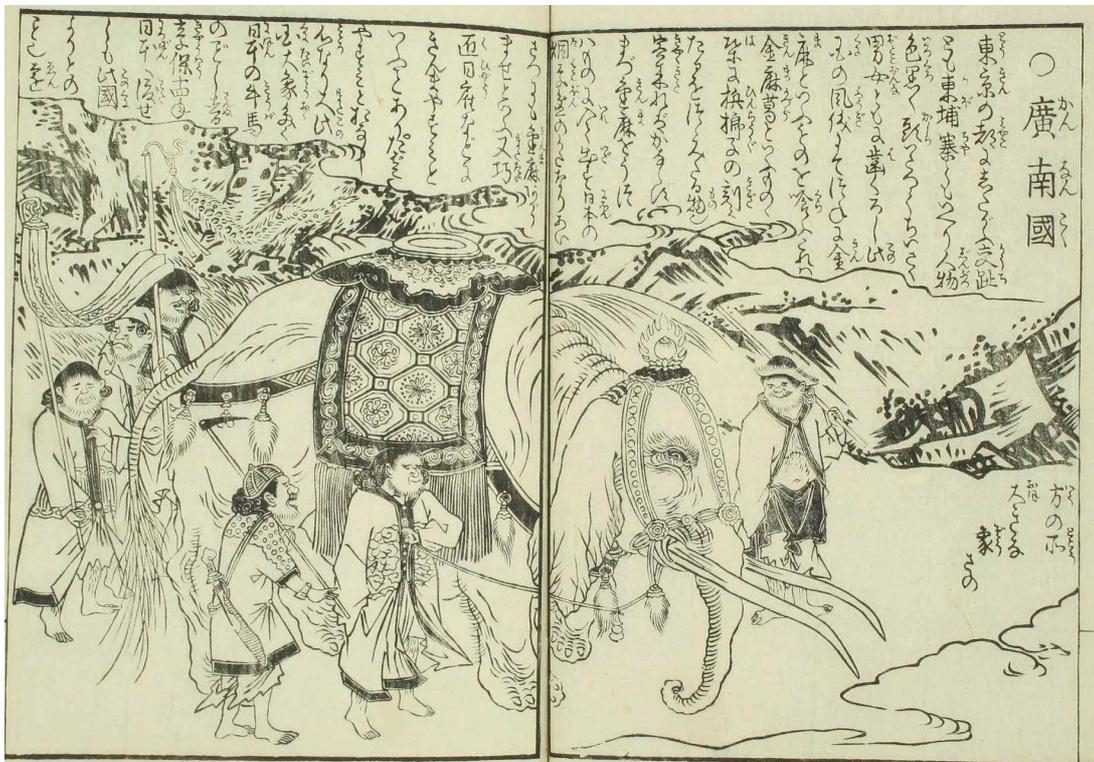


그림 4) 일본에서 제작한 광남국 삽화(출처: 春光園 花丸, 岡田 玉山의 『萬國人物圖』 卷上, 早稲田大学図書館 所藏)

또 이익태는 안남 사람들이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두 똑같은 옷차림을 갖추며 단, 벼슬하는 사람만이 종모를 썼다고 한다. 송정규는 안남국왕이 검은 비단으로

85)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男女皆着長衣, 襟不交掩, 紐皆用純, 而一被則上下衆純齊脫.”(김용태, 김새미오 옮김, 『해외문견록-제주목사 송정규, 바다 건너 경이로운 이야기를 기록하다』, 휴머니스트, 2015, 이 책의 번역문 인용하며 차후 이와 동일함).  
 86)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下着短褌, 才及髀, 女則又有裳.”

된 옷을 입고 주변 사람들이 검은 옷을 갖추고 붉은 종모를 썼다고 한다. 정운경은 아마 전자 이익태와 송정규가 안남국왕의 옷차림에 대해 많이 말하였기에 고상영이 전한 안남 관원과 그의 부인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따라서 안남 관원은 검은 비단옷을 입고 종모를 썼으며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갖추었다.<sup>87)</sup> 이를 보면 안남인이 검은 비단옷을 즐겨 입고 벼슬한 사람이 종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김태황 일행을 심문할 때 지방관아와 군사 외에는 그 벼슬아치의 부인도 나왔는데 비단옷을 입고 쾌옥도 달며 행동거지가 단아하고 향기가 풍겨왔다고 묘사하였다.<sup>88)</sup> 고상영의 구술을 들은 정운경은 안남에서 남자가 셋이면 여자는 다섯이며 남자는 천하고 여자는 높았다고 한다.<sup>89)</sup> 또 신을 신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 아니면 여자만 신을 신는다고 한다.<sup>90)</sup> 김태황 일행이 안남 여성에 대한 인식은 전자 조완벽과 비슷하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조완벽은 안남 여성이 사회진출과 상행위를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김태황 일행은 안남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결코 낮지 않다는 인식을 받아들였다. 특히 안남인은 남아보다 여아를 더 좋아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흔히 볼 수 있는 안남의 빈랑을 씹는 모습은 안남인이 강이나 시내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빈랑을 씹으면 물에 있는 벌레를 제거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의 치아가 검게 된다고 하였다.<sup>91)</sup> 그러나 송정규는 빈랑을 씹어서 사람들의 치아가 검게 된다는 것을 보면 빈랑 씹기와 흑치의 풍속이 서로의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수광은 남쪽 사람들이 빈랑을 씹으면 치아가 빨개지며 이를 튼튼하게 하였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빈랑을 씹으면 이가 검게 될 수가 없다. 때문에 당시 김태황 일행들은 빈랑 씹기와 흑치의 풍속이 서로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잘못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태황은 안남국왕과 주변 사람의 모습만 전하지 않고 안남인의 생활공간을 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안남 마을에서 집을 지을 때 모두 대나무를 쓰며 지붕은 풀이나 나뭇잎으로 덮었다. 오직 왕후만이 지붕을 기와로 덮을 수 있었다

87) 정운경, 『탐라문견록』, 제1화. “一官員披黑色衫, 頂駿帽子, 坐交椅上. 左右侍者, 服色大都如此.”

88) 정운경, 『탐라문견록』, 제1화. “一婦人衣錦衣, 揚珮自內而出. 舉止端雅, 異香馥馥襲人.”

89) 정운경, 『탐라문견록』, 제1화. “其民三男五女. (중략) 而男賤女貴.”

90)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人被髮跣足, 有婦人及貴人或着鞋, 貴人則又以布纏脛.”

91)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地無活泉, 皆飲江河溪澗, 水中多蟲毒, 飲者必以胡椒葉, 裏檳榔肉, 點蜚灰, 常咀嚼以解之. 以此人皆黑齒.”

고 한다.<sup>92)</sup> 이를 보면 조완벽이 환관 정초의 집을 묘사하였을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가난하거나 경제력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초가집을 주로 지으며 경제력이 높거나 귀한 사람들은 주로 기와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sup>93)</sup> 김태황 일행이 안남국왕을 알현한 기회로 다른 나라의 궁실에 갈 기회를 잡게 되어 안남국왕의 궁실에 대해서 묘사한 바가 있었다.

① 궁전이 대단히 높고 큰 것은 아니고 흙을 구워 섬돌로 깔고 대나무를 심어 성으로 삼았는데, 이는 그곳에 돌이 없기 때문이었다. 대나무 성의 둘레는 20리에 달했고, 성밖에는 군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몇 걸음마다 포를 설치해두었다, 또 그 밖으로는 큰 해자를 둘러는데, 강물을 끌어와 못을 만들었기에 다리를 들어 올리면 엄연히 하나의 섬이 되어 사람과 말이 오갈 수 없었다. 명덕후의 성 또한 이와 유사했다.<sup>94)</sup>

당시 완씨는 중앙정부를 富春(Phú Xuân)<sup>95)</sup>에 두었다. 송정규는 궁전의 높이가 적당하고 안남에서 돌이 없기 때문에 흙을 구워 섬돌로 깔고 대나무를 심어 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또한 대나무로 둘러싼 성의 둘레는 20리에 달했고, 성내를 지키기 위하여 성밖에는 군진과 포를 설치해 두었으며 내외 출입을 통제하기에 강물을 끌어와 못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림 5) 완씨정권의 궁전(출처: 『朱印船交趾渡航圖卷』, 九州国立博物館 所藏)

92)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人家作屋, 皆用竹, 盖以茅, 或以木葉, 唯王侯皆以甍.”

93) Đào Duy Anh, 『Việt Nam văn hóa sử cương』, NXB Văn Học, 1938 ( tái bản 2021), 184쪽.

94)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宮殿不甚高壯, 陶土爲砌, 種竹爲城, 緣其地無石也. 竹城周可二十里, 外設軍鋪, 每數步, 安一砲, 又其外, 環以大塹, 引江爲池, 撤橋則儼成一島, 人馬不通, 明德府城亦如也.”

95) 현재 후에(Hué)이다.

안남국왕의 궁성이 명덕후의 성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보면 당시 완씨정권이 지방관아에서 왕도와 같은 궁성을 지어줬다고 보인다. <그림 5>는 당시 일본인들이 교지국으로 들어왔을 때 廣南省을 관리한 관아에게 예물을 바치는 모습이다. 그림 안의 주인공은 阮潢(Nguyễn Hoàng, 1525~1613)의 아들인 阮福源(Nguyễn Phúc Nguyên, 1563~1635)에게 명하여 광남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회안으로 도항하는 외국상인들이 완복원에게 인사를 올리며 예물도 받쳤다. 완황은 제1대 阮主(Chúa Nguyễn)인데 흔히 僊主(Chúa Tiên)라고 부르며 완복원은 제2대 완주이고 흔히 仕主(Chúa Sãi)라고 부른다. 당시 김태황 일행이 알현한 안남국왕은 제5대 완주인 阮福湊(Nguyễn Phúc Thái, 1649~1691)이고 흔히 의주(義主,Chúa Nghĩa)라고 존칭하였다.

그러나 김태황의 표류담을 살펴보면 당시 안남의 정치적 상황을 언급한 바가 없다. 이는 표류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노력만 하는 과정에서 이국땅의 정치 상황을 알아볼 상황을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조완벽과 마찬가지로 주로 지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중앙정권을 둔 왕도에서 오래 체류하지 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안남의 정치적 상황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

## 2) 안남의 특산물

안남의 식물에 대해서는 후추, 야자나무, 빈랑, 사탕수수, 파초, 가지, 용안, 여지, 계초, 생강 등이 있으며 참외, 수박, 오이, 동아 같은 종류도 있다.<sup>96)</sup> 송정규는 안남의 식물들에 대해 섬세하게 기록하였다. 따라서 후추는 2월에 꽃이 피고 3·4월에 야포도와 비슷한 열매가 맺혀 8월에 익는데, 9·10월이면 열매를 따서 햇볕에 말려 썼다고 한다.<sup>97)</sup> 야자나무의 생김새는 높이는 4, 5길인데, 가운데는 비어 있고 마디가 좁으며 줄기는 솟아 있고 중간에 가지가 없었다고 한다.<sup>98)</sup> 사탕수수는 여러 가지 설탕을 만들 수 있고 파초는 신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sup>99)</sup>

96) 정운경, 『탐라문견록』 제1화. “其菓菜則龍眼荔枝桂椒薑芋蔗葍檳榔棕櫚芭蕉之類, 不能殫記也.”;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牒瓜西瓜胡瓜冬瓜之屬, 皆正月種, 三四月熟, 而至五六月, 則誇瓢熟爛, 不可食矣.”

97)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二月開花, 三四月結子, 八月熟如野葡萄. 九十月收采晒乾用之.”

98)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椰子樹高四五丈, 空心蹙節, 幹竦無枝.”

99)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甘蔗狀如蜀黍以節促, 割以啖之, 如蜜. 正月以後, 刈梢埋之, 四五月箏盛則刈之, 用木磑碾取汁, 箕承鍋注, 初煮去滓, 爲烏糖, 再煉爲白糖, 三煉凝而成芒

반면에 조선과 비교해 보자면 안남에는 삼베와 모시가 없고 1년에 여섯 번 거두며 습한 지역에서 모시풀이 잘 나온다고 한다.<sup>100)</sup> 그리고 단목과 오목, 황목이 있는데, 단목은 소목이며 황목은 제주의 황산목과 같았다. 모두 염색에 사용할 수 있고, 오목은 단단해서 물건을 만들기에 적당했다고 한다.<sup>101)</sup> 특히, 안남에서 제비·까치·솔개·땡·여우·삼·소나무·잣나무·복숭아나무·자두나무·감나무·밤나무 등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sup>102)</sup> 이를 볼 때 당시 표류인들은 이국땅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나라의 기준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sup>103)</sup> 즉, 일반적으로 견문할 때 자기 나라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중심에 두어 다른 나라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안남 동물에 대해서는 노루, 사슴, 공작, 코끼리, 소, 말, 원숭이, 다양한 물고기 등이 있다.<sup>104)</sup> 코끼리는 이수광과 조완벽이 거듭 말하였는데도 김태황의 표류담에서 보다 자세히 묘사하였다.

⑫ 코끼리는 크기가 짐체만 하고 코의 길이가 한 길 남짓하며 파초를 즐겨 먹었다. 관가에서 별도로 집을 만들어 코끼리를 기르는데, 안장의 모양이 가마와 같으니 이것을 타고 강을 건너곤 했다. 코끼리를 모는 사람은 철로 만든 채찍을 잡는데, 채찍에는 갈고리와 꼬챙이가 있어 가고자 할 때는 꼬챙이로 찌르고 멈추라 할 때는 갈고리로 당겼다. 군대를 훈련할 때에 코끼리를 선봉으로 삼기도 했다. 코끼리는 스스로 천아성을 내며 징과 북을 따라 나아가고 물러날 줄 알았다.<sup>105)</sup>

者，謂之冰糖。如沙糖雪糖五花糖之類，皆粉調變成者也。芭蕉最多，大者圍可一抱，高數丈，其絲可織布，或爲索或織屨，貴人往往着之”

100)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無麻布苧布，苧則生於近山不濕之地，一年六取.”

101)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有丹木烏木黃木，丹木即蘇木也，黃木即耽羅之黃山木也，皆可染色，烏木堅可作器.”

102)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所無者，燕鵲鳶雉狐狸松柏桃李柿栗也.”

103) 김태황 일행은 안남에서 생활하면서 견문한 것들을 항상 조선과 비교하는 것을 보여준다. 쌀은 10두가 1포이고, 돈은 60문이 1맥이며 10맥이 1관이 된다. 돈은 우리나라의 소전과 같고 승과 두는 우리나라의 단위보다 조금 컸다. 돈 1맥은 쌀 4두에 해당하는데, 쌀가마니는 등나무와 대나무로 만들었다(김용태, 김세미오 옮김, 『해외문견록 - 제주목사 송정규, 바다 건너 경이로운 이야기를 기록하다』, 휴머니스트, 2015, 52쪽).

104) 이익태, 『지영록』, 「김태황표해일록」. “人家多畜獐·鹿·犀·象·孔雀之屬，而畊犀騎象，牛馬亦有之，而體骨駿大.”

105)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象大如屋，鼻長丈餘。喜食芭蕉。官家別作巨屋以養之，鞍制如輻，騎以涉江。騎象者，持鐵鞭，鞭有鉤尖，欲行則尖之，欲止則鉤之。鍊兵時則以象爲前驅，象能自作天鵝聲，隨金鼓進退.”

이상을 살펴보면 코끼리에 대해서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볼 수 있다. 먼저 코끼리의 크기와 먹이를 알려주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가에서 기르는 코끼리를 가마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코끼리는 군대를 훈련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수광과 조완벽을 통해서 조선 지식인들이 안남에서 코끼리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품을 운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김태황의 표류담에 의해 코끼리가 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는 인식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본다.

- ⑬ 소는 두 종류가 있었다. 보통소는 밭을 갈지도 않고 짐을 운반하지도 않아 외양간만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밭가는 일을 하는 물소는 보통소보다 크고 등이 평평하며 털이 거칠고 색이 사슴과 같았다. 뿔은 길이가 반 길이니 이른바 흑각이라 했다. 이 소는 더위를 싫어하여 여름철이면 물속에 누워 있기를 좋아했다.<sup>106)</sup>

이수광과 조완벽은 코끼리를 이어서 안남의 물소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김태황의 표류담에는 역시 빠질 수 없었다. 송정규가 수록한 「기안남표환인사」에 의해 안남에서 소가 두 종류가 있으며 하나는 외양간에서만 기르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은 보통소와 달리 물소는 밭가는 일을 담당하고 그의 뿔을 흑각이라 했다. 따라서 이수광과 조완벽, 김태황은 공통적으로 소가 더위를 싫어하여 물속에 누워있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이 물소는 저녁이 되면 목동이 휘바람을 불면 스스로 물속에서 나오고 목동은 그를 타고 집에 간다고 묘사하였다.<sup>107)</sup>

물품을 운반하지 않는 동물은 소 말고 말도 있다. 왜냐하면 말은 관원과 군사들만이 타고 다닐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기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한 길 정도 되는 대나무 양 끝에 물건을 매달아서 어깨에 메고 다녔다.<sup>108)</sup> 또 안남에서 공작이 크기가 황새와 비슷하고, 색은 푸른 빛깔을 띠며, 머리에는 우산 모양의 장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안남인이 대나무 숲에 살 곳까지

106)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牛有兩種, 常牛則不耕不馱, 只堪充庖, 水牛則任耕田, 大於常牛, 背平毛麤, 色如鹿, 角長半丈, 世所稱黑角者也. 此牛性畏熱, 夏月則喜臥於水中.”

107) 이익태, 『지영록』, 「김태황표해일록」. “至暮牧童往水邊嘯叫犀從水裡自出, 復騎其背, 而驅至其家.”

108)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馬則官員軍士得騎, 以其餘私家禁勿畜. 牛馬皆不馱載, 故以丈許之竹兩頭懸物, 肩擔而行.”

마련하였다.<sup>109)</sup>

김태황 일행은 이수광에 비해 안남에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도 안남에서 지낸 만큼 수많은 안남의 지식을 얻었다. 안남에서 견문한 것들을 섬세하게 묘사한 덕분에 이익태·송정규·정운경 등의 조선 지식인들은 이를 반영하여 기록으로 잘 남겼다. 이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안남 인식의 한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이수광과 조완벽은 안남에 대한 인식을 이미 조선으로 전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자세한 정보가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 3) 안남의 기후 및 생활문화

김태황의 표류담 세 편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안남 날씨가 항상 덥다고 하며 한겨울의 기후가 조선의 8월과 같고, 여름에 비가 많고 겨울에 눈이 없어서 초목이 늘 푸르고 새와 짐승들도 털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sup>110)</sup> 이러한 날씨가 농사를 짓는 데도, 누에를 치는 데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⑭ 농지는 모두 관개가 되어 밭을 갈고 모내기를 할 때 호미로 김을 매는 수고가 없었고, 이삭을 베고 나서는 소가 그것을 밟으니 도리깨로 칠 필요도 없었다. 벼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흰 벼는 쌀이 차져 상급으로 삼고, 누런 벼와 검은 벼는 그 다음이었다. 일 년에 두 번 수확하니, 11·12월에 심은 것은 4·5월이면 익고, 4·5월에 심은 곳은 9·10월이면 익었다. 이밖에 다른 곡식은 없었다.<sup>111)</sup>

⑮ 누에를 잘 치는 풍속이 있어 10월에 뽕나무 가지를 잘라 햇빛에 말려 물가에 쌓아두고, 입춘을 기다려 물에 담갔다가 밭에 묻으면 싹이 나고 금세 자라 그 잎이 손보다 크게 되니, 이것으로 누에를 먹였다. 끊임없이 먹이기를 2월에 시작하여 9월에 그치는데, 그 사이에 누에를 거두는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많았다.<sup>112)</sup>

109)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孔雀大於鶴, 色綠翠, 頭有戴勝如傘, 尾長半丈餘, 羽端有暈者雄也. 棲於叢篁, 先作託尾之所.”

110)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天氣常熱, 大冬之侯如我國八月, 夏多雨, 冬無雪, 草木長青, 鳥獸稀毛. 地卑濕多.”

111)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田皆灌溉, 反耕移秧而無鋤耘之功, 割穗牛踏而無枷打之勞. 有稻三種, 白稻米黏爲上, 黃稻黑稻次之. 一年再穫, 十一二月種者, 四五月熟, 四五月種者, 九十月熟, 此外無他穀.”

112)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俗善養蠶, 十月刈桑枝曝乾, 積置近水處, 待之春浸水

김태황의 표류담에는 안남의 벼농사와 양잠문화를 잘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농경문화로 수리시설이 발달하였으며 벼는 3종류가 있고 1년에 이모작이라고 말했다. 또한 누에를 치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안남의 풍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한 김태황 일행은 역시 조선과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조선에서도 농경과 양잠이 있는데 양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김태황 일행이 안남에서 생활하면서 안남인의 생활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 따라서 상을 당한 사람은 머리카락을 좌우로 갈랐다. 부친상을 당한 사람은 왼쪽을 앞으로 하고 오른쪽을 뒤로 하며, 모친상을 당한 사람은 오른쪽을 앞으로 하고 왼쪽을 뒤로 했다.<sup>113)</sup> 또는 죄가 있는 사람은 큰 대나무로 형틀을 만들어 매도록 하며, 감옥에는 가두지 않고 길에서 밥을 빌어먹게 하다가 밤이 되면 한 곳에 모이도록 했다.<sup>114)</sup> 이러한 것들을 종종 서술하였는데 김태황 일행이 구술한 대로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안남에서 지내다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동수단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은 일반인들이 기르지 못하였으므로 말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때문에 안남인들은 말이 아니면 어떤 것을 타고 돌아다니는지를 궁금할 수밖에 없다. 조선인은 동물을 타지 않으면 가마를 타는 편인데 안남인도 가마와 비슷한 것이 있었다. 조완벽이 안남 歸家의 처첩들을 묘사할 때 屋輜를 타고 나가서 상거래를 논했다고 말했다. 이 옥교는 조선의 가마와 비슷한데 안남 사람들이 타는 가마의 일종이었다.

김태황 일행은 남쪽에서 살면서 안남인의 또 다른 전통가마는 杠輿라고 하며 송정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⑩ 다닐 때에는 강여를 댔다. 강여는 한 길쯤 되는 장대 양 끝에 막대를 가로질러 대고 노끈을 짜서 만든 자리를 그 아래에 매다는데, 그 크기가 사람 몸을 들일

埋畝間，則旋生暴長，葉大於手，以此飼蠶。連續不絕，始自仲春，迄于秋季，其間收繭，不知爲幾番矣。”

113)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遭喪者分其髮爲左右，父喪則左前右後，母喪則右前左後.”

114)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有罪者以大竹爲枷不繫獄，使之行乞而食，夜則聚於一處.”

만 했다. 장대 양 끝의 막대는 베틀의 바디가 씨실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았으며, 매듭을 짓고 빠져나온 노끈은 위의 가로 막대에 묶었다. 장대머리에는 용을 조각해 넣기도 했다.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데, 그 안에 앉아 있으면 깊고 아늑하여, 앉거나 누워도 모두 편안했다. 비가 오면 장대 위로 자리를 덮었다. 귀인들이 모두 이것을 탔다.<sup>115)</sup>

송정규가 서술하듯이 일반적으로 강여를 타는 사람들은 귀인들이며 주로 벼슬을 한 사람이나 과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귀향할 때 이용하였다. 특히, 혼인할 때 신부를 맞이하여 우귀하는 데 강여를 쓰기도 한다. 전통사회에서 안남인이 혼인할 때 흔히 쓰는 구절은 “나의 말은 앞으로 나아가며 그대의 강여는 뒤를 이어진다(Ngựa anh đi trước, vồng nàng theo sau)”라고 한다. 앞의 베트남 속담을 보듯이 안남인은 강여가 아닌 병(輦, Vồng)이라고 하였다.



그림 6) 강여를 탄 죽림대사(출처: 『竹林大士出山圖』, 中國 瀋陽市 遼寧博物館 所藏)

<그림 6>은 진씨 왕조의 陳仁宗(Trần Nhân Tông, 1258~1308)이 아들인 陳英

115)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行則乘杠輿, 其制以丈餘單杠兩頭橫杙, 織繩爲籍, 長廣容身, 兩端貫木, 如箴持經, 貫餘之繩, 上繫於橫杙, 杠頭雕龍而漆之. 兩人肩行, 懸乘深穩, 坐臥俱便, 雨則覆席於杠上. 貴人皆乘此.”

宗(Trần Anh Tông, 1276~1320)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출가한 모습을 그렸다. 이를 보면 강여는 17세기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13세기부터 나타난 이동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김태황 일행이 안남으로 표착했을 때 안남에서 강여의 쓰임을 체계화하게 되었다. 즉, 일반 강여는 <그림 4>와 같은 것을 쓰는 동시에 관원들은 쓰는 강여를 신분에 따라 행차의 인원이나 강여의 꾸밈이 달라졌다.<sup>116)</sup>

#### 4) 김태황 일행의 안남 인식

지금까지 김태황 일행이 안남에서 견문한 것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이 표류담은 다른 기록에 비해 안남에 대한 정보가 가장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안남국왕을 알현하면서 왕궁을 직접 보게 되는 기회가 있었다. 따라서 국왕의 옷차림, 국왕시종, 궁성 등을 섬세하게 전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수광과 조완벽처럼 안남인과 직접 교류할 기회가 없어서 양국 지식인이 서로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남 정권뿐만 아니라 안남인들도 표류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식량과 생계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김태황 일행들이 안남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17)</sup> 특히, 한문을 매개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양국은 적어도 동질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질성의 모습도 김태황 일행들이 매일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안남인의 풍속은 양국의 이질성을 가장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수광과 조완벽은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 맨발로 다니는 것, 빈랑을 씹는 것 등으로 인한 이질적 느낌을 전하였다. 표류인들은 제주도로 귀환한 후에 구조인 진건(陣乾)에게 안남에 대한 연호를 문답할 정도로 조선 표류인들의 과심을 끌었다.

- ① 안남은 본래 교지의 옛 땅인데, 명나라에서 운남을 취하고 교지를 버려두어 조공하는 일이 그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왕래는 그치지 않았으나 정삭을 보내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황제께서는 옛 관례를 따르시어 이를 문체삼지 않고 저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는 것이니, 일본이 정향 연호를 쓰는 것과 같은 경

116) 『欽定越史通鑑綱目』, 正編, 卷32, 永壽四年 辛丑 六月, 「申定朝服儀制」.

117) 이익태, 『지영록』, 「김태황표해일록」. “風俗淳厚, 食貨豐足, 見我人之丐乞, 或給斗米, 少不下五六升”; 정운경, 『탐라문건록』, 제1화. “此後則日往邨舍, 乞米, 米至三四石, 錢四五百. 如此十餘日, 子官移置會安之地. 又不給糧饌, 故如前四往乞丐, 其所延接給賜, 比前處一樣. 蓋其國俗然也.”

우입니다.<sup>118)</sup>

조완벽의 방문담에 비해 김태황의 표류담은 정치적 상황 또는 양국 지식인의 상호인식을 찾아볼 수 없으나, 안남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가장 풍부하며 다양한 안남의 정보를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때문에 17세기 조선 지식인뿐만 아니라 17세기 이후부터 조선 지식인들에게 타국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sup>119)</sup> 이전에 조선 지식인들이 정씨가 장악한 동경에서 생활했던 안남인과 달리, 완씨가 점거한 광남(교지)에 사는 안남인에 대한 비교적 풍부한 지식을 전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보의 다양화를 제공하였다.

---

118)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安南本以交趾故地, 明朝得雲南而棄交趾, 任其貢獻, 往來而已, 不加正朔久矣. 今我皇上, 且循古例, 不與較量, 任彼自爲, 正如日本之稱貞享年號也.”

119) 박희병,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문화』 4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169쪽.

#### IV. 조선 지식인의 안남 이해와 상호인식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안남 인식을 담은 기록들을 중심으로 타국에 대한 이해 정도를 살펴보았다.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안남의 상황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여씨와 막씨의 대립관계를 거친 후에 안남에서 정씨와 완씨의 대립관계가 대두하였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조완벽이 안남으로 갔을 당시에 국내에서 두 개의 나라로 갈려진 상태인 점이다. 왜냐하면 당시 여씨는 막씨를 물리쳐 광복하였는데, 정씨와 완씨의 대립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시점에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17세기 조선 지식들은 안남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상호인식을 살펴보아야만 파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안남의 민간풍속과 생활문화를 파악하면서 각자의 인식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종종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수광은 전통적 중국의 매개를 통하여 받아들인 인식, 조완벽은 정씨가 장악한 안남의 북쪽에서 지내면서 얻은 인식, 김태황 일행은 완씨가 점거한 안남의 남쪽에서 생활하다가 견문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여기에는 각자가 안남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며, 특히 조완벽과 김태황의 경우는 안남에서의 체류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안남 인식은 차이가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안남의 민간풍속과 생활문화는 안남 역사 전개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받아들인 인식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상호이해를 파악할 수 있었다.

17세기 안남에서 전란이 거듭되는 것은 조선과 마찬가지로였다. 당시 양국 지식인들이 교류하였을 때 국난에 처한 느낌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화이체제 아래에 있는 안남과 조선이 유교문화권의 친근감과 우호감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었다. 안남 지식인들은 양국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고 조선 지식인들은 민간풍속과 생활문화에서 안남에 대한 비동질성에 주목하였다. 때문에 상호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조선 지식인들은 당시 안남의 문화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와 조선이 어떻게 비쳐졌는지도 살펴볼 만한 점이다.

## 1. 안남의 정치·사회상

17세기 안남은 정권교체기와 국내분쟁을 거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안남에 대한 정치적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안남에서 멀리 떨어진 조선은 주로 중국 조정에서 취하는 방식밖에 없었다. 정유년(1597)에 안남의 정치적 상황은 이수광이 풍극관을 통해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시점과 얼마 안 되어 1604년에 안남을 방문한 조완벽은 안남국이 다시 안남국과 교지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로 갈려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 지점에서 안남국과 교지국이 어느 나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남국과 교지국에 대해서는 현재 학계에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안남국이 베트남의 黎朝시대 북부에서 鄭(Trịnh)씨가 장악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교지국은 남부를 점거한 阮(Nguyễn)씨의 나라로 보는 견해이다.<sup>120)</sup> 또 다른 견해는 안남국이 黎朝의 鄭씨가 지배하는 북부지역을 가리키고, 교지국은 黎朝의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鄭씨 세력에게 1592년 패배한 후 중국에 인접한 高平(Cao Bằng)지역으로 세력 근거지를 옮긴 莫(Mạc)씨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sup>121)</sup>

남미혜(2016)는 처음 조홍국 교수의 견해에 동의했으나 당시 북부를 지배하는 정씨와, 남부에서 관리하는 완씨가 서로 대립적 상태라는 주장을 냈다. 게다가 16, 7세기 유럽인들의 여행기나 地誌에는 베트남이 南北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서술되고 있으며, 북쪽은 東京國으로 남쪽은 交趾支那國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또한 완씨는 廣南(Quảng Nam)으로 피난해 온 이후, 1591년부터 일본에 통상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어 통상의지를 밝히고 자신의 영역을 나라로 자처하고 있어서 완씨가 중부지방을 실효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조완벽이 세 차례에 걸친 안남 기사는 당시 북부에서 정씨가 장악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교지국은 남부를 점거한 완씨의 나라로 보는 것이 옳다.<sup>122)</sup>

김문식(2018)은 이수광과 안남국사신인 풍극관의 필담과 이수광이 집필한 「조

120) 崔常壽, 『韓國과 越南과의 關係』, 韓越協會, 1966, 144쪽; 하우붕, 앞의 연구논문, 2006, 226쪽.

121) 조홍국,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 소나무, 2009, 211-213쪽.

122) 남미혜, 앞의 연구논문, 2016, 212-213쪽.

완벽전」을 인용하여 베트남에 黎氏 정권이 들어선 후 남북으로 갈려서 대립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완벽의 말을 듣고 베트남에서 여씨 정권이 성립한 이후 북부의 정씨와 남부의 완씨가 갈려서 충돌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23)</sup>

여기에서는 안남국과 교지국의 명칭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를,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안남보다 교지라는 명칭이 더 일찍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교지는 베트남의 최초로 세운 나라인 문랑국 15부 중의 하나인 교지부라고 불렸다.<sup>124)</sup> 南越國에게 戰敗로 인한 1차 北屬시대에 문랑국은 교지군과 구진군이 되었다. 3차 北屬시대에 이르러서는 당나라가 679년에 베트남의 북부지방에 安南都護府를 두었음에 따라 이때부터 안남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베트남의 역대임금에게 安南國王 작봉을 交趾郡王보다 뒤늦게 받았다. 즉, 968년에 丁部領(Đinh Bộ Lĩnh, 924~979)이 大瞿越(Đại Cồ Việt)을 세운 이후 973년 4월에 송나라로부터 사신으로 하여금 丁部領에게 交趾郡王을 봉했다고 한다. 1164년에 이르기까지는 송나라가 李英宗(Lý Anh Tông, 1136~1175)에게 安南國王의 작봉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안남국이든 교지국이든 다 베트남의 옛날 북부지방에 위치한 나라로 불려왔다. 다만 처음은 베트남 임금의 성격은 郡王을 받다가 이후에 國王으로 승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交趾라는 명칭은 안남인이 만든 것이고 안남이라는 국명은 중국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 10세기 이후의 越·中·韓의 역대 왕조

越	中	韓
Đinh - 丁 (2대) 968~980	北宋 (9대) 960 ~ 1127	高麗 (34대) 918~1392
Tiền Lê - 前黎 (3대) 980~1009		
Lý - 李 (9대) 1009~1225		

123) 김문식, 앞의 연구논문, 2018, 193-221쪽.

124) 『欽定越史通鑑綱目』 卷1. “始分國爲十五部, 曰交趾, 曰朱載, 曰武寧, 曰福祿, 曰越裳, 曰寧海, 曰陽泉, 曰陸海, 曰武定, 曰懷驪, 曰九眞, 曰平文, 曰新興, 曰九德. 其曰文郎王所都也. 其國東夾南海, 西抵巴蜀, 北至洞庭, 南接胡孫.”

Trần - 陳 (13대) 1225~1400	南宋 (9대) 1127~1279	大元 (11대) 1271~1368	
Hồ - 胡 (1대) 1400~1407	大明 (16대) 1368~1644	朝鮮 (26대) 1392~1897	
제4차 北屬 (중국 지배 당함) 1407~1427			
Hậu Lê - 後黎 黎初 - 1428~1527 (10대)			
黎中興 (16대) Trịnh - 鄭 (12대) Nguyễn - 阮 (11대) 1533~1789	Mạc - 莫 (12대) 1527~1677		
Tây Sơn - 西山 (3대) 1778~1802	大清 (11대) 1644~1912		
Nguyễn - 阮 (13대) 1802~1945		大韓帝國 (2대) 1897~1910	

交趾의 의미는 여러 견해가 있었다. 첫째는 옛날 베트남의 북부지방에 水怪인 투아영 루아영(Thuồng lũng)이 나타났다고 하며 중국인의 蛟龍과 비슷하여 교룡이 있는 지역(趾)이라고 해석했다. 둘째는 杜佑가 지은 『通典』에서 “극남의 사람이 이마에다 단청으로 문신을 새기고 엄지발가락이 엇갈리며(雕題交趾), 그 풍속은 남녀 같이 넷물에서 목욕했다”라고 기록했다.<sup>1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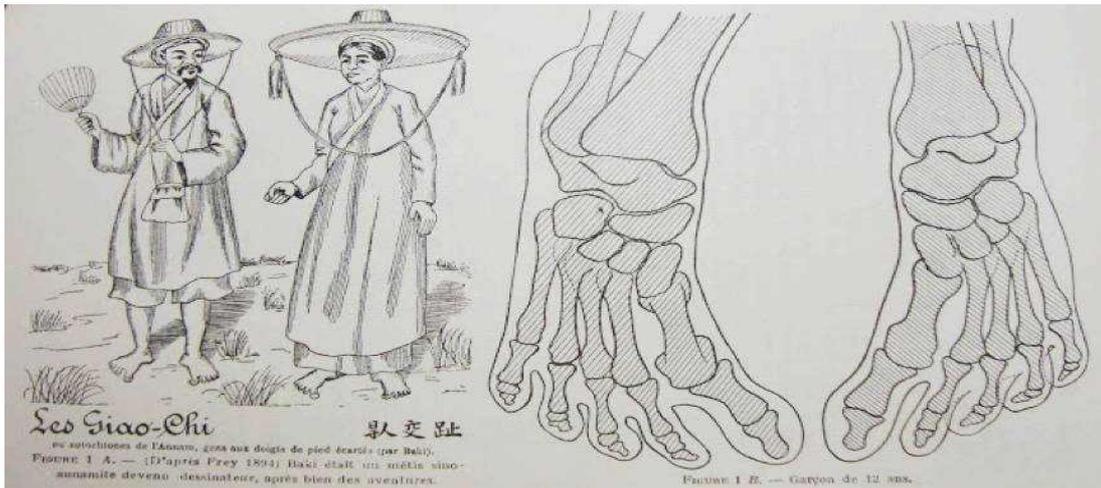


그림 7) 교지인의 엄지발가락이 엇갈린 현상(출처: Théophile Le Grand de la Liraye 프랑스 선교사의 삽화)

125) 『通典』 卷188, 「邊防四」, 南蠻下條. “極南之人, 雕題交趾. 其俗男女同川而浴. (중략) 交趾, 謂足大趾開闊, 並立相交.”

이에 따라 그 지역(趾) 남녀 서로(交) 목욕한다는 점에서 交趾라고 부른 듯하다. 셋째는 같은 『통전』에서 “교지는 말하기를 엄지발가락이 크게 퍼져 서있을 때 서로 엇갈리다”라는 해석이 있었다. 이 해석은 대다수 중국인뿐만 아니라 현대 베트남인도 동의한다. 셋째의 견해를 반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1868년에 Ernest Doudart de Lagrée(두다르 드 라그레)가 지도자로서 이끌었던 메콩 탐험대를 따른 Clovis Thorel(클로비스 토렐)이 안남인의 엄지발가락이 엇갈린 현상을 발견했다. 이런 발견은 둘째의 견해에 논리적인 근거가 보완되었다.

즉, 교지의 “지”자는 趾 또는 阯가 혼용되다가 엄지발가락 엇갈린 현상 인정을 많이 받게 되어 주로 趾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阯가 趾로 변한 것은 曷申(?-?) 이 북경으로 사절단을 따라갔을 때 안남 사신인 黎時舉(Lê Thời Cử, ?-?)를 만나 서로 시문을 수창하면서 언급한 바가 있었다. 따라서 조신은 여시거에게 ‘交趾’가 駢拇(육발)이냐고 물었다. 여시거는 교지가 본래 한 군이고 군의 북쪽에 南交關과 天阯山이 있으므로 군의 이름을 ‘交阯’라고 하였는데, 훗날 사람들이 阯자를 趾자로 잘못 썼다고 한다.<sup>126)</sup>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교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대다수 인정을 받은 견해가 중국뿐만 아니라 근세에 베트남으로 찾아온 서양인들에게 동의되었다. 즉, 베트남 사람이 엄지발가락이 크게 퍼져 있을 때 서로 엇갈린 현상이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은 발가락의 모습에서 유래된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명에서 유래되었고 다만 훗날 사람들이 ‘阯’를 ‘趾’로 잘못 썼다고 한다. 때문에 처음으로 이러한 誤記로 ‘交阯’와 ‘交趾’가 혼용된 이후에 엄지발가락이 엇갈린 현상을 널리 인정받아서 交趾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완벽이 안남국으로 왔을 때 명나라와의 대외적인 정체성은 여씨 왕조의 명분이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여러 세력 일파가 있었다. 여씨 왕은 막씨의 역모를 당한 후에 黎朝의 將士, 臣下들이 부여멸막을 일으켰다. 이 운동을 통하여 당시 라오스에서 피난한 黎氏 왕에게 복위를 시켰다. 부여멸막 이후에 정씨는 북쪽인 동경을 관리하고 완씨는 이전처럼 남쪽으로 가서 순광지방을 관리하였다.

126) 魚叔權, 『稗官雜記』 권2. “交趾豈駢拇之義耶。(중략) 交趾本一郡也。郡之北有南交關天阯山。故名郡以交阯。後誤以阯爲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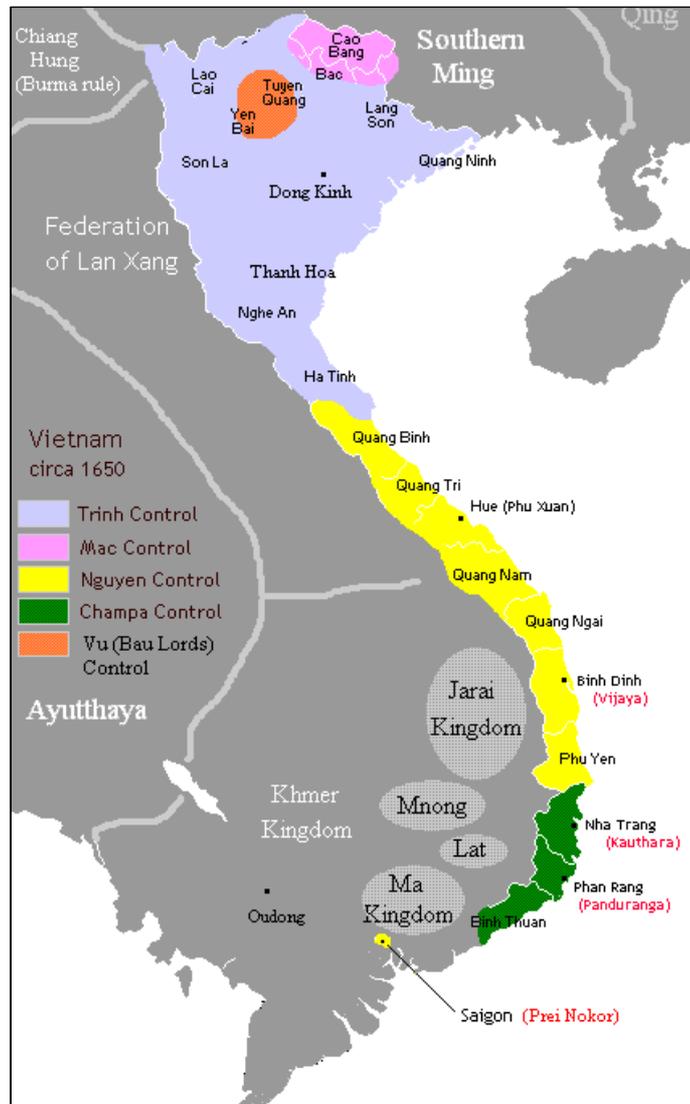


그림 8) 베트남의 1650년 각 일파 분포 지도(출처: 위키백과)

<그림 8>을 보면 안남을 남북으로 두 개의 정권으로 나누어짐에도 불구하고 서북쪽에서 지키는 武氏<sup>127)</sup> 세력도 있었으며 막씨가 남긴 일파도 명나라에 의해 동북에서 피난해 나갔다. 무씨 세력은 정씨, 완씨와 마찬가지로 부여멸막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나 여씨가 복위한 다음에 중앙집권에 따르지 않았다. 막씨는 실패했지만 당시 명나라에 의해 동북쪽인 高平(Cao Bằng)에서 명 멸망까지 지니고 있었다.<sup>128)</sup>

127) 베트남 서북쪽에 있는 宣光(Tuyen Quang)에서 1527~1689년間に 형성되고 지닌 집단이자 扶黎 滅莫 운동에 참가했으나 黎朝 복위한 다음에 중앙집권에 따르지 않았다.

여씨는 막씨에 승리하여 명나라에서 책봉을 청하려고 풍극관을 보냈는데도 명은 여씨에게 막씨처럼 안남국왕이 아닌 종2품 안남도통사로 봉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명나라에서 막씨와 여씨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려고 여씨에게 국왕을 봉하지 않는다는 모양이다. 그러다가 1646년에 이르러서야 南明의 안남국왕 책봉을 받았다. 실제로는 당시 막씨가 고평에서 점거하다가 정씨와 전쟁을 많이 벌였다. 막씨는 무씨와 손을 잡고 여씨정권을 저항하는 반면, 여씨는 정씨와 완씨의 도움으로 막씨와 무씨를 토벌하였다. 때문에 조완벽이 안남으로 갔을 당시 국내에서 전쟁을 벌여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씨와 막씨의 대립관계가 백중지세였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안남국의 정체성을 여씨 왕조로 여기고 물론 당시 여씨 임금인 허수아비노릇을 하고 실제 정권은 정씨가 장악하고 있었다. 일본 사람 또는 유럽상인의 기록에 의하면 鄭主(Chúa Trịnh)의 중앙정권을 東京에 두었으니 東京國이라 여김에 따라 통킹(Tongkin/Tonquin)으로 부르고 있었다. 阮主(Chúa Nguyễn)가 順廣지방으로 와서 기틀을 닦아 세력을 키웠고 외국상인에게 무역허가를 주었다. 외국상인들이 흔히 찾아온 곳이 다낭(Đà Nẵng)하고 회안이다. 이 항구들은 광남성에 있으며 당시 완황의 아들인 완복원이 관할한 지역이다. 이에 완씨가 점거한 지역을 광남국이나 교지차이나국(Cochinchina)이라고 칭했다. 이는 16세기말 이후에 서양인이나 일본인이 그린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동해안에 제일 윗부분에 정주가 장악한 동경국, 즉 조완벽이 말한 안남국이었다. 그 지역 아래의 부분에 적혀있는 Cochinchina 지역은 바로 완주가 관리한 광남국, 즉 조완벽이 말하는 교지국이었다.

교지차이나국(Cochinchina)에 대해서는 당시 안남 사람들은 동경의 별명으로 흔히 ‘Kê Chợ(케처)’라고 부름에 따라 일본상인들이 Coci로 인식되었다. 이후에 유럽상인들이 Cocin라고 하며 인도 동쪽에 있는 Cocin지역과 구별하여 중국 근처의 Cocin이 Cochinchina라고 부르게 되었다. 즉, 당시 안남은 동경과 더불어 교지차이나라고 부르기도 했다. 때문에 당시 그린 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지도를 살펴보면 베트남 북부 지역은 안남(Annam) 또는 동경(Tongking)으로 적혀있는 것도 있고

128) 『歷朝憲章類誌』, 「地理誌」. “辰莫餘孽敬恭奔竄高平, 訴于明懇乞四州安置, 明帝許之, 朝廷姑置不問”, 37쪽.

교지차이(Cochinchina)나로 적혀있는 것도 있었다.

일본식으로는 Cochinchina를 교지지나(交趾支那)로 표기한다. 부여멸막 이후에 阮主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력을 키웠으나 자기의 근본이 동경 사람이라 마음에 새겼다. 때문에 완주에 따른 사람들도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Kê Chq’ 사람이라 칭한다. 따라서 광남국으로 무역하러 온 일본상인들이 “Kê Chq”의 호칭을 받아들여 완주가 관리한 순광지방을 교지지나국 또는 교지국이라고 했다. 이를 살펴보면 당시 안남 사람들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북쪽인 동경에 사는 사람이든지 남쪽인 교지에 사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안남인이라고 한다. 특히 당시 완황이 막부와의 서신을 살펴보면 연호를 그대로 여씨 왕의 연호로 쓰며, 제목을 ‘安南國某職某爵’의 식으로 적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완황이 참칭할 생각이 없었다.<sup>129)</sup>

그러나 1613년에 완황의 아들인 완복원은 제2대 阮主가 되어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일본과의 서신이 ‘安南國主’ 또는 ‘安南國王’으로 쓰게 되었다. 특히 1619년에 기무라 소타로(木村宗太郎)에게 보내준 서신에서 “내 阮家가 나라를 세운 이후에 仁義를 애써 실시했다”라는 내용을<sup>130)</sup> 보면 당시 대외적으로는 완씨가 관할하는 순광지방을 한 나라의 성격으로 보여줬다. 또한 외국상인들이 정주가 관리하는 북쪽과 완주가 관리하는 남쪽으로 찾아갈 때 지방정권에 따라 무역허가를 신청하여야 해서 하나의 나라로 보지 않았다. 때문에 안남과 교지가 나뉘어진 상태는 이방인이 안남의 政局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당시 조완벽을 안남국으로 끌고 간 사람이 웨인이었으니 웨인의 인식에 영향을 받은 조완벽을 통하여 이수광도 인식논리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안남 국내에서는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다는 개념이 鄭阮紛爭(1627~1672) 이후에 나타났을 듯하다. 이 사이에 정씨와 완씨는 총 7차례의 전쟁을 일으켰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는 민간 가요 또는 시문에서 塘外와 塘沖의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 명칭은 정완분쟁 이전에 쓰기도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출신을 소개하는 데 썼을 뿐이었다. 즉, 자기가 북쪽에서 온 사람이

129) 近藤正齋, 『外蕃通書』, 11冊, 安南國書 참조.

130) 大阪府立圖書館(編), 『南方渡海古文獻圖錄』, 昭和18(1943), 36-安南國金札. “安南國殿下兼廣南等處爲立書事 (중략) 我阮家自立國以來務施仁義 遠來近說惠澤均蒙 茲有日本國遣主木宗太郎駕海榮耀.”

塘外 사람이라 칭하는 반면에 남쪽에서 온 사람이 塘冲 사람이라 소개한다. 정완 분쟁을 거쳐 나라가 남북으로 확실히 갈라져서 塘外와 塘冲은 점차 양측 정권의 지역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후자 김태황 일행이 회안으로 표착했을 때 안남국 왕을 알현하였을 때 역시 黎王이 아닌 阮主였다.

당시 조완벽은 일본인에 의해 안남으로 무역하러 갈 지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해서 안남을 하나의 나라로 보지 못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북쪽에서 장악한 정씨정권은 안남국 또는 동경국이고 남쪽에서 점거한 완씨정권은 교지국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완씨가 점거한 순광지방을 교지국이라 부른 일본인은 안남의 고유명칭을 빌려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Cocinchina의 한자차용표기임을 확인했다. 이전에 조선 지식인들이 알던 안남인이 지은 교지국과 달랐다. 이수광은 여씨와 막씨의 정권교체기를 거치고 조완벽이 말한 안남국과 교지국을 융합하여 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조완벽전」을 쓰는 데 안남에서 안남국과 교지국이 둘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있지만 승부가 나지 않는다고 넣었다. 김태황이 안남으로 표착하였을 당시에는 정완분쟁을 거쳐 남북으로 사실상 갈려졌기 때문에 완씨가 국왕이라 칭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한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은 당시 안남의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본다.

## 2. 안남인의 생활문화와 민간풍속

### 1) 안남인의 민간풍속

이수광, 조완벽, 김태황 등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은 안남의 풍속에 주목하였다. 당시 안남인들을 볼 때 눈에 띄게 들어오는 모습이 바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다니는 것이었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중국 영향을 받았고 유교사상이 흡수되었지만 성년 남녀들마저 상투를 틀거나 머리를 풀고 쪽찌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모습은 조선 지식인들에게 색다른 모습이었다. 또 벼슬이 높은 자도 그렇게 맨발로 다닌다고 했다.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인식한 풍속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재검토 해보면 우선, 『嶺南摭怪』<sup>131)</sup>의 「白雉傳」에 의하면 맨발로 다니는 것, 이를 흑칠하는 것, 빈랑을 씹는 것 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었다.

131) 嶺南지방에서 전해 오는 괴이한 이야기를 채택한 서적이며 陳. 왕조 말기에 만들어졌다.

⑱ 주나라 成王 때에는 雄王<sup>132)</sup>이 사신으로 하여금 월상씨라고 칭하며 백치를 주나라에 보내드리라고 한다. 그가 서로 언어를 통하지 않아 주공이 사람으로 하여금 두 번이나 통역한 후에야 서로 말을 통했다. (중략) 주공이 문기를 “교지인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몸에 문신하며,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고 맨발로 다니고 이를 검게 하는 게 어찌하는 건가?”라고 하였으며, 월상씨가 답하기를 “머리를 짧게 자르는 이유는 산림에 가기가 편하다. 몸에 문신하는 게 龍君의 모양이니 강에서 헤엄칠 때 蛟龍이 범하지 않는다. 맨발은 나무에 오르기에 편하다. 화전 농업으로 작업하니 머리를 노출하는 게 염열을 피하기 위함이다. 빈랑을 씹어서 汚穢를 제거하므로 이도 검게 한다.”라고 하였다.<sup>133)</sup>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안남에 蛟龍(Thuồng luồng)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사람들은 몸에 용군같이 문신을 하여 강에서 헤엄칠 때 蛟龍이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이 풍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이씨왕조가 세운 후에 신분에 따라 문신의 모양과 문신 위치를 제한하게 되었다.<sup>134)</sup> 진씨 왕조 초기에 와서 국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왕으로부터 천민층에 이르기까지 제한없이 문신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陳英宗(Trần Anh Tông, 1276~1320)이 문신을 피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문신하는 풍속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sup>135)</sup> 특히 胡氏 왕조시대는 문신한 사람이 대부분 죄인이라 문신이 문화적·정신적 의미가 사라져 이때부터는 문신 풍속의 끝이었다. 때문에 조완벽이 안남으로 왔을 때 안남 사람들은 이 풍속을 행하지 않아 그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당시 이수광은 풍극관과 시문을 창수할 때 백치전을 인용한 적이 있었기에 이 풍속들이 안남 고대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본다.

또한 맨발로 다니는 게 응왕시대부터 나타났으나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치지 않는 데에 반해 머리를 짧게 잘랐다. 이는 陳氏 왕조시대의 기록화인 「竹林大士出

132) 베트남 최초로 세운 국가인 文郎國 시기에 국왕의 칭이다.

133) 『嶺南撫怪』, 卷1, 「白雉傳」. “周成王時, 雄王命其臣稱越裳氏, 獻白雉於周. 其言語不通, 周公使人重譯, 然後相通. (중략) 周公問曰: ‘交趾短髮文身, 露頭跣足黑齒, 何由若是也?’ 越裳氏應曰: ‘短髮以便山林之入. 文身以爲龍君之形, 游泳於河, 蛟龍不犯. 跣足以便緣木. 刀耕火種, 露頭以避炎熱. 食檳榔以除汚穢, 故黑齒.’” (연구자 번역)

134) 『대일사기전서』 本紀全書 권3, 「李紀八」. 戊戌 會祥大慶9年: “禁京城內外諸人家奴僕 不得刺黑胸脚如禁軍樣 及刺龍文於身上 犯者沒官.”

135) 『대일사기전서』 本紀전서 권6, 「陳紀二」, 己亥 興隆7年. “時文刺工已俟命官門外 帝伺上皇他顧 卽回重華宮 良久上皇問官家何在 左右對曰 已回重華宮矣. 上皇曰 官家已遁耶 則文刺惠武國瑱. 國父髀間 有龍梭之刺. 是後嗣皇無文髀 由英宗始.”

山圖」<sup>136)</sup>를 살펴보면 이 시대에 이르러서도 단발이었으며, 맨발로 다니는 풍속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평민들만 맨발로 다니며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을 신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黎氏 왕조에 이르러서는 단발이 되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형태로 바꾸기 시작된 시기로 보인다. 이수광이 두 번째로 연경으로 가서 만난 풍극관과 이전에 만난 안남 사신의 모습이 변화된 것에 대해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sup>137)</sup>



그림 9) 16세기말(좌)과 18세기(우)의 안남인 모습(출처: 좌측 The Boxer Codex (1590), 우측 『皇清職貢圖』의 安南人)

이수광의 「조완벽전」에 서술한 벼슬이 높은 사람들도 맨발로 다니는 것이 혹시 평소 모습이나 지방 관리라서 그런 모습으로 다닌 듯하다. 또는 당시 막씨와

136) 작가 미상, 죽림대사(陳仁宗)가 武林洞에서 나오는 장면을 그린 기록화이다. 현재 심양시 遼寧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137) 이수광, 『지봉유설』 권2, 「저국부」 外國條. “再遇其國使臣。涅齒被髮。頗解文字。言語用合口聲。所謂雀目昂喙似矣。但皆被髮。與古剪髮異矣。”

의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되지 않고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아 다들 그런 모습으로 다닌 것으로 보인다. 조완벽 뒤에 회안으로 표착했던 김태황이 귀인들이 신발을 종종 신었으며 오직 부인과 귀인만이 신발을 신었기 때문이다.<sup>138)</sup> 또한 18세기 청나라 乾隆帝 때 그린 『皇清職貢圖』에 의하면 高官과 貴家 사람들은 신을 신고 다니는 반면에 빈가 사람들의 경우는 맨발로 다닌다는 설명이 실려 있다.<sup>139)</sup>

앞의 <그림 9>를 보면 1590년에 교지인(동경인)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다니는 반면에 18세기 건륭제 때 안남인은 아직 머리를 풀어헤치는 상태였으나 이때 빈가 또는 평민들만 맨발로 다닌다고 했다. 관원 복식을 보면 조선 복식과 착각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안남에서 조선과 마찬가지로 명의 복식 제도가 잘 흡수되었다. 또 <그림 10>에서와 같이 金正中(?~1793)은 청 조정에서 안남 사신을 만났을 때 안남 사람이 상투를 틀며 망건을 쓴 모습을 보니까 조선과 같다고 전했다.<sup>140)</sup> 양국의 관원 복식 제도는 거의 같았으나 복색과 사모만 달랐다는 것은 1761년에 그려진 「萬國來朝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18세기 조선 관원(좌) 및 안남 관원(우)(출처: 「萬國來朝圖」, 北京古宮博物館 所藏)

138) 송정규, 『해외문견록』, 「기안남표환인사」. “芭蕉最多, 大者圍可一抱, 高數丈, 其絲可織布, 或爲索或織履, 貴人往往着之. (중략) 有婦人及貴人或着鞋.”

139) 『황청직공도』, 「安南夷人」. “男子戴大帽形如覆鉢 長領大衣 手特蕉扇曳履 貧者則短衣赤足.”

140) 金正中, 『燕行錄』, 「燕行日記」, 壬子年 正月 初一日. “高髻網巾. 朝袍角帶. 與我國恰似. 且所着帽. 謂之文公冠.”

앞의 <그림 7>에 의하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평민들이 여전히 맨발로 다니는 풍습이 전해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조완벽이 안남으로 왔을 때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맨발로 다니다가 ‘禮義生于富足(사람은 부유해지면 자연히 예의를 지킨다)’라는 말처럼 점차 사회를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빈부격차가 생겨서 귀족들만 신발을 신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수광이 2차례를 거쳐 만났던 두 안남 사신의 걸모습을 저술한 것으로 안남 사람들이 16세기 말에 단발머리를 긴 머리로 바꾸고 머리를 풀어헤치기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검게 하고 빈랑을 씹는 풍속은 문신하는 것과 동일하게 베트남 사람의 상고시대에 등장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淸化 지역 núi Náp(납산)에 발굴된 1700~3000년 전의 치아를 현미경으로 보면 빨간색 흔적과 마찰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빈랑 속에 있는 화학물질과 비슷한 것이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東山文化<sup>141)</sup> 시기부터 이를 검게 하고 빈랑을 씹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추정한다.<sup>142)</sup> 문신 풍속은 陳英宗이 즉위할 때가 문신을 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라졌으나 빈랑을 씹는 풍속은 현대까지도 전해왔다. 왜 그렇게 긴 시간동안 다른 문화처럼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해올 수 있었을까? 베트남 사람이 혼인할 때 혼수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빈랑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영남척괴』의 「빈랑전」을 살펴봐야 한다.

①9 7, 8월간에 더운 날씨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雄王이 巡行할 때 피서하려고 사당 앞에서 자주 쉬었다. 나무와 나뭇잎이 긴밀하고 등나무도 가득 찬 것을 보았다. 왕이 물어 그 이야기를 알게 되어 한참 탄식했다. 왕은 신하로 하여금 나무의 열매와 등나뭇잎을 따라고 하며 그 탄 것을 직접 씹어 바위 위에 뱉으니 그곳이 빨개졌고 꽃다운 향내가 생긴다. 이어서 석회를 불살라 모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맛이였다. 입술과 뺨이 빨개졌음을 알게 되어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각 장수로 하여금 재배하도록 하라고 한다. 이는 바로 빈랑, 美蓄葉(베틀후춧잎)과 석회이다. 이후에는 무릇 南國에서 혼인할 때,

141) 기원전 800년에 베트남 북부지방과 북중부지방에 나타났던 고대문화 시기이다.

142) Thomas J. Zumbroich, 「The origin and diffusion of betel chewing: a synthesis of evidence from South Asia, Southeast Asia and beyond」, eJournal of Indian Medicine Volume 1 (2007 - 2008), p.103.

모일 때 등의 작고 큰 행사를 진행할 때 이를 먼저 앞둔다. 이때부터 빈랑을 씹는 것이 시작되었다.<sup>143)</sup>

위의 이야기에 보듯이 주인공인 高氏(高檳과 高棚) 형제의 이름을 비롯한 그 나무를 빈랑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빈랑에 대한 이야기는 지방에 따라 구전해 온 여러 가지 異本이 있으나 대개 혼인의 상징물 중의 하나라고 여긴다. 위의 「빈랑전」뿐만 아니라 『안남지략』<sup>144)</sup>의 풍속조에 의하면 혼인할 때 혼수 중의 하나이며 모임이나 빈객방문 때 빈랑을 먼저 해놓고 빈객들에게 대접하는 베트남 사람의 국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45)</sup> 또한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는 빈랑을 쉽게 볼 수 없지만 빈랑에 관련된 속담이 있는데 “화제 머리말에 빈랑이 있다(Miếng trầu là đầu câu truyện)”라는 말이 있다. 이를 보니까 현재 빈랑을 농촌노인들만 씹지만 혼인할 때 꼭 있어야 하고 빈랑은 베트남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은 의미를 담긴 것이라고 여긴다.

김태황이 회안에서 살면서 안남 사람들이 강물이나 냇물을 마시는데 독이 많아 빈랑을 씹어 먹어 독을 제거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가 검었다고 한다. 따라서 안남 사람들은 오염된 강물과 냇물을 먹기 때문에 빈랑을 씹어야 해서 이도 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빈랑을 오랫동안 씹으면 이가 검게 되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에게 빈랑을 씹는 것과 이를 검게 하는 것은 병행풍속이라 인정받았다. 그러나 빈랑씹기와 흑치는 서로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같은 빈랑씹는 풍속도 있지만 이가 검지 않기 때문이다.<sup>146)</sup>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가 10살이 되면 젓니를 모두 갈았을 때 이를 검게 하기 시작한다. 남자는 한 번만 하며 여자는 여러 차례를 한다. 이는 옛날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살필 때 흑치가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기준은 베트남 민간 민요 또는 시문에서 많이 추출할 수 있다.

143) 『영남척괴』, 권1, 「檳榔傳」. “七八月間, 暑氣未除, 雄王巡行, 常駐蹕避暑祠前, 見樹葉繁密, 藤葉彌蔓. 王問而知之, 嗟嘆良久, 命人將樹果, 採藤葉, 親咬之, 睡於石上, 其色生紅, 氣芬芳. 乃燒石灰合一而食, 最爲佳味. 唇頰紅色, 知爲物重. 乃取而歸, 令各將種植, 今即檳榔, 美留葉及石灰是也. 後凡南國娶會同大小之禮, 以此爲先. 此檳榔所由始也.” (연구자 번역)

144) 14세기 黎崩이 상고시대부터 當代에 이르기까지 안남의 역사, 지리, 문화, 풍속에 대해 지은 서적이다.

145) 黎崩, 『安南志略』, 風俗條. “待客以檳榔 (중략) 婚娶禮, 春月媒氏奉檳榔匣詣女家, 通問成財物.”

146) Đào Duy Anh, 앞의 책, 1938 ( tái bản 2021), 182쪽.

Lấy chồng cho đáng tấm chồng  
Bổ công trang điểm má hồng răng đen

시집에 갈 만한 남편을 얻자  
연지와 흑치를 잘 했으니까<sup>147)</sup>

이상의 베트남 민간 가요를 살펴보면 여자 아름다움의 기준은 뺨에 연지를 붉게 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검게 잘 하는 것도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서양 문화가 베트남 사회에 깊이 침투하므로 20세기에 이르러서 黑齒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를 검게 하는 풍속이 없어지면서도 빈랑을 씹는 풍속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적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없고 농촌에서 노인들만 빈랑을 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안남의 풍속에 대해서는 가장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바로 이수광이다. 이수광은 이미 외국에 대한 지식을 중국에서 들어온 서책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안남 사신 풍극관과의 교류로 자신의 안남 지식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정보들과 더불어 얻게 되었다. 또한 사절단과 50일간 같이 생활하는 동안 안남인의 고유문화인 이를 검게 하는 것과 맨발로 다니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막씨 사신과 여씨 사신을 만난 후에 안남에서 고유문화인 단발머리에서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는 새로운 풍속으로 바뀐 것을 발견하였다. 나중에 조완벽의 방문담을 들은 이수광은 안남인이 빈랑을 씹는 풍속을 다시 체계화하고 남쪽 사람들이 빈랑을 씹는 풍속으로 인식하였다. 즉, 안남과 조선은 같은 유교문화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김태황 일행은 안남인이 빈랑씹기와 흑치의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는데 이수광과 조완벽의 안남 인식과 비교해 보면 김태황 일행은 안남 풍속인 빈랑씹기와 흑치를 잘못 인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2) 안남인의 생활문화 및 특산물

당시 안남인의 생활문화를 전해 온 조완벽은 우선 온대지방에 있는 조선과 달리 열대지방에 속한 안남의 기후가 매우 따뜻하여 2, 3월에도 수박이나 참외 등의 생산물이 있었고 논을 갈고 벼를 심는 것은 일정한 때가 없다고 하여 조선의

147) Dường Quảng Hàm, 『Việt Nam thi văn hợp tuyển』, Trung tâm Học liệu xuất bản, Sài Gòn, 1968, tr.246-249.

이모작과 달리 삼모작 또는 다기작으로 인정한 주장이 있었다.<sup>148)</sup> 그러나 앞에서 베트남의 사료에 의해 안남에서는 확실히 이모작이고 벼의 종류가 많을 뿐이었다. 이 점으로 보아 당시 조완벽을 안남 벼의 종류를 잘 모르며, 비록 안남으로 3차례로 방문했지만 해마다 같은 시점에 안남에서 체류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삼모작으로 보아 전해 주었을 듯하다.

조완벽과 달리는 김태황이 회안에서 머무를 때 조선과 마찬가지로 안남에서도 이모작을 한다고 했다. 김태황이 당시 체류했던 회안지방이 조완벽이 방문한 흥원현에 비해 기후가 따뜻한데도 삼모작이 아닌 이모작밖에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김태황이 회안에서 한 10개월 정도 살았던 점에서 짧은 기간을 체류한 조완벽보다 안남의 벼농사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수광은 안남 사신인 풍극관과 문답할 때 안남에서 일 년에 두 번 익는 벼가 있다는 것이 맞다는 답을 받았다.<sup>149)</sup> 이수광은 이미 안남의 이모작을 알고 있으나 안남에서 삼모작이 가능하다는 조완벽의 방문담을 들었다. 조완벽이 안남의 농경광경을 직접 목격했으니 이수광은 그의 방문담을 믿을 만한 것을 판단하였을 듯하다. 때문에 조완벽이 전한 안남농경의 삼모작을 하는 광경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확실한 안남의 벼농사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수광이 쓴 「조완벽전」에서는 조완벽의 주관적인 판단이 담긴 그의 방문담을 그대로 다시 서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완벽이 전해줬던 것은 그 지방 사람들이 배만 채울 정도로 먹는다고 했다. 안남인들이 이렇게 벼를 많이 경작할 수 있는 데에 반해 넉넉하게 먹지 않고 배를 채울 정도로만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중부지방은 해마다 폭풍으로 인한 홍수나 산사태가 수십 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음식을 아껴서 먹고 남은 것을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조선의 김장과 비슷한데 조선은 긴 겨울동안 채소를 기르지 못하여 가을에 수확한 채소를 김장을 담그는 풍습이 있었다. 이 김장은 긴 겨울동안 채소를 충분히 먹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안남 사람들도

148) 남미혜, 앞의 연구논문, 2016, 217쪽; 김문식, 앞의 연구논문, 2018, 204쪽. 재인용

149) 이수광, 『지봉집』 권8,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문답. “問. 貴國有再熟之稻. 八蠶之絲. 信否. 答曰. 歲有再熟之稻麥. 有八蠶之絲麻.”

담그거나 말린 음식들을 많이 만들었다. 음식이 많아도 해마다 재앙으로 인해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남 사람들이 생선이나 고기를 담그거나 말려 오래도록 먹을 수 있게 하였다.

이수광이 쓴 『조완벽전』에 의해 안남 날씨는 낮에 덥고 밤에 서늘하며, 바닷가가 있지만 해산물이 풍부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뽕나무, 목화, 여지, 꿀, 호추, 빈랑, 사탕수수 등의 특산물이 있다고 하였다. 『大南一統志』의 「土産」을 살펴보면 확실히 해산물이 풍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새우가 있는데 주로 젓갈로 만들며, 바닷가에 있어 소금생산이 가능하고 그 외에 굴도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완벽이 언급한 것들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공작, 코끼리, 앵무새, 흰평, 자고새 등을 확인할 수 있다.<sup>150)</sup> 특히, 코끼리는 라오스 지역에서만 나온다는 점을 보아 당시 안남에 있는 코끼리들은 라오스에서 끌여온다고 판단했을 듯하다. 실제로는 상고시대를 거슬러 베트남 고대인들이 그때부터 코끼리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반하거나 말처럼 탔다. 전쟁할 때도 없으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였다. 때문에 안남에서도 코끼리가 있었으나 라오스보다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기록화의 「竹林大士出山圖」를 보면 당시 진씨왕조 사람들이 말 대신에 일상생활에서 코끼리로 물건을 운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1) 죽림대사출산도 일부(출처: 中國 瀋陽市 遼寧博物館 所藏)

150) 『대남일통지』, 권14 乂安省 下, 「土産」.

이수광이 「조완벽전」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지식도 몇 부분을 더욱 이해하도록 주석을 두었다. 이는 안남에 水牛가 있는데 五代史에 따라 占城에 외뿔들소(水兕)가 있어 물소가 외뿔들소인 듯하고 했다.<sup>151)</sup> 이수광의 주석을 보면 조완벽의 말만 듣고 물소의 생김새와 외뿔들소의 생김새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외뿔들소는 야생 동물이고 물소는 가축으로 길러 농사에 이용하는 점으로 보아 확실히 다른 동물이며 물론 물소의 뿔도 가치가 있는 물품이었다. 물소는 베트남 사람의 농사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베트남 농촌 어디서나 볼 수 있다. 2003년에 베트남에서 개최한 제22회 동남아시아 경기 대회에는 베트남의 농경사회를 대표한 황금물소를 상징동물로 등장했다.

김태황의 표류담에도 안남에서 물소를 가축으로 기르며 그 뿔을 흑각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를 보니까 조완벽과 김태황 일행은 물소가 동일한 동물임을 알고 있었다. 이수광이 주장한 물소가 점성에서 나온 수시와 동일한 동물이 잘못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완벽과 김태황처럼 안남으로 직접 가서 견문할 수 있는 체험이 없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를 본다면 각자의 경험에 따라 자신의 안남 인식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이 이해한 안남의 민간풍속과 생활문화를 파악하는 것은 안남 역사상과 이수광·조완벽·김태황 등의 안남 인식을 담은 기록들을 서로 비교할 때 분명해진다.

### 3. 조선 지식인의 안남 문화상 이해

#### 1) 고유문화 변화

이수광이 막씨정권의 사신과 여씨정권의 사신을 두 번 만난 당시에 안남 사람이 단발머리에서 긴 머리로 전환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안남에서 처음 단발머리를 금지하는 것은 명나라 지배 하의 동화정책으로 인한 결과였다. 호씨왕조가 짧은 치세를 지니고 명나라에 의해 멸망되었으므로써 제4차 北

151) 이수광, 『지봉집』, 권23, 「조완벽전」, “有水牛形如野豬。色蒼黑。人家畜養。作耕或屠食。以日氣熱。故晝則牛盡入水。日沒後方出。其角甚大。卽今黑角。倭奴貿取以來。五代史雲占城有水兕。所謂水牛。疑卽兕也。”

屬시기에 진입되었다. 명나라가 안남 사람들에게 머리를 자르는 것을 금지하고 여자들은 짧은 옷과 치마를 입도록 하여 중국풍속과 비슷해졌다고 한다.<sup>152)</sup> 吳士連(Ngô Sĩ Liên, 1400~1498)은 『대월사기전서』를 편찬하는 데에 명나라의 동화정책을 논한 바가 있다. 명나라 20여 년간의 지배하에 안남 풍속이 점차 긴 머리와 흰 이빨로 바뀌었고 북방 사람이 되었다고 감탄했다.<sup>153)</sup> 이를 볼 때 단발머리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해 黑齒가 白齒로 바뀌기도 하였다.

黎利(Lê Lợi, 1385~1433)가 명나라를 물리쳐 왕조가 일으켜 안남 풍속이 다시 회복되었다. 뿐만 아니라 黎太宗대에는 안남에서 사는 명나라 사람들에게 안남 복식을 입고 단발머리를 따라하라고 명을 내렸다.<sup>154)</sup> 이에 여씨왕조 국초에는 안남 사람들이 이전과 같이 단발머리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긴 머리로 바뀌었을까? 이는 역시 黎聖宗대에 유교의 통치이념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제 유교적 교훈과 도덕을 받아들이며 시작되었다.

黎聖宗 弘德元年(1470)에 유교의 삼년상을 정한 후에 백성들에게 승려가 아니면 삭발을 금지한다.<sup>155)</sup> 삭발은 단발머리 중의 하나이며 陳氏왕조 때 유행해 왔고 명나라 黃福에 의해 머리를 자르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하였다.<sup>156)</sup> 이는 李氏왕조와 陳氏왕조의 불교숭상을 억제하려는 黎聖宗의 노력임을 보여준다. 1479년(弘德 10)에 益蠻[라오스]을 정벌한다는 조서에서 ‘삭발금지’에 대한 이유는 역시 유교이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예전에 益蠻을 정벌한 후에 그들에게 죄를 면했는데 이제 안남왕의 은혜를 품지 않으며 계속 오만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특히, 불교숭상으로 자신의 몸과 머리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sup>157)</sup> 여기에서 몸과 머리를 훼손시키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유교이념의 “몸과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身體髮膚, 受之父母)”이라고 하니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152) 『대월사기전서』 본기전서 권9, 「屬明紀」, 甲午 永樂十二年. “明禁男女不許剪髮。婦女穿短衣長裙。化成北俗。”

153) 『대월사기전서』 본기속록 권1, 「黎紀一」, 丁未 善德二年. “二十餘年 變風俗於長髮白齒 胥爲北人矣。嗚呼爲亂之極 一至是哉。”

154) 『대월사기전서』 본기속록 권2, 「黎紀二」, 丁巳 紹平四年. “令明人着南人衣服斷髮。”

155) 『대월사기전서』 본기속록 권3, 「黎紀三」, 庚寅 鴻德元年. “禁非僧類不得削髮。”

156) 黎貴敦, 『見聞小錄』, 권2, 體例上. “陳辰國中皆削髮 故元陳剛中使交州詩集註云: ‘男子悉髡 有官則以青巾幕之 民悉僧也.’ 至明黃福 始禁髡髮。”

157) 『대월사기전서』 본기속록 권3, 「黎紀三」, 己亥 鴻德十年. “朕憫一方之生聚 寬萬死之罪僭 置郡縣而旬彼疆 易衣裳而靡我爵。頑冥木石 孤負乾坤 縱溪堅之貪饕 倒冠履之名分 恣殺戮則盜弄威柄 擅財則販鬻民田 溺利門則毀其髮膚 逞禽行則淫於女媧。”

것이 효의 시작(不敢毀傷, 孝之始也)”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안남 사람이 단발머리에서 긴 머리로 정착한 전환기는 黎聖宗대 즉 黎初시기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수광이 막씨 사신과 여씨 사신을 만나서 이 두 사신의 차이가 단 하나인 단발머리와 긴 머리였다고 한다. 이는 여초시기 黎聖宗대에 송유정책에 많이 기울였으며 극도로 도달하였으나 그 후에 막씨는 역모로 왕위를 찬탈한 후에 지속적으로 유교의 지배이념을 확정하였으나 불교와 기타 종교와 민속신앙 등을 배척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때문에 막씨왕조에는 불교가 다시 진흥되면서 전쟁 중에 훼손된 사찰들을 복원하거나 중수하였다.<sup>158)</sup> 그러므로 당시 안남 사람들은 불교를 다시 숭상하면서 이전의 단발머리의 풍속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수광이 살았을 당시는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나아가는 격동기이며 조선 사회도 전반적으로 많이 변화하였다. 조선은 국초부터 성리학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제도를 母法으로 삼았다. 태종대에는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으면서 원래 조선이 郡王爵에 해당된 七章服을 하사할 것이 마땅하나, 명 황제가 조선을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기에 親王爵에 해당된 九章服을 하사하였다.<sup>159)</sup> 세종대에는 왕의 관복인 翼善冠服(袞龍袍)을 청하려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처음으로 四爪龍服을 하사하였으나 이후에 五爪龍服을 승격하여 반사하였다.<sup>160)</sup> 조선은 이렇게 명나라의 문명을 받아들여 당시 명나라 사람들이 조선이 小中華라고 불렀을 만큼 중국문화를 깊이 배우고 따라하였던 것으로 본다.

명나라를 세계의 중심에 두고 여러 국가의 조공을 요구하는 ‘화이체제’로 인한 외국은 모두가 오랑캐에 불과했다. 조선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나라보다 중국문명이 잘 흡수되어 조선의 문화 수준이 높은 점에서 명나라 사람들이 인정하였다. 때문에 조선인들은 자기 나라가 소중화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중국문명 또는 성리학에 어긋난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조선중기까지만 해도 삼국시대로부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귀를 뚫어 귀고리를 달았다는 풍습이 이어져 있었다. 세종대에는 금은 사용 금지에 대해서

158) Nguyễn Doãn Tuân, Nguyễn Tuyết Anh, 「Nghĩ về vương triều Mạc và Thăng Long thuở ấy」, 『Di sản văn hóa phi vật thể』 số 4, 2010, p.45.

159)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2월 26일 기묘조.

160) 『세종실록』 권125, 세종 31년 9월 2일 기묘조.

사대부 자손들의 귀고리를 제외한다는<sup>161)</sup> 점에서 사대부 남자들은 금은 귀고리가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종을 왕위에 추대한 반정세력은 연산군의 아들들인 폐세자 이황, 창녕대군, 양평군, 이돈수 등을 죽여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중종은 그들이 나이가 어리니 큰일을 할 수 없어 반대했으면서도 결국 반정세력의 주장을 윤택하였다.<sup>162)</sup> 양평군을 추적하는 와중에 萬孫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양평군이라 모명했으나 李蓀이 양평군의 외모에 의해 그가 양평군이 아니라고 밝혔다.

⑳ 이 사람은 결코 양평군이 아닙니다. 양평군의 유모·보모 및 사정을 아는 종들에게 보인즉 모두들 ‘양평군은 얼굴이 희고 코가 얽었으며 귀고리 썬 구멍이 넓고 크다.’ 하는데, 이 사람은 얼굴이 검고 귀고리 구멍도 없으며 코도 얽지 않았으니, 양평군이 아님이 분명한데, 萬孫은 유모·보모 및 종들을 가리키며 ‘이는 모두 내가 지난 날에 보던 사람이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 장년이니 법에 의해 단단히 가두고 형추하소서. 그런 뒤에야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sup>163)</sup>

위의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만손이 양평군이 아니라는 증거는 바로 귀고리 구멍이다. 이에 조선 사대부뿐만 아니라 실제 왕실에서도 이러한 풍속을 따라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31년(중종 26)에 귀고리를 한 어린 아이 시체 발견에 대한 기사로<sup>164)</sup> 조선중기까지 왕실로부터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남자들이 귀고리를 다는 풍속이 조선사회에 전반적인 문화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조대에 이르러서는 조선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유교의 지배이념이 되었을 정도로 이제 유교이념이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배척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귀고리를 달면 무조건 귀를 뚫어야 하니 몸을 손상시키는 일이 유교의 효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명나라가 귀고리를 다는 풍속을 멸시하여 오랑캐의 짓이라 하여 조선인들은 소중화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금지대상이 되었다.

161) 『세종실록』 권3, 세종 1년 1월 6일 신해조.

162)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24일 경자조.

163) 『중종실록』 권17, 중종 8년 1월 7일 정축조. “此人決非陽平君也。以其陽平君乳、保母及事知婢子視之，則皆言，‘陽平君面白鼻麻。耳環穴闊大。此則面黑耳無環穴，鼻不麻，非眞陽平君明矣。而萬孫則指乳、保母及婢子等曰：‘此皆我舊時所見也。’此人年壯，請依法堅囚刑推，然後可以得情矣。”  
"傳曰：'萬孫姑勿刑推，詳盡盤問以啓。'"

164) 『중종실록』 권70, 중종 26년 1월 28일 계축조.

② 신체발부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남아들이 귀를 뚫고 귀고리를 달아 중국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이후로는 오랑캐의 풍속을 일체 고치도록 중외에 알아들도록 하라. 서울은 이달을 기한으로 하되 혹 꺼리어 따르지 않는 자는 헌부가 엄하게 벌을 주도록 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라.<sup>165)</sup>

이상 전교는 1572년(선조 5)에 본격적으로 전국 백성들에게 귀고리를 다는 풍속을 금지하였다. 조선 남자들에게 이 풍속을 점차 행하지 않고 사라지면서 여성들에게도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귀를 뚫어 다는 귀고리를 대신하여 귀에다 걸 수 있는 귀걸이를 쓰기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한 조선 여성의 귀걸이의 특색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귀걸이는 귀를 뚫은 구멍에다 걸지는 않고 이제 귀에다 끼기에 主環(달거나 끼는 부분)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선사회의 변화를 겪은 이수광이 막씨정권의 사신과 여씨정권의 사신을 두 번 만난 당시에 안남 사람이 단발머리에서 긴 머리로 전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조선과 마찬가지로 안남의 고유문화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으로 본다. 나아가 당시 이수광과 같은 조선 지식인들은 중화문명의 수준으로 조선에 미치지 못한 안남이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때문에 안남인이 단발머리에서 긴 머리로 바뀐 것을 역시 중화문명 또는 유교의 효도를 따라하는 노력으로 이해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 2) 안남의 여성 문화

당시 조완벽과 김태황 일행은 안남에서 지내면서 안남 여성 문화를 목격하면서 깊은 인상을 기억에 남겼다. 따라서 조선과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한 안남 여성이 조선 여성과 달리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고 상행위에 진출이 가능한 점이 색다른 모습이었다. 즉, 여성은 사회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교의 전통질서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활동과 자유로운 사회진출이 가능한

165) 『선조실록』 권6, 5년 9월 28일 신해조.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我國大小男兒, 必貫穿其耳, 作環珥而懸之, 取譏於中國, 亦可羞愧。自今後, 一切痛革胡習, 曉諭中外。京中則限今月, 其或憚不即從者, 憲府嚴加懲罪, 以此捧承傳可也。”

안남 여성이 17, 8세기에 안남으로 방문한 유럽인들에게 몹시 인상적이었던 모양으로 그들은 이를 이슬람 여인이나 중국 不自由와 비교한 바가 있다.<sup>166)</sup>

앞의 <표 3>을 살펴보면 제4차 北屬에서 벗어난 후에 여씨왕조가 설립하면서 전대 왕조인 李氏와 陳씨의 서적, 법전 등을 전쟁 중에 명군이 소멸시켰다. 때문에 여씨가 건국 직후에 형률을 편찬하는 데 중국의 법전을 많이 참조하였다. 중국 사회에서 지배하는 유교이념을 여씨왕조의 법전에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남 사회에서 이미 불교숭상에서 유교이념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중국식으로 행하지 않고 안남식으로 조율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앞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안남 여성의 사회적 위상은 법전에도 상당한 위치를 인정하였다. 여씨왕조가 편찬한 『國朝刑律』<sup>167)</sup>를 살펴보고자 한다.

- ② 무릇 남편이 5개월 동안 아내를 두고 가는 경우, 만약 자녀가 있으면 1년 동안 아내를 두고 가는 경우는 아내가 소재 관아와 社官에게 이혼하려고 청할 수 있다. 다만 그 남편이 관직으로 떠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않는다.<sup>168)</sup>

유교사회에서의 여성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청할 수 없는 반면에 남성은 ‘七出之條’를 이용하여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여성을 보호하는 법인 ‘三不去’가 있는데 남성의 7개 조건에 비해 여성의 3개 조건이 반만 못하는 불공평한 모습이다. 그리고 ‘삼불거’는 단지 남편이 요청하는 이혼을 막는 법이고 사실상 아내가 이혼을 요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男尊女卑’라는 유교이념으로 여성은 낮은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본다. 유교사회에서의 혼인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 반면에 사회진출이 가능한 안남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 婚前의 안남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부모가 딸의 결정에 깊이 간섭할 수 없다.<sup>169)</sup> ③의 조항을 살펴보면 당시 안남 여성이 일방적으로 이혼

166) 유인선, 「월남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아세아연구』 2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1982, 172쪽.

167) 『國朝刑律』: 『黎朝刑律』이라 부르기도 하며 黎氏왕조 시대의 법전이다. 黎太祖부터 시작하여 黎聖宗 鴻德연간에 이르기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흔히 『鴻德律』이라 하기도 한다. 이 법전에서 당대의 200여조와 명나라의 17조를 모방하여 편찬했으나 안남풍속에 따라 조율하여 시행한다.

168) Nguyễn Quyết Thắng, 『Lê Triều Hình Luật』, NXB Văn Hóa - TT, 1997, 171쪽.

169) Phạm Ngọc Hường, 「Địa vị của người phụ nữ trong xã hội phong kiến Việt Nam (một nghiên cứu qua luật Hồng Đức và luật Gia Long)」, Tạp chí Khoa học Xã hội số 10, 2013, 16쪽.

을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혼인대상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남 여성이 다른 나라의 여성에 비해 한층 높은 것을 보여준다.

또한 유교사회에서 수용되는 가부장제도는 집안의 모든 권리가 남자에게 예속한다. 여자는 ‘三從’의 도를 지키며 집에서는 아버지를 섬기고, 시집을 가면 남편을 섬기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섬기는 윤리를 따라야 한다. 또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준다. 형이 죽으면 아우에게 물려준다(父死子繼, 兄亡弟及)’라는 유교이념으로 여성의 권리는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본다. 심지어, 안남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사회에 유교이념이 깊이 침투하므로 ‘형의 권이 아버지를 대체한다(Quyền huynh thế phụ, 權兄替父)’라는 변이 개념이 생겼다. 즉, 아버지가 죽으면 형이 집에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여씨왕조에서 사는 여성이 어느 정도로 남성과 비슷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 ㉓ 제사계승자는 장자가 있으면 그 장자를 제사계승자로 삼는다. 장자가 없는 경우는 장녀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그香火에 대한 전토의 20분의 1을 받을 수 있다.<sup>170)</sup>

유교사회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사계승자는 남자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아들이 없을 경우는 입후를 정해서 제사계승자로 삼는 법이다. 그러나 ㉔의 조항에 따라 장남이 없으면 장녀를 제사계승자로 삼을 수 있으며 향화전토를 받을 수도 있다. 한 집에서 남자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법이지만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Vô nam dụng nữ(無男用女, 아들이 없으면 딸이 행한다)”라는 속담의 증빙으로 당시 안남 여성의 지위뿐만 아니라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남자보다 여자를 더욱 중하게 여겼다. 이는 김태황 일행의 고상영이 회안에서 살다가 조선으로 돌아와서 전하는 안남의 풍습으로는 “남자가 천하고 여자가 귀하다”라고 하였다.<sup>171)</sup>

黎氏왕조 시대에 문무관원과 더불어 궁중에서 女官을 두기도 하였다. 이는 조

170) Nguyễn Quyết Thắng, 『Lê Triều Hình Luật』, NXB Văn Hóa - TT, 1997, 211쪽.

171) 崔常壽, 앞의 책, 1966, 103쪽, 107쪽.

선왕실에서 왕의 후궁인 내관과 궁중에서 봉사하는 상궁과 궁녀인 궁관을 통칭하는 여관과 다르다. 따라서 문무백관의 부인 중에서 학문이 높은 사람을 뽑고 궁중으로 불러와 관직을 내려주고 궁중 궁인에게 훈육을 시킨다. 여씨왕조의 개국공신인 阮庶(Nguyễn Trãi, 1380~1442)의 처인 阮氏路(Nguyễn Thị Lộ, 1400?~1442)가 黎朝 최초로의 여관직을 받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sup>172)</sup> 黎氏왕조 때뿐만 아니라 丁氏왕조 시기에 范氏珍(Phạm Thị Trân, 926~976)이 歌舞에 능하여 ‘優婆’라는 관직을 봉하며 궁녀와 병사들에게 가무와 악기연주를 가르치는 것을 맡겼다. 이후에 阮氏왕조 때에도 靑關縣夫人(Bà Huyền Thanh Quan, 1805~1848)은 학문을 잘 닦아서 궁으로 불러와 宮中敎習으로 봉하며 비빈과 왕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안남 여성의 위상과 역할은 베트남 전통사회에서 비교적 높았다는 점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기원 1세기 중엽에 사는 徵側(Trưng Trắc)과 徵貳(Trưng Nhị) 자매가 중국의 지배에 대항하여 싸웠던 이야기를 증빙할 수 있다. 이어서 베트남 역사상의 최초로 등극한 女王이 된 징측은 한자문화권에 속한 다른 나라보다 먼저 등장하였다. 徵女王(Trưng Nữ Vương) 후에 여성으로서 중국의 지배를 물리친 여자는 趙氏晶(Trịêu Thị Trinh)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자들이 외적에 대항하는 사례를 보아 베트남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이 지도적인 역할도 가지고 있었다. “Giặc đến nhà, đàn bà cũng đánh(적이 오면 여자마저 대항한다)”라는 베트남 속담을 보면 후대에 징여왕이나 조씨정과 같은 여자가 없지만, 그래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결코 낮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씨왕조에 이르러서 남성을 위주로 하는 가부장제가 수용되는 유교사상이 안남에 깊이 침투하였으나 여씨왕조의 법상은 여성에게 남성과 상당한 대치가 마련되었다. 이는 베트남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낮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남성이 우선순위라 해도 안남 여성은 집 안팎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즉, 집안의 제사계승과 집밖의 사회진출이 가능한 안남 여성의 특색이다. 당시 유교의 통치이념을 지닌 다른 나라의 여성에 비해 안남 여성은 유교이념의 경시로 인한 곤경에 처하지 않았을 듯하다. 특히 학문이 높은 여자들에게 관직을

172) 『대월사기전서』 본기 권2, 「黎紀二」, 壬戌 大寶三年. “八月四日 帝巡至嘉定縣荔枝園 遽得虐疾崩。初帝愛承旨阮庶妻阮氏路 容貌文章之美。召入拜爲禮儀學士。”

내려주기도 했다.

17세기 조선사회에서는 ‘여자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조선 여성의 언론을 반윤리적인 것으로까지 규정했다. 17세기는 조선의 가족제도에 있어서 변화의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가례』를 중심으로 발달한 조선 예학은 왕실에서부터 사회 저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보급함에 따라 가계의 영속화를 추구하는 宗法的 가족질서의 확립이다. 이에 제사계승 방식에 있어서는 이전에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나 손녀에게 제사를 잇도록 하는 윤희봉사나 외손봉사를 시행했던 것과는 달리, 同姓의 친족을 立後하는 방식이 활성화되었다. 즉, 조상제사의 계승은 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혼인을 함으로써 ‘다른 집 사람’이 되는 딸은 재산 상속이나 혈통 계승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sup>173)</sup>

이러한 조선 여성 인식을 가진 조완벽과 김태황 일행은 당시 안남 여성을 보는 것을 깊은 인상을 기억에 남겼다. 왜냐하면,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까지 성리학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경향은 예학의 발달로 인한 조선 여성의 위상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학의 규정에 따른 부자유를 가진 조선 여성과 달리 안남 여성의 자유로운 생활은 조완벽과 김태황 일행이 조선으로 돌아오자 퍼뜨렸던 것으로 본다.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은 안남의 여성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안남 역사상으로 보면 신뢰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조완벽의 방문담과 김태황의 표류담이 조선후기 사회상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17세기 안남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거라는 점에서 활용할 만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173) 규장각한국연구원, 『조선 여성의 일생』, 글항아리, 2010, 201쪽.

## V. 결론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안남 인식은 이수광, 조완벽, 김태황 등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이수광은 선진적 세계관을 추구하는 데 있어 안남이 조선과 마찬가지로 유교문화권임을 인식하였으나 서로의 문화 차이가 있기에 이질성을 아울러 인식하였기도 한다.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안남을 인식하는 데는 이수광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먼저, 안남국 사신 풍극관과 교류하면서 문답과 아울러 이미 알던 안남 지식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신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조완벽의 방문담은 조선과 가까운 나라들인 중국, 일본을 제외한 멀리 떨어진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를 알려주었다. 옛 베트남인 안남국에 대해서 수많은 유익한 정보를 가져가 당시 조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대대로 중국에서 양국 사신의 만남과 교류 또는 중국의 저서를 통하여 알게 되거나, 직접적인 수교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의 문화를 많이 알려줬다. 안남국의 당시 정세뿐만 아니라 안남인의 모습, 생활방식, 특산물, 기후 등을 자세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조완벽이 목격한 것들은 안남의 전부가 아닌 자신이 방문한 지역의 모습이었으나 그가 전해주는 정보의 가치가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당시 안남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김태황의 표류담은 전자보다 안남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고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당시 왕궁으로 입궁하여 국왕을 알현한 기회는 흔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안남의 옷차림은 괴이하게 여겨 자세히 묘사하였다. 또한, 안남에서 견문한 것들을 섬세하게 서술하는데 조선 지식인들에게는 조선에 없는 문물을 잘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러나 김태황 일행에 대한 표류담은 단순히 안남에서 견문한 것들을 서술하였으며 안남에 대한 인식을 잘 표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남인과 소통할 때는 한문을 매개로 하니 최소한 양국의 동질성을 느낄 수 있지만 서로의 문화 차이로 말미암아 이질성을 더욱 드러냈다. 그리고 전자 조완벽과 다른 지역에서 견문한 김태황 일행의 표류담은 조완벽의 방문담과 비교하면서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은 안남 인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수광은 안남에 관심이 많아 중국사행을 통하여 시야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최신 도서 또는 이야기를 모아 다른 나라에 인식을 넓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수광의 시야에 대한 제한은 그 나라에 직접 가서 경험한 일이 없다. 또 조완벽과 김태황의 경우는 안남으로 직접 가서 견문한 장점이 있으나, 자신이 안남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없어서 조선 지식인들에게 자신의 안남 인식을 알려줬을 때 잘못 인식한 것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각자의 안남 인식은 한계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에게 보완해 나가면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갖는 안남 인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본 연구는 당시 안남국이 둘로 갈려진 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안남국은 북쪽에서 鄭氏가 장악한 東京이 흔히 東京國 또는 安南國으로 지칭하며, 남쪽에서 阮氏가 관리한 順廣지방이 廣南國 또는 交趾國이라 불렀음을 확인했다. 조완벽은 일본 사람에 의해 이상의 인식을 갖게 되었으나 당시 안남 사람들이 국내에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다고 인식하지 못하여 鄭阮紛爭을 거쳐야 이제 안남 사람마저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수광은 안남 사신 풍극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여씨와 막씨의 정권교체기를 인식한 것을 가지고 후에 조완벽이 말한 안남국과 교지국이 나뉘어진 상태를 융합하여 「조완벽전」을 썼는데 안남에서 안남국과 교지국이 둘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있지만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즉, 조선 지식인의 기록물로 17세기 안남의 정치적 상황은 시기별로 잘 파악하여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안남의 민간풍속과 생활문화를 살펴볼 때 각자의 기록들이 서로의 모순과 갈등이 종종 있어서 안남의 자료와 당시 외국인들이 묘사한 안남인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서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인식한 안남의 민간풍속과 생활문화를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이수광·조완벽·김태황 등의 기록에 대한 제한과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

민간풍속에 대해서는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 맨발로 다니는 것, 이를 검게 하는 것, 빈랑을 씹는 것 등이 안남의 역사서와 문헌에 의해 이러한 풍속들이 고대 시대로부터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 즉 긴 머리를 기르는 것은 옛 풍속이 아닌 새로운 풍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맨발로

다니는 것은 처음으로 신분을 따지 않고 모두가 행하다가 이후에 신분계급의 확정됨에 따라 점차 귀가들이 신을 신기 시작하였지만 평민층은 여전히 맨발로 다녔음을 확인했다. 빈랑씹는 것과 이를 검게 하는 것은 근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지해 왔으나 서양문화의 침투로 현재 거의 사라졌고, 단 빈랑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담겨 있어 혼례준비 중에서 빼놓을 수 없다. 빈랑씹는 것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행하는 풍속이라니까 안남은 조선과 같은 유교문화권에 있으면서 색다른 동남아시아 문화도 있다고 인식하였다.

생활문화에 대해서는 조완벽의 주관적인 시선을 재분석하고 안남에서 삼모작 또는 다모작이 아닌 조선과 마찬가지로 이모작으로 경작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남인은 재앙을 당할 때 굶어죽은 사람이 많아 조선의 김장문화와 비슷한 음식 보관 문화도 들었다. 이는 안남인이 밥을 먹을 때 배만 채우면 된다는 원인을 풀 어줬다. 또한 조선에 없는 물소, 코끼리와 동물과 식물들의 용도에 대해서 살펴 보기도 했다. 특히,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운반하거나 이동수단으로 쓰는 것은 물론, 전쟁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지녔다고 파악하였다. 조완벽의 방문담과 김태황의 표류담을 분석하여 이수광은 물소와 외뿔소가 동일한 동물을 잘못 인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17세기 조선사회가 많이 변화해 나가며 조선 지식인들은 안남을 인식하는 데 있어 예민한 것도 있었다. 이수광과 같은 조선 지식인들은 조선에서 귀걸이를 다는 풍습을 금지하는 것은 중화문명을 따라하며 유교의 효도에 맞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수광은 막씨 사신과 여씨 사신을 만날 때 단발머리에서 긴 머리로 바꾼 것을 보았을 때 조선과 비슷하여 역시 중화문명 또는 유교의 효도를 따라하는 노력으로 이해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조완벽과 김태황 일행은 안남 여성을 볼 때, 예학의 규정에 따른 부자유를 가진 조선 여성과 달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따라서 동일문화권임도 안남 여성은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조선 여성에 비해 한층 높은 위상을 지녔음을 이해하였다.

지금까지는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이 안남 사람 모습, 생활모습, 정치적 상황 등을 더욱 깊게 이해하도록 이수광의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 조완벽의 방문담, 김태황의 표류담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 안남에 대한 기록들은 주로 정치적 상황을 서술하였기 때문에 안남 정치 외에는 기후, 풍속, 특산물

등을 알아보려면 전통적 사신 간의 교류는 물론이고 서사적 방문담과 표류담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쉽지만 베트남에서는 이수광의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을 주로 문학적이나 역사적으로 연구한 성과이며 현재 조완벽과 김태황 일행에 대한 연구가 드물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록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17세기 안남국의 상황 또는 중세시대의 안남인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 1. 사료 및 문집

#### 1) 史書 및 法典

##### 국내

『선조실록』, 『세종실록』, 『숙종실록』, 『중종실록』, 『태종실록』, 『耽羅巡歷圖』.

##### 국외

『大南一統志』, 『大越史記全書』, 『欽定越史通鑑綱目』, 『通典』, 『皇清職貢圖』.

#### 2) 文集 및 類書流

##### 국내

『梅窓集』, 『芝峯類說』, 『芝峯集』, 『燕行錄』, 『蒼石集』, 『耽羅聞見錄』, 『退溪集』, 『稗官雜記』, 『海外聞見錄』, 『海槎錄』, 『知瀛錄』.

##### 국외

『見聞小錄』, 『歷朝憲章類誌』, 『嶺南摭怪』, 『安南志略』.

#### 3) 원전사이트

한국: 『朝鮮王朝實錄』(<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지식콘텐츠(<https://www.krpia.co.kr/>)

베트남: 漢喃古籍文獻典藏數位化計畫(<https://lib.nomfoundation.org/>)

### 2. 단행본

### 1) 국내

KBS 한국사傳 제작팀, 『한국사傳』2, 한겨레출판, 2008.

규장각한국연구원, 『조선 여성의 일생』, 글항아리, 2010.

김석희, 썬 캅 마인, 응웬 득 또한 옮김, 『한월 사신 창화시문』, 글로벌콘텐츠, 2013.

김용태, 김새미오 옮김, 『해외문견록 - 제주목사 송정규, 바다 건너 경이로운 이야기를 기록하다』, 휴머니스트, 2015.

조흥국,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 소나무, 2009

崔常壽, 『韓國과 越南과의 關係』, 韓越協會, 1966.

『제주 최초의 인문지리지 지영록』, 국립제주박물관, 2021.

### 2) 국외

Đào Duy Anh, 『Việt Nam văn hóa sử cương』, NXB Văn Học, 1938 (tái bản 2021).

Nguyễn Quyết Thắng, 『Lê Triều Hình Luật』, NXB Văn Hóa - TT, 1997.

Trương Hữu Quỳnh 등, 『Đại cương lịch sử Việt Nam - Tập 1』, NXB Giáo Dục, 2001.

大阪府立圖書館(編), 『南方渡海古文獻圖錄』, 昭和18(1943).

岩生成一, 『南洋日本町の研究』, 南亞細亞文化研究所, 昭和15(1940).

### 3. 연구논문

#### 1) 국내

권혁래, 「조완벽전의 테스트와 문학적 의미 연구」, 『어문학』 100집, 한국어 문학회, 2008.

김문식, 「지봉 이수광의 베트남 이해」, 『韓國實學研究』 35집, 韓國實學學會, 2018.

남미혜, 「17世紀 被擄人 趙完璧의 安南 체험」, 『한국학논총』 45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남미혜, 「정유재란기 被擄人 趙完璧의 家系와 삶」, 『이화사학연구』 50, 2015.
- 정난영, 「조선후기 표류(漂流) 소재 기사(記事)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제40집, 동양한문학회, 2015
- 최영화, 「구술(口述)과 기술(記述)의 관계로 본 표해록의 글쓰기」, 『人文科學研究』 34권,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 박희병,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문화』 4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 엄경흠, 「芝峯 李睟光의 在明京 外國 使臣 交流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 이경희, 「『지봉유설(芝峯類說)』에 나타난 이수광의 세계 인식 -외국부(諸國部) 외 국조(外國條) 기사를 중심으로-」, 『문명교류연구』 2권, 한국문명교류연구소, 2011.
- 유인선, 「월남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아세아연구』 2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1982.
- 정규식, 「『조완벽전』을 통한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해외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방학』 Vol.39,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8.
- 최귀목, 「韓越 唱和詩 연구의 경과와 방향 점검」, 『한국어와 문화』 Vol.13,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3.

## 2) 국외

- Phạm Ngọc Hường, 「Địa vị của người phụ nữ trong xã hội phong kiến Việt Nam (một nghiên cứu qua luật Hồng Đức và luật Gia Long)」, 『Tập chí Khoa học Xã hội』 số 10, 2013.
- Nguyễn Doãn Tuân, Nguyễn Tuyết Anh, 「Nghĩ về vương triều Mạc và Thăng Long thuở ấy」, 『Di sản văn hóa phi vật thể』 số 4, 2010.
- Dương Quảng Hàm, 『Việt Nam thi văn hợp tuyển』, Trung tâm Học liệu xuất bản, Sài Gòn, 1968.
- Thomas J. Zumbroich, 「The origin and diffusion of betel chewing: a synthesis of evidence from South Asia, Southeast Asia and beyond」, eJournal of Indian Medicine

Volume 1 (2007 - 2008).

蓮田隆志, 「17世紀ベトナム鄭氏政權と宦官」, 『待兼山論叢(史學篇)』 39, Osaka  
University, 2005.